

보험동향 2011년 봄호

Ⅰ 총괄	김대환(연구위원)
Ⅱ 경제금융 동향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국내경제 최 원(선임연구원) 김세중(선임연구원) 금융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생명보험 이경희(연구위원) 김세중(선임연구원) 손해보험 김대환(연구위원) 최 원(선임연구원)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김세중(선임연구원) 일 본 이정환(선임연구원) 중 국 최 원(선임연구원) 유 럽 이정환(선임연구원) 최 원(선임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 현황과 시사점 / 1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 16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35

2. 국내경제 / 56

3. 금융경제 / 66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72

2. 생명보험 / 74

3. 손해보험 / 85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 미국 동향 / 103

◆ 일본 동향 / 109

◆ 중국 동향 / 117

◆ 유럽 동향 / 125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139

VI. 통계표 / 152

I. 테마진단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 현황과 시사점

이정희 연구위원, 김세중 선임연구원

1. 문제제기

소득공제금액 한도 상향 조정과 무배당상품 허용을 계기로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층별 가입률 분석을 통해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마케팅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 연금저축 상품은 2000년까지 판매된 개인 연금저축(이하 “구 개인연금”으로 칭함.)과 2001년 이후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이하 “신 개인연금”으로 칭함.)이 있음¹⁾.

○ 구 개인연금은 납입액의 40%(한도 72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수령 시 비과세하는 상품인데 비해, 신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한도를 불입액의 100%(한도 300만 원)로 확대하는 대신 연금수령 시 과세하는 상품임.

- 이들 상품은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함.

- 상품 가입 후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함.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금저축 상품은 정부에서 세제혜택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연금 형태의 수령을 준의무화(quasi-mandatory)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볼 수 있음.

1) 해당 법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시행령 제80조(개인연금저축)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시행령 제80조(연금저축)임.

〈표 1〉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종류 및 특징

구 분	구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	신 개인연금(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까지	2001.1.1 이후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기간	10년 이상	10년 이상
공제자	근로자 본인에 한정	근로자 본인에 한정
납입한도	분기당 300만 원	분기당 300만 원(2011부터 400만 원)
소득공제비율	납입액의 40%	납입액의 100%
소득공제한도	연 72만 원 (납입액 기준 180만 원)	연 3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납입액과 합산(2011부터 400만 원으로 확대)
중도 해지 시 패널티	5년 이내 해지 시 가입일부터 중도해지일까지 납입액의 4% 추징	22%(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 원천 징수
지급 방식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연금수령 시 과세	비과세	연금소득세(5%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적용), 총연금액 6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판매 금융기관	은행·투신사 신탁상품, 보험회사, 우체국, 농수협공제	은행·투신사 신탁상품,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농수협공제, 증권투자회사

자료 : 국세청(2011.1.12), 『2010 근로자와 세금』,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수정 작성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은 전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비해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높고, 최근 들어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2008년 기준 전체 적립금 중 보험회사 비중이 69%(생명보험 : 53.0%, 손해보험 : 15.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²⁾.

○ FY2009 기준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4조 9천억 원(생명보험 : 3조 1천억 원, 손해보험 :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FY2007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높지 않은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20~3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2) 이순재·김현수(2009)에 의하면 전체 적립금 중 개별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명보험회사, 은행,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순으로 추정됨.

〈표 2〉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FY2009
생명보험회사	25,023	28,516	30,265	31,018
증감률	21.1	14.0	6.1	2.5
손해보험회사	7,975	9,994	12,853	17,841
증감률	14.3	25.3	28.6	38.8

자료 :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1년부터는 신 개인연금의 소득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잠재적인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최대 소득공제 금액이 33.3%까지 늘어남에 따라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니즈가 발생하고, 기존 가입자들도 가입금액을 최대 한도까지 높이려는 증액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3〉 신 개인연금의 납입한도 증대에 따른 최대 소득공제금액 변화

(단위 : %, 천 원)

과세표준	세율 (소득세+주민세)	최대 소득공제금액		소득공제금액 증가율
		300만 원	400만 원	
1,200만 원 미만	6.6	198	264	33.3
1,200~4,600만 원	16.5	495	660	33.3
4,600~8,800만 원	26.4	792	1,056	33.3
8,800만 원 초과	38.5	1,155	1,540	33.3

-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소득공제한도 확대와 함께 무배당상품의 판매도 허용³⁾됨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판매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기존에는 유배당으로만 신 개인연금 상품을 개발하도록 규제하였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상품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⁴⁾.
- 소득공제한도 확대와 무배당상품 허용을 계기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신 개인연금 상품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금융위원회(2010.12.14)

4) 유배당상품의 수익 배분 비율은 주주 10%, 계약자 90%인데 비해 무배당상품의 수익은 전액(100%) 주주에게 귀속됨.

- 본고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시장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잠재 시장 발굴 및 목표 고객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국세통계연보에 발표된 2006~2009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입자 현황을 과세대상자 기준으로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살펴볼 것임.

2.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 현황

2009년 기준 신 개인연금 상품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 대비 11.4%, 과세대상자 대비 19.0%에 불과하며, 1인당 소득공제금액도 300만 원 한도에 미달하는 22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신 개인연금 상품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가. 가입자 규모 및 가입률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⁵⁾의 가입자 규모는 2006년 1,709천 명에서 2009년에 2,114천 명으로 증가하여 2007~2009년 연평균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 2000년까지만 허용된 구 개인연금 가입자 규모는 2006년 739천 명에서 연평균 10% 이상 감소하여 2009년에는 489천 명으로 축소됨.
- 반면, 2001년부터 판매된 신 개인연금 가입자는 2006년 971천 명에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여 2009년에는 1,624천 명으로 확대됨.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의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 기준 13~14%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 개인연금 가입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판매 중지된 구 개인연금 가입률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임(〈표 4〉 참조).

- 구 개인연금 가입률은 2006년 5.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에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반면, 신 개인연금 가입률은 2006년 7.7%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09년에는 11.4%로 높아짐(〈그림 1〉 참조).

5)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연금을 모두 포함한 것임.

■ 전체 근로자 중 과세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가입률을 산출하면 25%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구 개인연금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비해 신 개인연금 가입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임(〈그림 1〉 참조).

○ 구 개인연금 가입률은 2006년 11.2%에서 2009년 5.7%로 감소하였으나, 신 개인연금 가입률은 동 기간 14.7%에서 19.0%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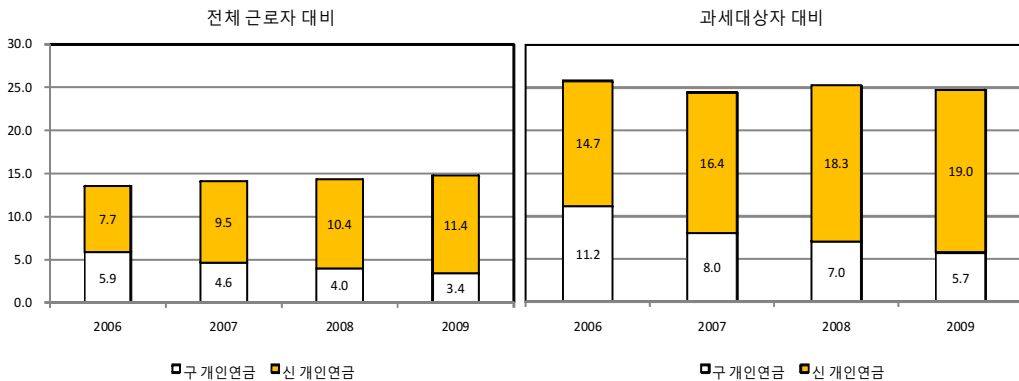
〈표 4〉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자 추이

(단위 : 천 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구 개인연금 가입자(A)	739	619	558	489
증감률	-	-16.2	-9.9	-12.3
신 개인연금 가입자(B)	971	1,274	1,459	1,624
증감률	-	31.2	14.5	11.3
계(C=A+B)	1,709	1,893	2,017	2,114
증감률	-	10.7	6.6	4.8
전체 근로자	12,595	13,376	14,046	14,295
증감률	-	6.2	5.0	1.8
과세대상 근로자	6,621	7,749	7,981	8,541
증감률	-	17.0	3.0	7.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그림 1〉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 추이



나. 1인당 소득공제금액 추이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으로 근로자 1인당 공제받은 소득금액 규모는 2006년 2,490천 원에서 2009년에는 2,657천 원으로 소폭 높아졌으나, 최대 공제한도를 채우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구 개인연금의 최대 공제한도는 72만 원인데 비해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최대 금액 대비 67%에 불과한 48만 원에 그침.
- 신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2006년부터 공제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은 평균 금액은 최대 한도 대비 73%에 불과한 220만 원으로 나타남.

〈표 5〉 1인당 소득공제금액 추이

(단위 : 천 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구 개인연금 가입자(A)	471	476	492	479
신 개인연금 가입자(B)	2,019	2,132	2,154	2,178
합계(C=A+B)	2,490	2,609	2,646	2,65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3. 과세대상자 기준 신 개인연금 상품 가입률⁶⁾

과세대상자 기준 신 개인연금 가입률은 40대가 25.0%로 가장 높고, 30세 미만은 13.4%에 불과함.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가입률과 소득공제금액도 높아져 중상소득층 중심으로 동 상품이 활용되고 있으며, 중저소득층인 4천만 원 미만 계층의 가입률은 2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가. 성별 · 연령별 가입률

■ 과세대상자 기준 신 개인연금 상품 가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2007년 이후에는 남자 가입률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6) 구 개인연금 상품은 판매 중단되어 신 개인연금 상품을 대상으로 분석함.

- 남자 근로자의 가입률은 2006년 14.1%에 불과하였으나 연평균 1.9%p씩 상승하여 2009년에는 19.9%로 높아짐.
- 여자 근로자의 가입률은 2006년에는 16.1%로 남자보다 높았으나 이후 연평균 상승 폭이 0.3%에 불과하여 2009년에도 17.1% 수준에 머물렀음.
- 2009년 기준 가입자 규모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167천 명인데 비해 여자는 남자의 39%에 불과한 458천 명임.

〈표 6〉 성별 가입률 추이

(단위 : 천 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남자	신 개인연금 가입자	692	916	1,050	1,167
	과세대상자	4,888	5,484	5,629	5,857
	가입률	14.1	16.7	18.7	19.9
여자	신 개인연금 가입자	279	357	409	458
	과세대상자	1,731	2,263	2,351	2,682
	가입률	16.1	15.8	17.4	17.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 연령별 가입률 추이를 보면, 전연령 계층에서 가입률이 높아졌으나 40대 계층의 가입률이 가장 높고 증가 폭도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가입률 수준은 40대 25.0%, 50대 20.3%, 30대 19.6% 순으로 나타났으며, 30세 미만은 13.4%로 낮고, 60세 이상은 3.9%에 불과함.
- 가입률이 가장 크게 상승한 연령계층은 40대로 연평균 2.0%p 높아졌으며, 50대에서도 연평균 1.9%p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신 개인연금 상품은 소득수준이 높아 공제 효과가 크고 노후소득 확보의 필요성이 높은 40~50대 중장년층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에 비해 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20대 계층에서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신 개인연금 상품 활용도가 40~50대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연령별 가입률 추이

(단위 : 천 명,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30세 미만	신 개인연금 가입자	203	250	236	246
	과세대상자	1,726	2,090	1,785	1,839
	가입률	11.8	11.9	13.2	13.4
30~39세	신 개인연금 가입자	340	447	495	549
	과세대상자	2,355	2,639	2,690	2,804
	가입률	14.4	17.0	18.4	19.6
40~49세	신 개인연금 가입자	320	427	500	556
	과세대상자	1,685	1,920	2,091	2,228
	가입률	19.0	22.2	23.9	25.0
50~59세	신 개인연금 가입자	104	145	216	258
	과세대상자	719	900	1,116	1,274
	가입률	14.5	16.1	19.3	20.3
60세 이상	신 개인연금 가입자	3	5	12	15
	과세대상자	134	198	298	395
	가입률	2.6	2.7	4.0	3.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나. 소득계층별 가입률

■ 소득계층별 가입률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입률도 높아져 중상소득층을 중심으로 신 개인연금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천만 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가입률은 4%대에 불과하며, 2천만 원~4천만 원 계층의 가입률도 25.2%에 머문 반면, 8천만 원~1억 원 계층의 가입률은 6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억 원 미만까지는 근로소득금액 구간이 높아질수록 연금저축 가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억 원을 초과하면 가입률이 소폭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 2006~2009년 동안 가입률이 가장 많이 향상된 구간은 6천만 원~8천만 원 계층으로 연평균 5.0%p 정도 높아졌으며 그 다음이 4천만 원~6천만 원 계층으로 연평균 4.7%p 높아짐.

○ 이에 비해 2천만 원~4천만 원 계층과 2천만 원 미만 계층의 연평균 가입률 증가 폭은 각각 2.7%p, 0.3%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근로소득금액별 가입률 추이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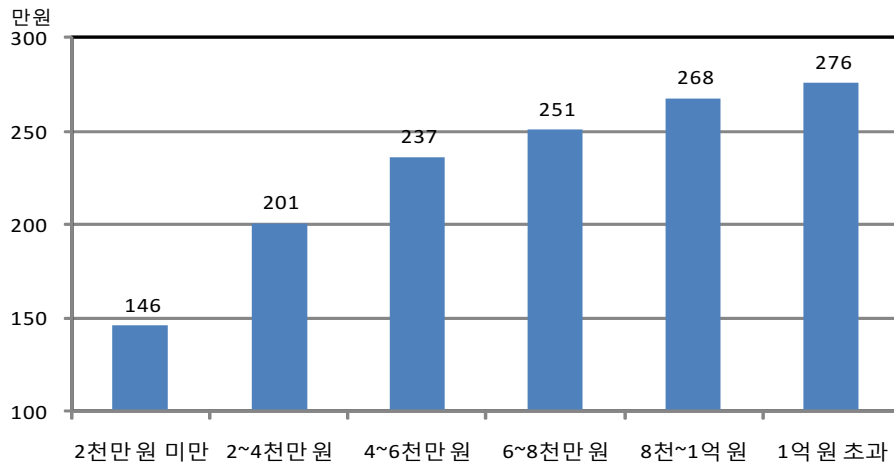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천만 원 미만	신 개인연금 가입자	105	167	185	192
	과세대상자	3,020	4,212	4,173	4,498
	가입률	3.5	4.0	4.4	4.3
2천만 원~4천만 원	신 개인연금 가입자	377	501	541	589
	과세대상자	2,226	2,183	2,243	2,341
	가입률	16.9	22.9	24.1	25.2
4천만 원~6천만 원	신 개인연금 가입자	290	366	426	494
	과세대상자	930	899	1,002	1,091
	가입률	31.2	40.7	42.5	45.3
6천만 원~8천만 원	신 개인연금 가입자	111	138	182	213
	과세대상자	265	267	338	374
	가입률	41.9	51.6	53.8	57.0
8천만 원~1억 원	신 개인연금 가입자	48	54	69	75
	과세대상자	96	96	118	125
	가입률	50.4	56.7	58.3	60.3
1억 원 초과	신 개인연금 가입자	39	48	56	61
	과세대상자	84	92	107	113
	가입률	47.0	51.7	52.9	54.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소득구간별로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예상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 금액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2천만 원 미만 계층의 소득공제금액은 146만 원인데 비해 8천만 원~1억 원 계층은 268만 원, 1억 원 초과 계층은 276만 원으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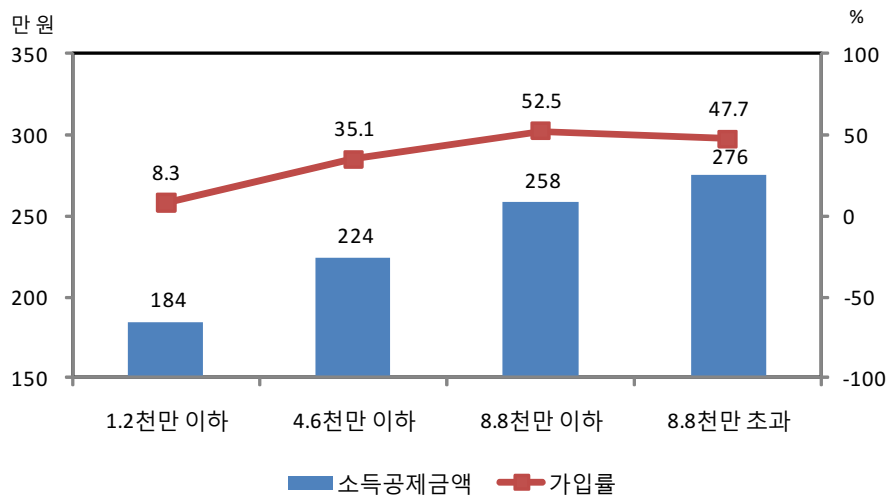
〈그림 2〉 근로소득금액별 소득공제금액(2009)



■ 과세표준 구간별 가입률과 소득공제금액 간 관계를 살펴 보면, 대체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금액도 높아지고 가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과표 8천 8백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가입률과 소득공제금액이 동시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최고 과표 구간인 8천 8백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공제금액은 276만 원으로 높아지는데 비해 가입률은 47.7%로 하락함.

〈그림 3〉 과세표준 구간별 가입률과 소득공제금액(2009)



4. 낮은 가입률의 원인 : 상품 수익률과 세제혜택 유인 측면

신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시중 금리보다 높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수익률 측면에서 찾기는 어려움. 다만, 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계층은 실제 납부한 세액이 크지 않아 세제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가입 동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자 기준 신 개인연금 상품의 가입률(2009년)은 1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서는 낮은 수익률, 저소득 계층의 낮은 가입 유인 및 구매력 등의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 가입 유인이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이 수익률 측면의 상품 경쟁력이 낮아서인지 규명하기 위해 과거 수익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08~2010년 신 개인연금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금융기관별 · 상품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익률 요인에 기인하여 가입률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예정이율 평균으로 산출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수익률은 각각 4.9%, 5.6%에 달하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채권형과 안정형의 평균 수익률도 각각 4.4%, 4.3% 수준으로 파악됨.
 -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채권형 4.8%, 채권혼합형 5.4%, 주식혼합형 7.9%, 주식형 11.7%로 추정됨.

〈표 9〉 신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금융기관별 · 상품유형별)

(단위 : %)

구 분		직전1년(2010) 평균	직전2년(2009~2010) 평균	직전3년(2008~2010) 평균
생명보험회사		4.8	5.2	4.9
손해보험회사		5.3	5.4	5.6
증권	채권형	4.6	3.8	4.8
	채권혼합	8.9	10.5	5.4
	주식혼합	13.8	21.9	7.9
	주식형	17.9	36.4	11.7
은행	채권형	3.5	3.4	4.4
	안정형	4.5	4.7	4.3
국고채 3년 수익률		3.7	3.9	4.3
회사채(AA-) 3년 수익률		4.7	5.2	5.8

주 : 1) 보험회사는 예정이율 평균

2) 증권은 누적수익률을 연평균으로 환산

3) 2010년 말 기준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의 평균 수익률

자료 : 각 협회 공시 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계층별로 가입률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계층별 실제 납부한 세액 기준으로 가입 유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과세대상자 중 80.1%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4천만 원 미만 계층의 낮은 가입 유인과 구매력이 신 개인연금의 낮은 가입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됨.

○ 2천만 원 미만 계층에서는 1인당 결정세액이 12만 원에 불과하여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절세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가입률도 4.3%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천만 원~4천만 원 계층에서는 결정세액이 78만 3천 원으로 높아지지만, 여전히 절대 금액이 크지 않아 신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동 상품에 가입할 구매력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4천만 원 이상 계층에서는 결정세액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과 구매력 측면에서 가입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10〉 근로소득금액별 1인당 결정세액과 신 개인연금 가입률(2009)

(단위 : 천 원, 명, %)

구 분	1인당결정세액	대상 인원	인원 비중	신 개인연금 가입률
2천만 원 미만	120	4,484,287	52.7	4.3
2천만 원~4천만 원	783	2,332,317	27.4	25.2
4천만 원~6천만 원	2,650	1,090,162	12.8	45.3
6천만 원~8천만 원	5,558	373,804	4.4	57.0
8천만 원~1억 원	9,753	124,441	1.5	60.3
1억 원 초과	38,534	111,806	1.3	54.1
평균	1,509	8,516,817	100.0	19.0

자료 : 국세청(2010), 『국세통계연보』

5. 시사점

신 개인연금은 소득계층별로 실제 부담하는 세액과 구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러한 측면을 파악하여 소득계층별로 시장을 세분한 후 각 계층에 부합하는 마케팅 프로세스와 판매채널을 구축해야 함. 정부에서도 저소득자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과 더불어 관련 정보 제공과 소비자교육 등 시장 확대 및 정책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신 개인연금 상품의 세제혜택과 양호한 투자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험회사는 가입 유인이 존재하는 잠재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균 가입률이 19.0%로 낮게 나타난 것은 과세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천만 원 이하 계층에서는 신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향유할 니즈가 거의 없어 가입률이 4.3%에 불과하기 때문임.
- 성별·연령별 가입률보다 소득계층별 가입률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소득계층별로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납부 세액이 265만 원에 달해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향유할 수 있고 구매력도 존재하지만, 가입률은 45.3%에 머문 4천만 원~6천만 원 이하 계층에 대한 잠재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2천만 원 이상 소득계층의 가입률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신 개인연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세스가 필요함⁷⁾.

- 일반 대중(mass market)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 확보, 이들의 판매를 유인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 지급 체계 등을 검토함.

■ 정부에서는 세제혜택 측면에서 가입 동기를 찾기 어려운 2천만 원~4천만 원 이하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유층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소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 상품의 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은 중저소득층에 집중하도록 함.
- 중저소득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일정 수준(예 : 가입금액의 20%)을 보조해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은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개인들이 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습득한 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기관이 정부의 역할을 보완(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주도의 정보제공과 소비자교육이 필요함.
- 다양한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익률뿐만 아니라 유지율, 리스크 수준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적인 공시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함.

7) Orszag(2010)

〈참 고 문 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호

국세청, 『2010 근로자와 세금』

금융위원회(2010.12.14),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상품공시자료

동부증권 리서치센터(2011.1.12), 『보험』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호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상품공시자료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상품공시자료

이순재 · 김현수(2009.8), 「개인연금의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3호, pp.249-280.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상품공시자료

한국은행(www.bok.or.kr), 경제통계시스템

Orszag, J. Michael(2000), *Annuities: The Problems*, Presented at NAPF Annual Conference, May 11-12

◆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김대환 연구위원

1. 검토배경

경제발전과 가족부양이라는 부담 속에서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에는 소홀한 베이비부머(Baby Boomers)들이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증연구가 부재하여,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은퇴자들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실증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조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률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현재 1,65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되면서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보험의 역할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은 국가 경제발전과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주역이었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에는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
 - 1955~1974년생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들은 IMF 외환위기, 카드사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세대임.
 - 이러한 수차례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책임지며 정작 자신의 은퇴 준비에는 소홀하여 왔음.
- 인구 고령화, 은퇴, 베이비부머 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여 다소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음.

■ 이에 본고는 베이비부머들이 장기화되어 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미연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2장에서는 이미 은퇴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함.
- 3장에서는 은퇴자들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리스크 중 소득과 건강리스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조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및 현황분석의 결과를 통해 정책당국자와 향후 은퇴할 베이비부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함.

2.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분석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경우 소득과 건강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크게 영향 받고 있으며, 은퇴 이후 소득 및 건강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적연금과 건강보험도 은퇴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남성보다는 여성,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 분석자료 및 모델

■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데이터를 활용함.

-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위한 자료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여 구축하고 있는 패널자료⁸⁾임.
- 설문대상은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중·고령자이며, 본 연구에는 은퇴자(9,7418명)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함.
- 설문내용은 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을 포함함.
- 설문조사는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차(2005년)와 2차(2007년)를 통합한 자료(pooling sample)를 활용함.

■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는 응답자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비연속변수(discrete variable)임.

- 설문조사에서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어진 생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응답자들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중 하나를 선택하였음.
- “매우 불만족”에는 1을, “불만족”에는 2를, “보통”에는 3을, “만족”에는 4를, “매우만족”에는 5를 부여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함.
- 즉, 종속변수는 우리나라 중·고령자가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이해될 수 있음.
- Burr(1979)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물질이든 정신이든 간에 인간이 심리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

■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기초로 하고, 중·고령자의 소득 및 건강과 관련한 보험상품의 소유여부를 추가로 고려함.

- Bowling&Windsor(2001)는 영국 국립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건강, 가족과의 관계, 소득 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8) 패널자료는 동일한 사람(샘플)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예 : 1년, 2년 등)마다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여 구축한 데이터임.

- 이에 성별, 연령과 같은 기본적인 통제변수와 함께 건강, 가족과의 관계, 소득, 그리고 학력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함.
- 추가적으로 은퇴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소득 및 건강과 관련한 리스크보장 장치의 소유여부를 고려함.
 -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적연금⁹⁾과 사적연금(개인연금)¹⁰⁾을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은퇴자를 공적연금만 소유한 그룹, 사적연금만 소유한 그룹, 공사연금을 모두 소유한 그룹으로 구분하고 아무런 연금을 소유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함¹¹⁾.
 - 은퇴자는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건강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민영건강보험을 소유한 그룹을 소유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함¹²⁾.

9)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 우체국직원연금을 포함함.

10)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제도가 포함되나, 퇴직연금과 관련한 정보는 아직 가용하지 않은 국민노후 소득보장패널의 3차 자료에 포함됨.

11) 일반적으로 샘플을 공적연금을 보유한 그룹과 사적연금을 보유한 그룹, 그리고 아무런 연금도 보유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공적연금을 보유한 그룹에 사적연금을 보유한 그룹이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적연금을 보유한 그룹에 공적연금을 보유한 그룹이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함.

12)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대부분 보장받음.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정의

변수명		정의	
독립변수(기준그룹)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1~5)
	성별(여성)	남성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학력(고졸 미만)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1, 아니면 0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했으면 1, 아니면 0
	연령	나이	나이를 나타내는 연속변수
		나이×나이	나이의 제곱
	가족관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있으면 1, 아니면 0
		자녀 있음	자녀 있으면 1, 아니면 0
	소득 (공사연금 모두 소유하지 않은 그룹)	소득	은퇴자의 가구 총 소득
		소득×소득	은퇴자의 가구 총 소득 제곱
		사적연금만 소유	사적연금만 소유하면 1, 아니면 0
		공적연금만 소유	공적연금만 소유하면 1, 아니면 0
		공사적 연금 소유	공사연금을 모두 소유하면 1, 아니면 0
	건강 (건강수준이 보통 그룹)	건강 나쁨.	건강이 나쁘면 1, 아니면 0
		건강 좋음.	건강이 좋으면 1, 아니면 0
		건강보험 소유	건강보험을 소유하면 1, 아니면 0

■ 은퇴자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러한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증분석이 적합함.

- 실증분석모형으로 순위로짓(Ordered Logit)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순위로짓은 순위프라빗(Ordered Probit)모형과 함께 설문조사 응답자 본인이 순위를 정하여 제공하는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계량경제모형임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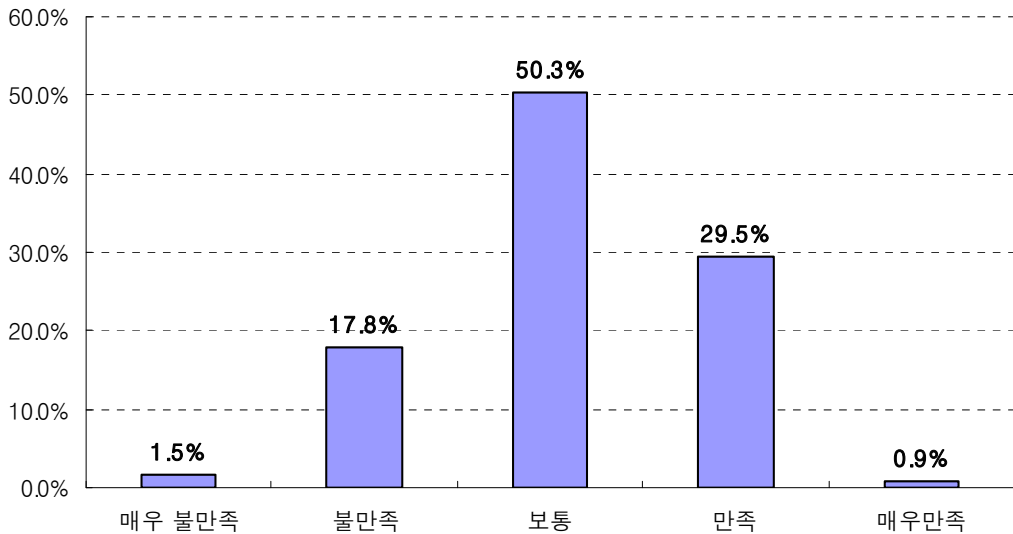
나. 분석결과

■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대부분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은퇴자의 비중이 만족하지 않은 비중보다 높음.

13) 순위로짓 및 순위프라빗 등 비연속변수의 실증분석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Cameron A.C.&Trivedi P.K.(1998)를 참고하기 바람.

- 은퇴자의 절반이 삶의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비중은 30% 정도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하고 있는 비중 20%보다 높음.

〈그림 1〉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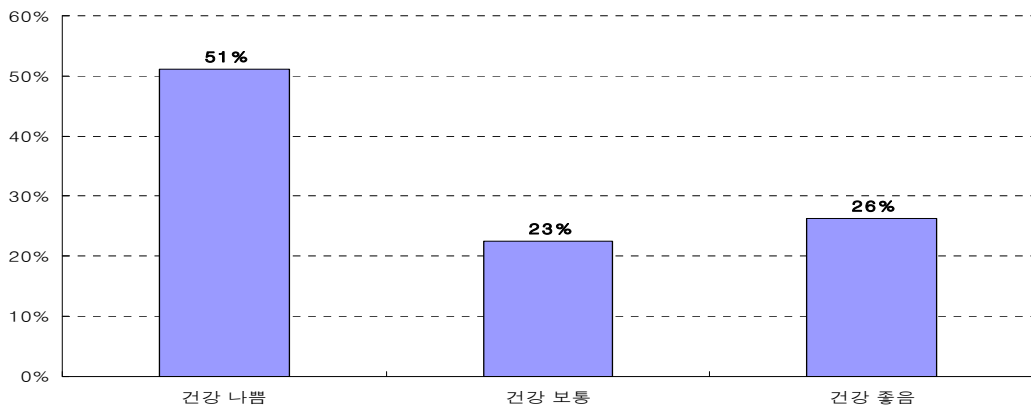
- 은퇴자의 22.1%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은퇴자는 8.6%에 불과함.
-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는 74.3%이며, 자녀가 있는 은퇴자는 96.6%에 달함.
- 은퇴자의 가구 총 소득은 평균 2천 2백만 원 정도이며, 사적연금을 보유한 은퇴자는 2.23%, 공적연금을 보유한 은퇴자는 15.5%임.
- 반면, 민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은퇴자는 25.3%로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 소득재원 마련보다는 건강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자조노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노후소득재원으로 미리 사적 연금에 가입하기 보다는 부동산을 활용하는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표 2〉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구 분		평균값	표준편차
독립 변수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3,105
	성별	남성	0,416
		여성	0,493
	학력	고등학교 졸업	0,221
		대학교 졸업	0,086
	연령	나이	64,634
		나이×나이	4269,468
	가족관계	배우자 있음	0,743
		자녀 있음	0,966
	소득 (단위 : 100만 원)	소득	21,990
		소득×소득	1335,736
		사적연금만 소유	0,009
		공적연금만 소유	0,142
		공사적 연금 소유	0,013
	건강	건강 나쁨.	0,511
		건강 좋음.	0,263
		건강보험 소유	0,253

- 무엇보다 은퇴자들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함.

〈그림 2〉 은퇴자의 건강상태 분포



■ 회귀분석 결과 은퇴자들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학력과 연령이 증가할 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⁴⁾.

- 남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여성의 0.85배이며, 고등학교 졸업자 및 대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진 은퇴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각각 1.13배, 1.34배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은퇴한 이후에도 학력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음.
- 고연령자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실제로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 직후에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해서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은퇴 이후의 삶에 적응하면서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은퇴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은퇴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 우리나라 은퇴세대들은 가족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는 없는 은퇴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1.57배 높으며, 자녀가 있는 은퇴자는 없는 은퇴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가족관계는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배우자보다는 자녀로 인한 삶의 만족도가 높음.

■ 소득수준과 노후소득 재원을 충당하는 연금소유 여부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공적연금만 소유한 은퇴자들은 삶의 만족도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소득이 높은 가구의 은퇴자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사적연금을 소유하거나 공사연금을 모두 소유한 은퇴자들도 삶의 만족도가 높음.
- 사적연금만 소유한 은퇴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1.5배 높으며, 공사연금 모두를 소유한 은퇴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1.6배가 높아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두터울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4) 로짓 및 순위로짓모형은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독립변수의 한계효과를 계산하는 것 대신에 오비즈(Odds Ratio)를 계산·활용하는 것이 용이함.

○ 하지만 공적연금만 소유한 은퇴자들은 아무런 연금을 소유하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음.

-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가입자가 많지 않아 희소성(Scarcity) 측면에서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될 수 있으며, 순수하게 자조노력에 의해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은퇴자들은 건강하거나 민영건강보험을 소유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건강상태는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건강하지 않은 은퇴자는 건강수준이 보통인 은퇴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0.4배에 불과하며, 반면 건강한 은퇴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4.2배에 달함.

- 즉, 건강한 은퇴자들은 건강하지 않은 은퇴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5배 가까이 높아 건강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을 소유한 은퇴자들도 삶의 만족도가 1.5배나 높아 건강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소유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회귀분석 결과

구 분		모델1(공사보험 제외)		모델2(공사보험 포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오비즈 (Odds Ratio)
성별	남성	-0.163	0.046***	-0.165	0.048***	0.848
학력	고등학교 졸업	0.134	0.055**	0.118	0.055**	1.125
	대학교 졸업	0.311	0.083**	0.292	0.083***	1.340
연령	나이	0.046	0.024*	0.075	0.025***	1.078
	나이×나이	0.000	0.000*	0.000	0.000***	1.000
가족 관계	배우자 있음.	0.438	0.054***	0.448	0.054***	1.566
	자녀 있음.	0.737	0.136***	0.713	0.136***	2.040
소득	소득	0.016	0.001***	0.015	0.001***	1.015
	소득×소득	0.000	0.000***	0.000	0.000***	1.000
	사적연금만 소유			0.401	0.222*	1.494
	공적연금만 소유			0.018	0.069	1.018
	공사적 연금 소유			0.474	0.194**	1.607
건강	건강 나쁨.	-0.932	0.053***	-0.920	0.053***	0.399
	건강 좋음.	1.446	0.060***	1.440	0.060***	4.222
	건강보험 소유			0.385	0.052***	1.470

주 : 1) 모델1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위주로 분석하였고 모델2는 공사보험의 소유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해석은 설명력이 높은 모델2에 근거함.

2) * 유의수준 10%,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를 의미함.

3. 은퇴자의 리스크 관리 현황과 평가

소득과 건강은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수입규모가 작고 가족으로부터의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어 은퇴연령 이후 의료비가 최고치에 달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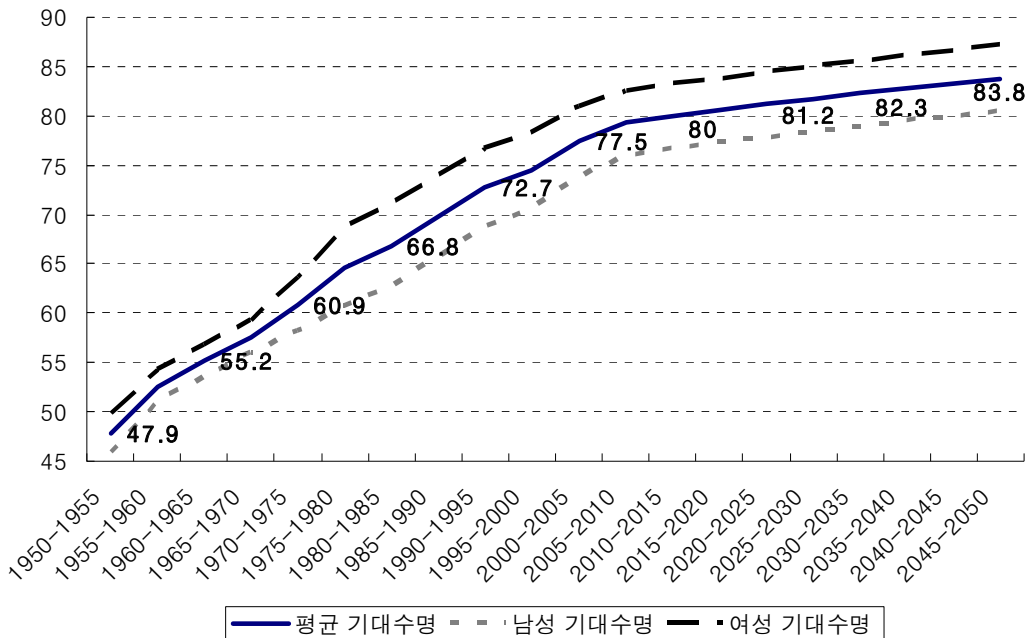
가. 은퇴 이후 주요 리스크

- 소득과 건강은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과 동시에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불안한 요인이기도 함.
 - 실증분석에서 성별, 학력, 연령, 가족관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통제변수 이외에 소득 및 건강은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
 - 보험연구원의 소비자설문조사(2009)에 따르면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 대부분 소득감소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위험(53.6%)과 의료비 및 신체기능 장애 등 건강과 관련된 위험(41.3%)이라고 응답함.
 - 충분한 소득과 건강이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만큼 소득 및 건강관련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평균수명이 증가할수록 은퇴 이후 노후기간이 장기화되어 노후소득 및 건강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임.
 - 1950~1955년 47.9세에 불과한 기대수명이 2010~2015년 80세를 상회하여 2045~2050년에는 84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¹⁵⁾.

15) UN(2009)의 전망치이며, 우리나라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10.9)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86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3〉 기대수명 추이

(단위 : 세)



자료 : United Nations(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나. 노후소득

■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수입규모가 작고 가족으로부터의 이전소득과 같은 비정규적인 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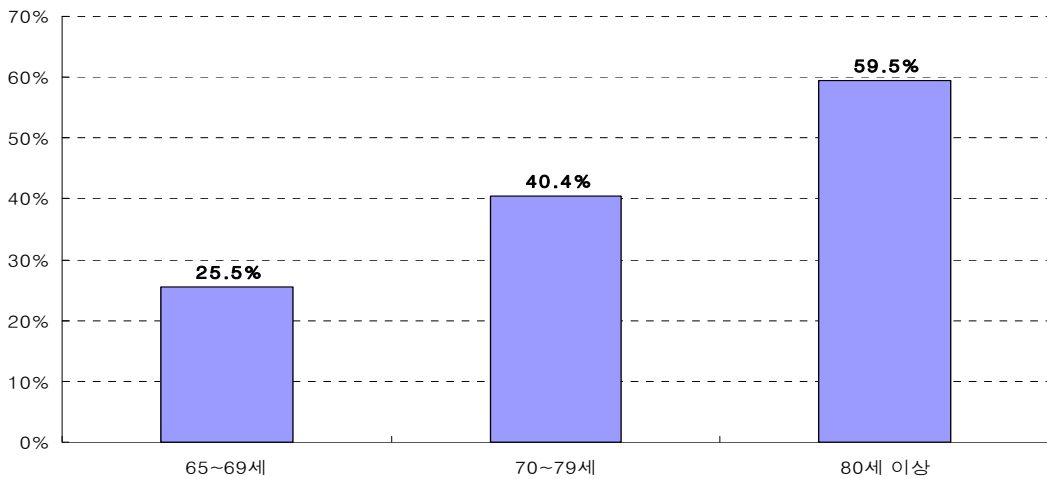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44만 원인 반면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절반수준인 183만 원에 불과함(2009년 기준).

○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생활비의 37.6%를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과 같은 비정규적인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함¹⁶⁾.

- 특히, 자녀 또는 친척이 지원하는 이전소득의 비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60%에 달함.

16) 통계청(2009)

〈그림 4〉 연령증가에 따른 이전소득 비율



자료 : 통계청(2009), 『사회조사』

■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낮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체계의 발전도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퇴직 후 연금소득대체율은 국제적 권고수준인 70~80%에 훨씬 못 미치는 45% 수준이며,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표 4〉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수준 비교

(단위 : %)

보장구분	권고수준	미 국	영 국	일 본	영 국	한 국
1층	국민연금	30~35	41	31	34	25
2층	퇴직연금	30~35	38	39	26	12
3층	개인연금	10 이상	10 가정			8
합 계		70~80	89	80	70	45

주 : 류건식 외 2(2009.3), OECD(2009)

■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은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고령자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유동화도 쉽지 않음.

- 우리나라 근로자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 일자리로부터의 은퇴연령은 55세 전후로 은퇴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름¹⁷⁾.
 - 외환위기 이후로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퇴직은 기업이 정하고 있는 정년보다 일찍 발생하고 있음.
- 베이비부머들의 가계 자산은 다른 계층보다 부동산자산에 치우쳐 있어 유동화가 쉽지 않고 부동산 경기 악화시 노후소득재원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마저 상존하고 있음.
 - 내집마련이 주요 재무목표였던 베이비부머는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82.4%에 달하며 금융자산은 14.8%에 불과함¹⁸⁾.

다. 건강과 의료비

- 우리나라 은퇴연령 이후의 고령자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을 지닌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75세 이상 고령자의 90% 이상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¹⁹⁾²⁰⁾.
 -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비중은 2002년 6.8%에서 2005년 9.1%로, 그리고 2007년에는 10.8%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²¹⁾²²⁾.
 -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일시적인 질환과 함께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이며, 특히 이러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금은 기대수명이 증가할수록 가중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은 과거 5년 동안(2002~2007) 3.4배 증가하였음²³⁾.

17) 김주영 · 우석진(2010)

18) 한경혜 외(2011.3)

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은 급성질환(acute disease)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통 6개월 혹은 1년 이상 계속되는 질환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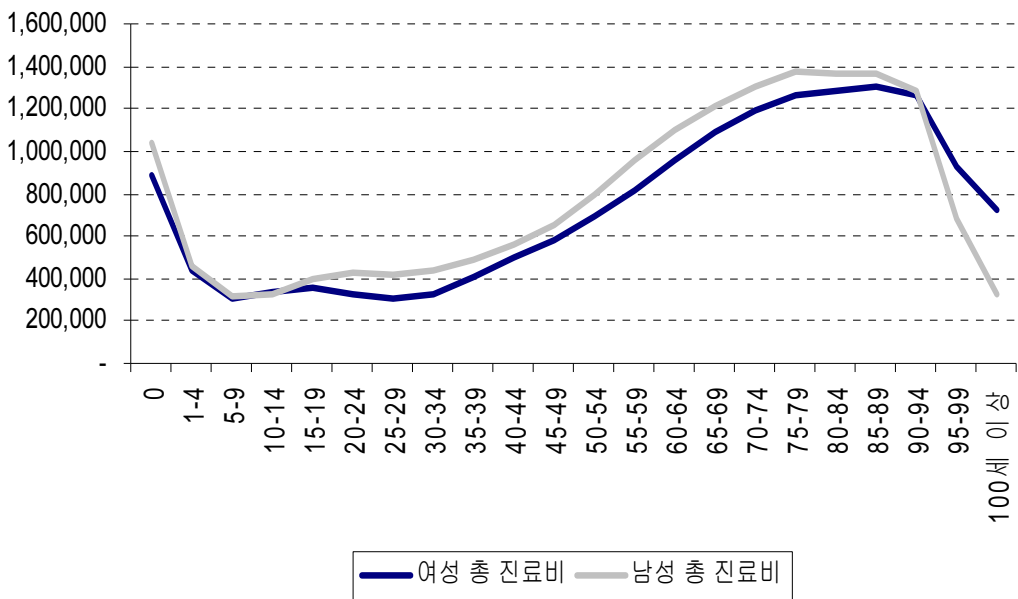
21) 박종연 외(2008)

22) 일반적으로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을 포함함.

-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총 진료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데, 은퇴연령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사망 이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은퇴시기 이후 60~64세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이후에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사망이전에는 진료비가 크게 감소하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의 감소현상이 뚜렷함.
 - 고령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도 증가함과 동시에 병세가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감소하는 것은 노후소득 및 자산이 소진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함을 방증함.

〈그림 5〉 성별 연령에 따른 환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

(단위 : 원)



주 : 총 진료비 = 건강보험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청구자료(2007년 기준)

라. 소득 및 건강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조노력 필요성 확대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의 비율은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총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65세 인구비중은 2050년 38.2%까지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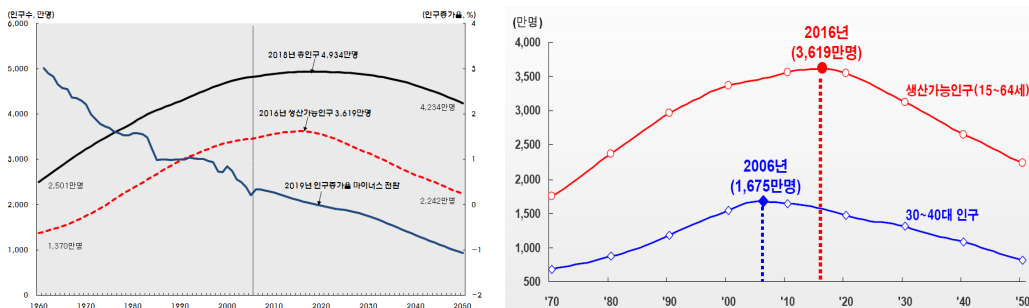
- 현재(2010년) 생산가능인구 6.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2.7명이 고령자 1명을, 그리고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함²⁴⁾.

○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산가능인구라고 정의된 15~64세 중 20세 이전 연령은 부양을 받는 인구계층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이 55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가능인구의 상당부분이 부양부담을 책임지지 못하는 실정임.

- 노동력의 주축이면서 주요 부양부담을 책임질 30~40대 인구는 이미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함.

- 부양이 필요한 인구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부양을 책임질 인구비중은 반대로 빠르게 감소하여 국가가 소득재분배만을 통한 노후보장체계를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그림 6〉 각 계층별 인구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2009.1.20),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24) 통계청(2006)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 소득보장 및 건강보장을 위한 공적보험의 재정악화가 현실화 될 것이며, 개인 스스로의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보장을 미연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고부담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5〉 GDP대비 국민연금 국고부담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 추이

(단위 : %)

연도	국민연금 국고부담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
2009	0.30	0.28
2010	0.32	0.33
2030	1.22	1.65
2050	1.64	2.71

주 : 건강보험은 공적연금과 달리 매년 국고지원을 통하여 정산되기 때문에 국고부담이 누적되어 증가하는 않고 GDP의 0.4%정도 수준에서 유지됨.

자료 : 박형수 · 전병목(2009)

4. 결론 및 시사점

정부는 은퇴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정책적인 개선 및 지원과 함께 시장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국민 스스로도 소득의 평활화(smoothing)와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작용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임과 동시에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임을 인지해야 함.

- 은퇴 이후 소득과 건강은 장기의 노후를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의 고령화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 국민들의 소득 및 건강 리스크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함.

-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득과 건강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강조되고 있지만,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소득 수준 및 건강 유지 기간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은퇴자들은 소득과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은퇴 이전 근로 소득이 높을 때 사적보험을 활용하여 향후 노후의 소득 및 건강리스크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영보험에의 가입뿐만 아니라 건강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정책당국자는 국민의 소득 및 건강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국민들이 자조노력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민영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임금피크제와 같은 유연한 고용제도를 활용하여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은퇴 이후 재취업을 통해 소득흐름을 평활화(smoothing)할 수 있는 노동시장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국민 스스로도 자녀의 소유여부가 향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결혼 및 가임연령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높은 양육비 및 교육비,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등이 지적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국민 스스로도 약화되어가는 가족간의 이타주의에 대해 고려해야 함.

- 이전세대와 달리 높은 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간 이타심의 약화로 인해 낮은 출산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출산률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기도 하지만, 본인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이기도 함.

〈참 고 문 헌〉

건강보험공단(2007), 『건강보험청구자료』

김기태 · 박봉길(1998), 「생활보호대상노인과 일반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노인복지연구, Vol. 5

김영숙 · 서경현(2002), 「생활환경에 따른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준」, 노인복지연구

김주영 · 우석진(2010.5),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류건식 외 2(2009.3),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박종연 외(2008.3),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국민연금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소, 연구보고서

방하남외 3(2005.10),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박형수 · 전병목(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원 및 보건사회연구원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연구」, 한국행정연구, Vol. 5, No. 1

통계청(2009), 『사회조사』

통계청(2006.11), 『장래인구추계 결과』

통계청(2010.5.7),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통계청(2011.3.8), 『201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09.1.20),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 노인생활실태조사」

한경혜 외(2011.3), 「한국의 베이비 부머 연구」

Bowling, A., Windsor, J. (2001), "Towards the good life. A population survey of dimensions of quality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

Burr, W, R. (1979),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and the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Cameron A.C., Trivedi P.K. (1998), "Regression Analysis of Count Data", Economic Society Monograph No. 30,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October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United Nations(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Ⅱ. 경제금융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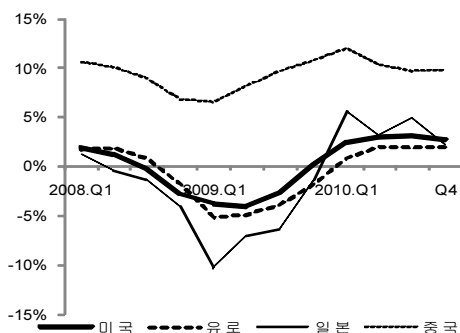
1. 세계경제

2010년 4/4분기 세계경제는 신흥개도국의 성장세와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나 신흥개도국의 물가상승,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원자재가격 상승 등은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임.

■ 4/4분기 세계경제는 신흥개도국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반면 유럽과 일본은 성장 모멘텀이 부재하여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 경기회복 격차가 지속되는 모습임.

- 선진국경제는 미국이 경기회복세의 모멘텀을 확보한 반면, 일본은 회복세가 정체되고 유로지역도 부진이 지속됨으로써 경기회복의 차별화가 나타남.
- 신흥개도국은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경기가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세가 다시 강화되었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불안 요인으로 대두됨.
- 신흥개도국의 경기선행지수는 둔화세가 빠르게 축소된 반면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는 둔화폭이 커짐에 따라 격차는 더욱 확대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그림 2〉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자료 : 미국상무성, 유로통계청, 일본내각부,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OECD

■ 국제유가와 기타 원자재가격은 북아프리카 정정불안 이전에는 주로 원자재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하였으며 연초 이후에는 원유생산 중단 등 공급 차질로 인해 급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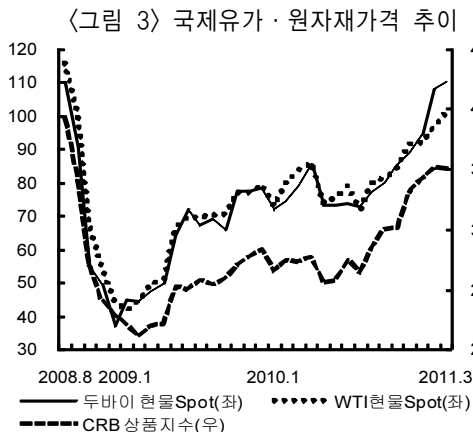
○ WTI 국제유가는 4/4분기 중 신흥개도국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전분기말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연초부터는 북아프리카의 공급차질로 인해 3월 중순 현재 109.9달러까지 상승하여 연말대비 24.1% 급등함.

○ 농산물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기상악화로 인한 공급차질,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상승세를 시현하였고, 비철금속 가격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일본 지진피해지역 복구로 인한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유지함으로써 CRB선물지수¹⁾는 12월말 332.8에서 3월 중순 351.2까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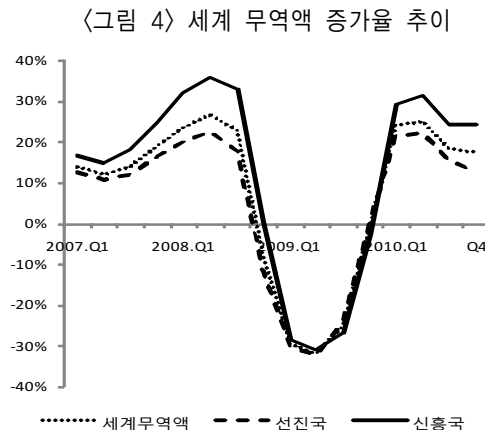
■ 세계무역액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신흥개도국의 무역액 둔화폭 축소에 힘입어 둔화세가 빠르게 진정됨.

○ 세계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3/4분기에 빠르게 둔화되었으나 4/4분기에는 신흥개도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17.1% 증가하여 둔화세가 안정되는 모습임.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무역액은 4/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각각 14.7%, 22.4% 증가함에 따라 성장세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됨.



자료 : bloomberg



자료 : IMF

1)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22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가. 미국경제

2010년 4/4분기 미국경제는 대내적으로는 양적완화와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소비가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마련되었으나 주택경기 침체, 고용여건 개선 부진은 여전히 경기회복의 위협요인으로 상존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4/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의 호조와 수출 증가로 인해 2분기 연속 2% 후반대의 성장을 시현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민간소비는 개인소득의 증가, 주식가치 상승, 민간 신용의 확대에 힘입어 경차와 같은 내구재소비와 함께 사치재에 대한 지출도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4.1% 증가하는 호조세를 나타냄.
 - 설비투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주택투자는 상업용부동산 건설투자 확대 기미와 기저효과로 인해 전분기대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됨.
 -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와 달러화 약세로 인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9.6% 증가한 반면, 수입은 자동차·제조약 등 소비재 수입의 감소로 12.4% 하락하여 순수출은 증가함.
 - 정부지출은 주·지방정부의 재정 불안으로 인한 지출 감소와 연방정부의 방위재 지출 감소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됨.

- 미 연준²⁾은 미국경제가 주택가격 하락, 국제유가 급등의 마이너스 요인이 대두되고 있으나 주가 상승, 소비 증가, 수출 증가, 노동·금융 시장 개선 등의 플러스 요인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2011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 11월의 기존 전망치 상·하한이 각각 0.4%p, 0.3%p 상향 조정되어 3.4~3.9%로 전망됨.

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11.2),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표 1〉 미국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분기대비 연율, %)

구 분	2009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2.6	-4.9	-0.7	1.6	5.0	3.7	1.7	2.6	2.8
민간소비	-1.2	-0.5	-1.6	2.0	0.9	1.9	2.2	2.4	4.1
설비투자	-17.1	-35.2	-7.5	-1.7	-1.4	7.8	17.2	10.0	5.3
주택투자	-22.9	-36.2	-19.7	10.6	-0.8	-12.3	25.7	-27.3	2.8
수출	-9.5	-27.8	-1.07	12.2	24.4	11.4	9.1	6.8	9.6
수입	-13.8	-35.3	-10.6	21.9	4.9	11.2	33.5	16.8	-12.4
정부지출	1.6	-3.0	6.1	1.6	-1.4	-1.6	3.9	3.9	-1.5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1.2.25)

〈고용과 물가〉

■ 4/4분기 중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실물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최근에는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임.

- 4/4분기 중 실업률은 전분기와 같은 9.6%를 기록하고 포괄적 실업률(U-6)³⁾은 16.9%로 증가하였지만, 1월에는 실업률과 포괄적 실업률(U-6)이 각각 9.0%와 16.1%로 감소함.
- 한편 비농업취업자는 4/4분기에 민간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반전되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전분기대비 7.4% 감소함으로써 고용여건 개선의 조짐이 나타남.
- FOMC는 노동의 공급 불일치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겠으나 경기회복세로 인해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세를 시현하여 2011년에는 8.8~9.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3) 구직포기자·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를 반영함.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0	2010										
	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실업률	9.6	9.9	9.7	9.5	9.5	9.6	9.6	9.7	9.8	9.4	9.0	
(u-6) ¹⁾	16.8	17.1	16.6	16.5	16.5	16.7	17.1	17.0	17.0	16.7	16.1	
비농업취업자증감 ¹⁾	940	277	458	-192	-49	-59	-29	171	93	152	63	
소비자물가 ²⁾	1.6	2.2	2.0	1.1	1.2	1.1	1.1	1.2	1.1	1.5	1.6	
(근원 소비자물가)	1.0	0.9	0.9	0.9	0.9	0.9	0.8	0.6	0.8	0.8	1.0	
생산자물가 ²⁾	4.2	5.4	5.1	2.7	4.1	3.3	3.9	4.3	3.5	4.0	3.6	
소매판매 ³⁾	6.6	9.3	6.4	5.4	5.3	3.9	7.6	6.0	8.9	7.6	7.4	
재고/도매판매비율 ⁴⁾	1.16	1.13	1.14	1.15	1.16	1.17	1.18	1.17	1.15	1.15	1.13	
주택착공호수 ⁵⁾	6.6	42.3	6.9	-7.5	-6.3	5.0	2.6	0.8	-7.0	-9.4	1.0	
주택가격지수 ⁶⁾	-3.0	-1.4	-1.3	-2.6	-3.3	-2.7	-3.8	-4.0	-4.6	-3.3	-	
소비자신뢰지수 ⁷⁾	54.5	57.7	62.7	54.3	51.0	53.2	48.5	49.9	57.8	63.4	65.6	
경기선행지수 ⁸⁾	109.8	109.5	110.0	109.8	110.0	109.1	109.9	110.1	111.3	112.4	112.5	
산업생산지수 ⁹⁾	5.7	5.8	8.0	8.3	7.7	6.7	6.2	5.7	5.5	6.4	5.7	
산업생산가동률	6.1	6.2	8.5	8.9	8.3	7.2	6.7	6.2	5.8	6.6	5.6	
재고/출하비율 ¹⁰⁾	1.26	1.24	1.26	1.26	1.26	1.27	1.27	1.28	1.27	1.26	1.25	
ISM제조업PMI	57.3	59.6	57.8	55.3	55.1	55.2	55.3	56.9	58.2	58.5	60.8	

주 : 1) 증가분 천 명, 전월대비 2) 1982-84=100, 전년동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4) 제조업자 직거래 제외

5) 전년동기대비, SAAR 6)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1991.1=100, 계절조정

7) 1985=100, 8) 2004=100 9) 계절조정, 2007=100 10) 제조업부문, 계절조정 11)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등을 포함한 실업률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 증가로 인해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양적완화의 효과가 커지면서 증가세가 가속됨.

○ 4/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관련 제품과 식음료 가격의 증가로 인해 1.3% 증가하였으며 1월에는 양적완화로 인한 생산갭 축소의 영향으로 근원소비자물가가 1.0% 증가하면서 소비자물가가 1.6% 증가함.

○ 4/4분기 중 생산자물가는 근원생산자물가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1월에는 에너지가격 상승세 둔화로 소폭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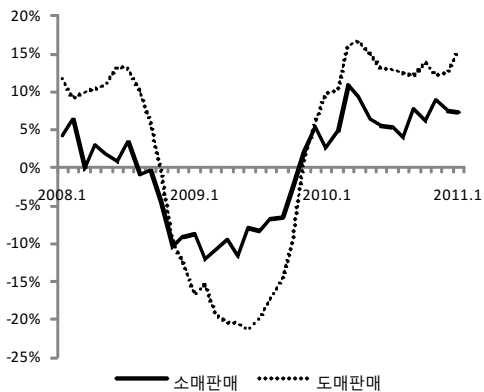
○ FOMC는 2011년 근원소비자물가의 상·하한을 각각 -0.3%p, 0.1%p 조정하여 1.0~1.3%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소비자물가는 양적완화 조치, 에너지·원자재 가격의 상승, 수입물가 상승, 경기회복세 강화로 인해 1.3~1.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내수부문〉

■ 양적완화 효과로 인해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소비자체감지수 및 경기선행지수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에 더해 주택거래가 증가함으로써 내수부분이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시현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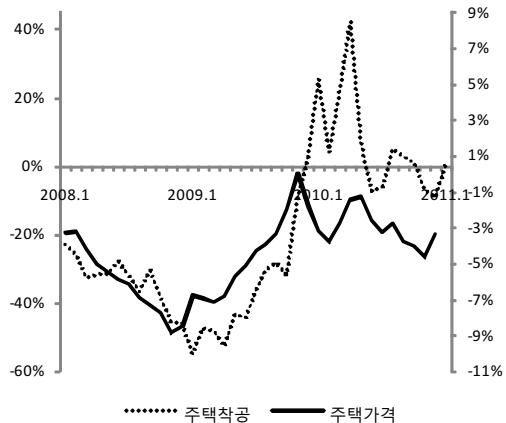
- 소매판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4분기의 5.6%에서 4/4분기에 7.5%로 증가하였고 1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함.
- 주택시장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신규 및 기존 주택거래가 증가하였으나 공급물량 과잉으로 주택착공이 하락세를 시현하는 가운데 주택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침체 국면을 지속함.

〈그림 5〉 도소매 판매 추이



주 :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자료 : U.S. Census Bureau

〈그림 6〉 주택시장 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U.S. Census Bureau

- 소비자체감경기와 경기선행지수는 양적완화에 따른 완만한 경기회복, 고용여건 개선 조짐에 힘입어 빠른 증가세를 시현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10월에 경기회복 기준인 50 이하에 머물렀으나 11~12월에는 빠른 증가세를 보여 60대 초반까지 상승한 후 1월에는 65.6까지 상승하였으며 경기선행지수는 4/4분기에 111.3을 기록하고 1월에는 112.5까지 상승함.

〈생산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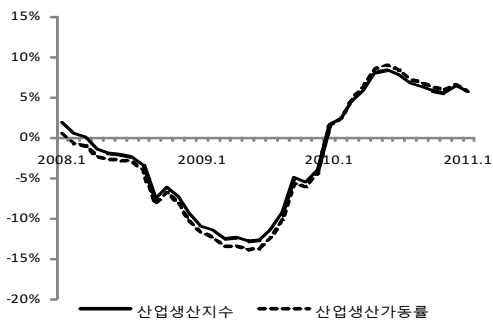
■ 산업생산지수 증가율과 산업생산가동률이 둔화됨에 따라 생산부문은 3/4분기부터 나타난 둔화세가 지속되는 모습임.

- 산업생산지수 증가율과 가동율은 3/4분기에 6.9%, 7.4%를 기록하였으나 4/4분기에는 전력·수도 부문의 생산 부진으로 5.9%, 6.2%로 둔화되었으며 1월에는 5.7%, 5.6%로 둔화세가 커짐.

■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부문 선행지표격인 제조업 재고/출하율이 둔화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가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산업생산의 반등이 시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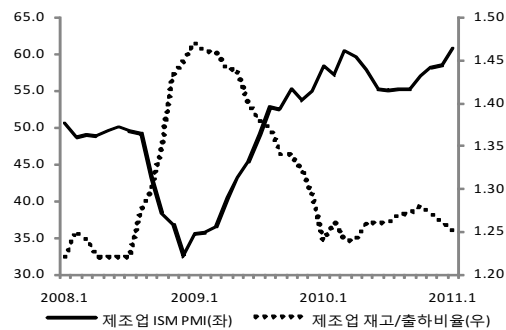
- 재고/출하 비율은 1월에 1.25%로 둔화되었으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주문, 고용, 출하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면서 4/4분기와 1월에 각각 57.9, 60.8로 증가함.

〈그림 7〉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U.S. Census Bureau

〈그림 8〉 제조업 ISM PMI와 재고출하율



자료 : U.S. Census Bureau

나. 유로경제

2010년 4/4분기 중 유로경제는 일부 국가들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및 재고조정 효과의 소진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상존으로 불안한 모습이 지속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4/4분기 실질 GDP는 순수출 둔화, 민간소비의 미약한 회복세, 기상악화로 인한 생산저하, 완만한 투자로 인해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지 못함.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조짐, 가계대출 증가, 가계 저축률 감소 등의 플러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조정,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소비자채감경기 부진 등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인해 미약한 성장세를 보임.
 - 고정투자는 주택경기 침체와 기상악화로 인해 주택투자가 부진했으나 수출관련 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 수출은 신흥개도국 및 미국의 경기회복세와 유로화의 약보합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하였으나 수입 역시 10.4% 증가함으로써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소폭 둔화됨.

- 서유럽국가 중 독일·폴란드는 양호한 성장을 시현한 반면 기타 서유럽국가들은 회복세가 둔화되었으며 주변부 국가들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유로지역내 불균형이 지속됨.
 - 4/4분기 중 독일은 기상악화로 인한 건설부문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출이 버팀목이 되면서 4.0%의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한 반면, 프랑스(1.5%)는 경기부양효과 소진으로 소비가 둔화되었고, 영국(1.5%)은 기상악화로 투자·유통·서비스부문이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세가 지속됨.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0.6%)은 소비·투자의 위축이 대내 수출 증가로 부분 상쇄되었으나 여전히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시현하였고, 그리스(-6.6%)와 아일랜드(-0.7%)는 모든 부문이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함.

■ 유로위원회⁴⁾는 경기체감지수들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과 재정긴축으로 경기부양 노력 축소가 전망되고, 독일의 수출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로경제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2011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1월의 전망치보다 0.1%p 감소한 1.6%로 전망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0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EA16 GDP	1.7	-5.3	-5.5	-3.8	-1.8	0.8	2.0	1.9	2.0
민간소비	0.8	-1.8	-1.4	-1.1	-0.2	0.4	0.6	0.9	1.1
고정자본	-0.8	-11.7	-13.3	-11.3	-9.1	-4.6	-0.3	0.7	1.2
정부지출	0.8	2.9	2.6	2.6	1.6	1.1	0.6	0.6	0.7
수출	10.6	-16.1	-16.8	-13.4	-5.2	6.5	12.4	11.9	11.7
수입	8.7	-13.0	-14.6	-12.1	-7.1	3.3	10.7	10.3	10.4
독일 GDP	3.6	-6.3	-6.8	-4.4	-1.3	2.3	4.3	3.9	4.0
민간소비	0.4	-0.2	0.3	-0.6	-0.3	-0.3	-0.6	1.1	1.4
고정자본	5.8	-11.2	-12.5	-9.4	-8.3	-0.3	7.9	7.6	7.9
수출	14.0	-16.7	-19.9	-15.3	-4.7	7.3	17.4	15.7	15.9
수입	12.6	-8.0	-13.0	-9.9	-6.7	3.2	17.1	13.6	16.4
영국 GDP	1.3	-6.0	-6.5	-4.3	-2.7	-0.3	1.5	2.5	1.5
민간소비	0.9	-3.9	-4.2	-3.6	-1.0	0.2	1.4	1.5	0.4
고정자본	3.2	-12.7	-20.4	-14.8	-14.0	-2.7	3.0	6.7	5.6
수출	5.8	-11.5	-13.3	-12.4	-5.0	1.9	7.0	7.8	6.4
수입	8.5	-14.7	-15.9	-13.7	-4.8	5.2	9.7	10.2	9.0
프랑스 GDP	1.5	-3.9	-3.1	-2.7	-0.5	1.2	1.6	1.7	1.5
민간소비	1.6	0.0	0.4	0.7	1.6	1.5	1.6	1.8	1.7
고정자본	-2.2	-9.2	-9.5	-8.6	-7.2	-5.6	-3.7	-0.7	1.3
수출	9.9	-15.8	-14.0	-12.6	-5.9	6.5	10.2	11.6	11.4
수입	7.7	-10.6	-12.5	-12.6	-6.5	1.0	8.3	13.0	8.5

주 : Euro Area는 16개 회원국으로 구성

자료 : 유럽중앙은행, 유로통계청, 독일통계청, 영국통계청, 프랑스통계청

4)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2011,2)

〈표 4〉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2010	2010										2011
	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EA16												
ESI ¹⁾	100.8	100.1	98.3	99.0	101.1	102.2	103.4	104.3	105.6	106.9	106.8	
실업률 ²⁾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1	10.0	10.0	9.9	
소비자물가 ³⁾	1.6	1.6	1.7	1.5	1.7	1.6	1.9	1.9	1.9	2.2	2.3	
소매판매지수 ⁴⁾	101.4	100.9	101.3	101.6	101.8	101.7	101.5	101.5	101.4	101.1	101.5	
소비자신뢰지수 ⁵⁾	-14.0	-15.0	-17.8	-17.3	-14.0	-11.4	-11.0	-10.9	-9.4	-11.0	-11.2	
제조업기대지수 ⁵⁾	11.3	9.0	9.8	9.3	9.4	10.0	11.7	14.6	15.2	18.7	18.9	
산업생산 ⁶⁾	7.2	9.1	9.9	8.3	7.4	8.5	5.6	7.2	7.9	8.8	6.6	
산업기대지수 ⁵⁾	-4.6	-7.3	-6.4	-5.6	-4.0	-2.9	-1.7	0.6	1.8	5.1	6.1	
독일												
ESI ¹⁾	107.2	104.4	104.8	105.1	109.3	110.4	112.4	112.7	115.5	117.3	115.5	
실업률 ²⁾	6.9	7.0	6.9	6.8	6.7	6.7	6.6	6.6	6.6	6.6	6.5	
소비자물가 ³⁾	1.2	1.0	1.2	0.8	1.2	1.0	1.3	1.3	1.6	1.9	2.0	
소매판매지수 ⁴⁾	97.3	96.1	97.9	98.0	98.5	98.2	97.8	97.9	96.6	96.9	98.3	
산업생산 ⁶⁾	10.8	14.4	13.3	11.2	11.8	12.0	8.5	12.7	11.5	13.2	11.1	
영국												
ESI ¹⁾	100.7	101.3	102.2	99.5	101.6	102.7	100.2	99.7	100.6	101.7	98.8	
실업률 ²⁾	7.8	7.8	7.7	7.8	7.7	7.7	7.8	7.8	7.8	7.9	-	
소비자물가 ³⁾	3.3	3.7	3.4	3.2	3.1	3.1	3.1	3.2	3.3	3.7	4.0	
소매판매지수 ⁴⁾	112.0	111.0	111.9	112.7	113.7	113.2	112.9	113.6	114.1	112.1	114.0	
산업생산 ⁶⁾	2.6	1.3	3.3	2.7	2.6	3.7	4.5	3.2	2.6	4.7	4.9	
프랑스												
ESI ¹⁾	101.4	100.8	98.7	97.7	99.6	102.6	102.8	105.1	104.3	107.6	108.9	
실업률 ²⁾	9.8	9.8	9.8	9.8	9.7	9.7	9.7	9.7	9.7	9.7	9.6	
소비자물가 ³⁾	1.7	1.9	1.9	1.7	1.9	1.6	1.8	1.8	1.8	2.0	2.0	
소매판매지수 ⁴⁾	112.3	111.3	112.0	110.8	113.3	112.9	113.5	113.1	114.2	114.0	114.1	
산업생산 ⁶⁾	5.9	8.3	9.1	5.0	6.1	3.2	4.2	5.1	5.8	7.8	5.3	

주 :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전년동기 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5)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2011.3.11);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2011.3)

〈고용과 물가〉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4/4분기에는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함.

- 4/4분기 유로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10.0%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월에는 9.9%로 하락함.
- 4/4분기 실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7백만 명이 감소하고, 임금은 0.6%p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는 기상악화로 감소한 건설(-3.1%)부문을 제외하고 금융서비스(1.7%), 무역·교통(0.2%) 부문에서 개선되어 0.3% 증가함.
- 지역적으로는 독일(6.6%), 덴마크(6.6%), 네덜란드(4.4%), 핀란드(8.0%) 등 북부유럽의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한 반면 영국(7.8%), 프랑스(9.7%), 이탈리아(8.6%)의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거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뿐만 아니라 식료품·주거·교통 등 주요 부문 대부분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상승폭이 커짐.

- 4/4분기 소비자물가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주거·교통·에너지 부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2.0%를 기록하였고 1월에는 2.3%로 상승세가 가속됨.
- 지역별로는 서유럽권의 독일(1.6%), 프랑스(1.9%), 영국(3.4%), 이탈리아(2.0%), 네덜란드(1.5%)의 소비자물가가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아일랜드는 둔화 또는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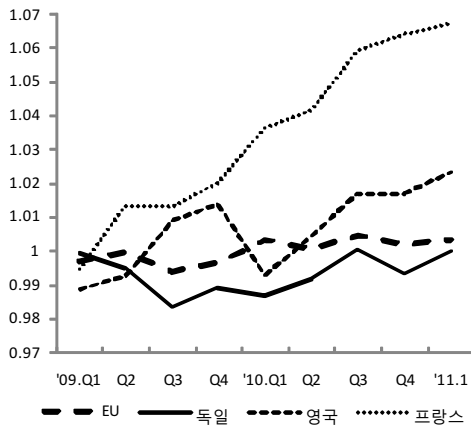
〈내수부문〉

■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4/4분기 중 다소 둔화되었으나 최근에는 북부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실업률 개선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으며, 소비자 체감경기는 개선세를 지속함.

- 유로지역의 소매판매지수는 4/4분기 중 101.3으로 전분기보다는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상승세가 유지되었고 1월에는 101.5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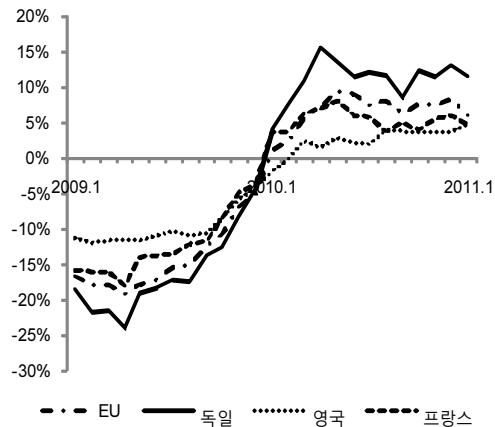
- 소비자신뢰지수는 4/4분기에 -10.4를 기록하여 10년 평균 수준인 -12.5를 상회함에 따라 체감경기는 점차 회복됨.
- 지역별로는 독일·영국의 소매판매가 4/4분기에 다소 둔화된 후 1월에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프랑스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함.

〈그림 9〉 소매판매지수 추이



주 : 2005=100, 계절조정을 2009.Q1=1로 환산

〈그림 10〉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주 :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생산부문〉

- 생산체감지수와 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산업생산 증가폭이 커지면서 산업생산이 개선되는 모습이나 최근에는 기상악화로 둔화세를 시현함.
 - 유로지역의 4/4분기 산업생산은 자본재·에너지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함으로써 반등세를 시현했으나 1월에는 6.0%로 증가세가 둔화됨.
 - 산업기대지수는 3/4분기 -2.8에서 4/4분기 2.5로 플러스 전환되고 1월에는 6.1로 크게 상승함.
 - 지역별로는 4/4분기 중 독일의 산업생산은 고용시장 개선, 수출호조에 영향을 받아 전분기대비 증가했고,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수출 증가로 인해 증가했으나, 영국은 기상악화로 건설업이 위축되면서 소폭 둔화됨.

- 제조업생산의 선행지표인 제조업기대지수가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생산 부문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제조업기대지수는 4/4분기 중 16.2를 기록함으로써 전분기의 10.4보다 5.8p 증가하는 빠른 개선세를 시현함.

다. 일본경제

2010년 4/4분기 일본경제는 경기부양 효과 소진, 소비 위축, 수출 기여도 축소로 인해 경기회복세는 다시 정체되는 모습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4/4분기 일본의 실질 GDP는 기업수익 개선, 주택 건설 증가에 힘입은 투자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고, 전분기대비 0.3% 감소하는 정체된 모습임.
 - 민간소비는 근로자 실질소득의 증가세 정체, 소비자 체감경기 정체, 에코카 보조금 종료로 인한 지출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하는 부진한 모습임.
 - 주택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6.3%, 5.5% 증가했으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큰 폭의 성장세로 볼 수 없음.
 - 수출은 아시아지역의 생산 둔화에 영향을 받아 13.2% 증가하는 데 그치고 수입은 9.9% 증가함으로써 순수출은 전분기대비 축소됨.
 - 정부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지만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공공투자는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해 13% 감소함으로써 하락세가 가속됨.
- 일본 대내외 연구기관⁵⁾들은 내수경기 회복을 견인할 만한 요인도 부족하고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인상 또는 재정지출 축소를 선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함.
 - 일본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아직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경기불안요인으로 대두됨.
 - 중국의 수입은 증가하겠으나 엔화의 강세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에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5) Daiwa Institute of Research 등을 포함한 7개 대내 연구기관과 JP Morgan 등 3개 대외 금융기관의 2월 말 현재 전망치 평균임.

〈표 5〉 일본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0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3.9	-10.3	-7.0	-6.3	-1.5	5.6	3.2	4.9	2.2
민간소비	1.9	-4.7	-2.0	-1.4	0.4	3.0	1.4	5.5	0.5
설비투자	2.5	-16.7	-19.6	-18.5	-11.5	-5.0	3.0	6.6	5.5
주택투자	-5.8	0.1	-9.7	-20.1	-24.2	-17.7	-10.6	-1.3	6.3
정부소비	2.3	0.8	2.9	4.2	4.1	2.6	2.9	2.1	1.5
공공투자	-2.8	-2.2	16.6	14.7	15.8	10.6	-4.3	-4.6	-13.0
수출	24.9	-36.6	-29.4	-22.8	-4.8	34.6	30.4	21.3	13.2
수입	9.9	-15.8	-17.1	-13.6	-14.9	3.7	14.3	11.5	9.9

자료 : 일본 내각부(2011.3)

〈표 6〉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2010	2010										2011
	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 ¹⁾	0.0	-1.2	-0.9	-0.7	-0.9	-0.9	-0.6	0.2	0.1	0.0	0.0	0.0
(근원소비자물가)	-1.0	-1.6	-1.6	-1.5	-1.5	-1.5	-1.5	-0.8	-0.9	-0.7	-0.6	-0.6
실업률 ²⁾	5.1	5.1	5.2	5.3	5.2	5.1	5.0	5.1	5.1	4.9	4.9	4.9
소매판매액 ¹⁾	-2.3	4.9	2.9	3.3	3.8	4.3	1.4	-0.2	1.5	-2.1	0.1	0.1
소비자신뢰지수 ³⁾	41.4	42.0	42.8	43.5	43.3	42.4	41.2	40.9	40.4	40.1	41.1	41.1
주택착공호수 ⁴⁾	81	79	76	77	79	82	84	82	85	86	85	85
민간기계수주액 ⁸⁾	-23.7	9.4	4.3	-2.2	15.9	24.1	4.2	7.0	11.6	-1.6	5.9	5.9
수출 ¹⁾	24.4	40.4	32.1	27.7	23.5	15.5	14.3	7.8	9.1	12.9	1.4	1.4
수입 ¹⁾	17.7	24.3	33.6	26.2	15.8	17.9	10.0	8.8	14.2	10.6	12.4	12.4
광공업생산 ⁵⁾	15.9	25.9	20.4	17.3	14.2	15.1	11.5	4.3	5.8	4.9	3.5	3.5
- 가동율 ⁶⁾	88.9	85.3	84.0	92.8	93.7	84.5	95.3	89.1	91.0	89.3	84.7	84.7
- 재고/출하율 ⁷⁾	108.0	103.5	108.5	106.7	108.2	107.4	108.8	117.9	108.1	108.5	108.3	108.3

주 : 1)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 3) 기준치=50, 4) 연간 환산치, 만호, 5) 계절조정, 2005=100, 전년동기대비,

6) 2005=100, 7) 계절조정, 8)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년동기대비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고용과 물가〉

■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실업자와 비자발적 실업자 수의 감소로 실업률은 개선 기미를 보임.

- 취업자 수는 전분기에 비해 개선되지 못했으나 신규 취업제공이 증가하고 실업 및 비자발적 실업이 감소함에 따라 실업률은 4/4분기에 5.0%로 0.1%p 감소하고 1월에는 4.9%를 유지함.
- 그러나 고용증가의 선행지표인 시간외 작업시간과 고정임금이 각각 하락세로 반전됨에 따라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전망은 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의 상승과 기타 부문의 하락세 둔화로 인해 상승세로 반전되는 모습임.

- 소비자물가는 4/4분기 중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 전환과 교양·오락, 광열·수도 가격의 하락세 둔화로 인해 0.1% 상승세로 반전하였고, 1월에는 근원소비자물가의 하락세가 둔화된 반면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력을 커짐.

〈내수부문〉

■ 자동차판매 급감으로 인한 소매판매 하락, 소비자신뢰지수의 하락세 유지로 소비부문은 실물·체감 경기 모두 하락하는 모습임.

- 4/4분기 중 소매판매는 식·음료품과 기계·장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문의 판매가 24.9% 급락함으로써 0.3% 하락세로 반전됨.
-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 42.3에서 4/4분기 40.5로 하락함으로써 소비자의 체감경기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기계수주는 제조업의 기계수주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주택착공은 증가함으로써 설비·주택 등 투자부문은 혼조세가 나타남.

- 선박·전력을 제외한 4/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9.0%p 감소한 5.7%를 기록하였으며 1월에도 둔화세가 유지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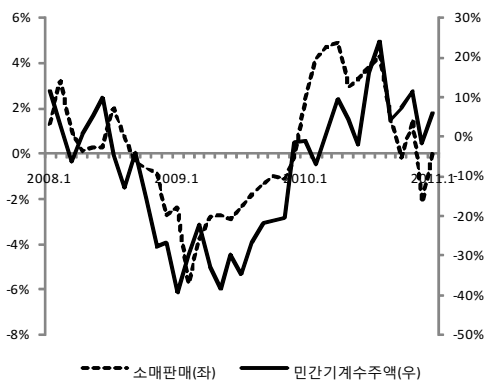
- 연간화 주택착공호수는 4/4분기 중 84만호를 기록함으로써 전분기대비 2만호가 증가하였으며 1월에도 85만호로 소폭 증가함.

〈생산부문〉

■ 광공업생산과 가동률은 자동차·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둔화세가 지속되고 재고도 증가하여 생산부문의 개선세가 불투명한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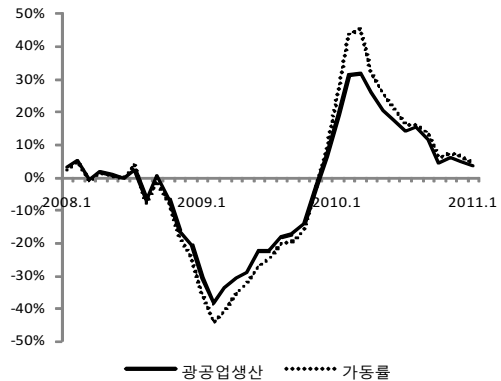
- 4/4분기 광공업생산은 5.0% 증가에 그쳐 전분기대비 둔화폭이 증가하고 1월에는 3.5% 증가함으로써 둔화세가 가속되었으며, 광공업가동률 역시 4/4분기에 89.8%로 둔화되고 1월에 84.7%로 둔화폭이 확대됨.
- 엔화강세와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중단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하고 화학부문도 급감세를 시현한 것이 주요 원인임.
- 출하대비 재고율은 3/4분기에 나타난 증가세가 4/4분기에도 유지됨으로써 생산부문 위축 가능성이 커짐.

〈그림 11〉 소매판매 및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그림 12〉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 일본 내각부

라. 중국경제

2010년 4/4분기 중국경제는 물가상승을 우려한 긴축기조 확대, 소비·투자 균형 을 위한 정부 투자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부내륙개발 투자 증가, 소득수준 개선에 힘입은 소비 증가로 인해 내수가 확대되면서 9.8%의 고성장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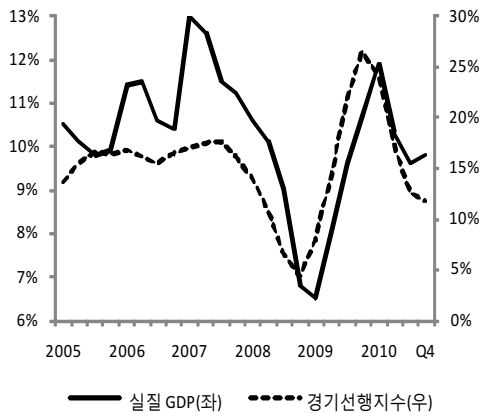
〈최근 동향 및 전망〉

- 실질 GDP는 경기부양책 효과의 소진과 통화정책의 정상화 기조로 2010년 초반 이후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었으나 4/4분기에는 내수의 증가에 힘입어 9.8% 성장세로 반등함.
 - 소비는 고용과 소득수준 개선, 마이너스 실질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투자 역시 민간투자 및 인프라 투자 증가, 서부내륙 개발로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 내수경기가 확대되는 모습임.
 - 반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은 둔화되고 최종재 수입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이 크게 둔화되면서 실질 GDP 기여도는 전분기대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World Bank⁶⁾는 향후 긴축기조 강화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겠지만 중국경제는 고성장 국면을 지속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함.
 - 수출 및 투자 중심의 경제 구조를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긴축정책은 경기과열을 식혀주고 생산과잉으로 지목되는 산업이 구조조정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경제성장률은 9%대로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는 8.4%로 확대되고 순수출의 기여도는 0.6%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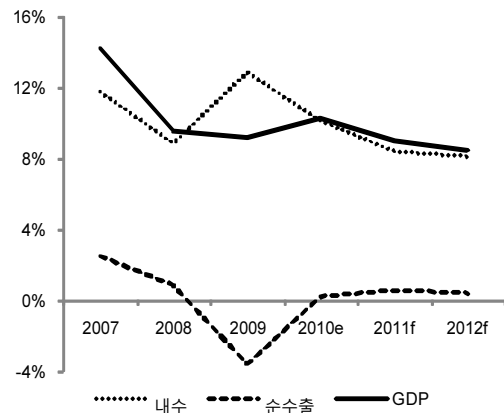
6) World Bank(2011.3), 'Securing the present, shaping the future'

〈그림 13〉 실질 GDP와 경기선행지수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OECD

〈그림 14〉 실질 GDP 기여율



자료 : World Bank

〈표 7〉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0	2009		2010							
	연간	3/4	4/4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실질 GDP	10.3	9.6	10.7	11.9	10.3	9.6	9.8	-	-	-	-
고정자산투자 ¹⁾	24.5	33.3	30.5	26.4	25.5	24.5	24.5	24.4	24.9	24.5	-
소매판매	18.4	15.4	16.5	18.4	18.5	18.4	18.8	18.6	18.7	19.1	-
수출	32.3	-20.5	0.9	30.3	41.0	32.5	25.2	22.9	34.9	17.9	37.7
수입	14.6	-11.8	25.4	65.4	44.0	27.3	29.5	25.3	37.7	25.6	51.0
산업생산	14.5	12.3	17.9	19.8	16.0	13.5	13.3	13.1	13.3	13.5	-
구매자관리지수	53.8	53.9	55.7	54.3	53.9	52.2	54.6	54.7	55.2	53.9	52.9
소비자물가	3.3	-1.3	0.7	2.2	2.9	3.5	4.7	4.4	5.1	4.6	4.9
생산자물가	5.5	-7.7	-2.1	5.2	6.8	4.5	5.7	5.0	6.1	5.9	6.6
주택거래액 ²⁾	18.3	73.4	75.5	57.7	25.4	15.9	18.3	17.3	17.5	18.3	-

주 :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2) 전년동기 누계 대비, 70개 주요도시 대상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

-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과 주거비가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급등세를 시현하였고 생산자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대폭 상승함.
 -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주거비가 전분기대비 1.1%p 상승하여 5.6%를 기록하고 식료품가격이 3.1%p 급등하여 10.5%를 기록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4.7% 급등함.
 - 1월에는 주거비가 6.8% 상승하고 식료품가격도 10%대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9%로 가속됨.
 - 생산자물가는 물류여건 해소로 3/4분기에 크게 둔화되었으나 4/4분기에는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다시 5%대 후반으로 상승함.

〈내수부문〉

- 소매판매는 소득 증가에 힘입어 18% 후반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였고, 고정자산투자는 20% 중반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 4/4분기 소매판매는 18.8% 증가함으로써 3/4분기 보다 소폭 증가하는 모습임.
 -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와 동일한 24.5%의 성장세를 시현하는 가운데 지속성장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제13차 경제개발계획 목표에 따라 연구리서치·교육·사회보장·공공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 주택거래는 모기지 보증금을 60%로 인상하는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30%대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으며 주택가격수준도 상승세를 지속함으로써 주택경기는 여전히 과열된 모습을 보임.
 - 1~4/4분기 중 70개 주요 도시 주택거래는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함으로써 1~3/4분기의 33.8% 증가보다 소폭 둔화하였으나 주택거래액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1~4/4분기 중 18.3% 증가함으로써 1~3/4분기의 15.9%보다 증가함.

〈생산부문〉

- 산업생산은 가공무역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임.
 - 4/4분기 산업생산은 13.3% 증가함으로써 여전히 두 자리 수의 성장을 유지했으나 2/4분기부터 나타난 성장세 둔화가 유지되고 있음.
- 4/4분기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⁷⁾)는 상승세로 반전함에 따라 생산부문 체감경기가 다시 회복될 조짐을 보임.
 - PMI는 4/4분기 중 54.6을 기록하면서 전분기보다 2.4p가 상승했으나 1월에는 연휴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52.9로 소폭 둔화됨.
 - PMI를 구성하는 생산, 수출주문, 신규주문,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모든 부문에서 50을 상회함에 따라 생산부문의 확대를 시사함.

7)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25%), 신규주문(30%), 취업(20%), 납품업체 배송(15%), 재고(10%)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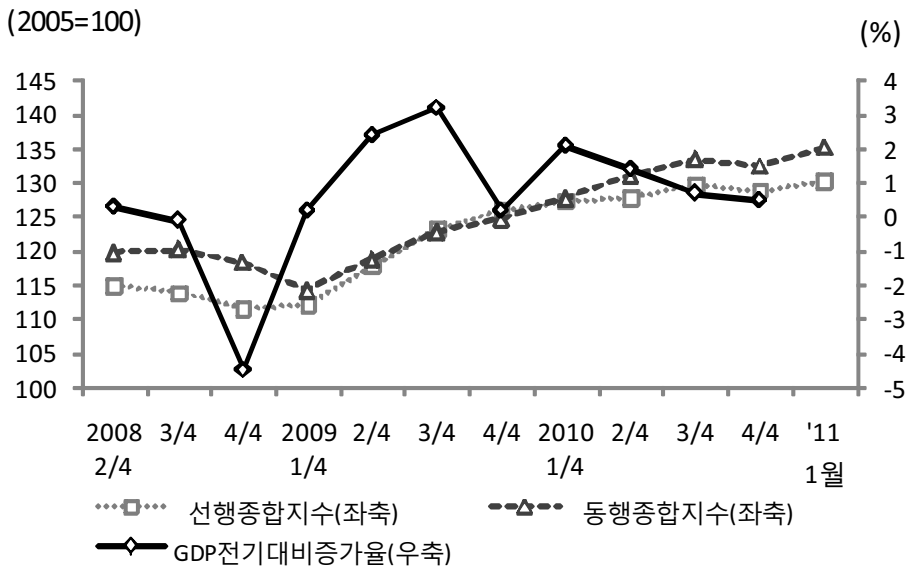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0년 4/4분기 실질GDP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4.8% 성장하였으며,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완화됨.

- 2010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8% 성장하였으며, 2010년 연간 성장률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6.1%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고용시장 안정성 확대로 3%대의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성장률은 소폭 둔화된 3.2%를 나타냄.

〈그림 15〉 GDP와 경기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설비투자는 크게 증가했던 기계류 투자가 감소하고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성장률이 10%대로 하락한 16.0%로 나타났으며, 건설투자는 민간주택투자 위축과 토목건설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4.7% 감소함.
- 4/4분기 재화수출은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14.9% 증가하며 실질 GDP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수입은 14.6% 증가하였으나 4분기 만에 수출 증가율을 하회함.
- 2010년 연간 실질GDP 성장률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각각 24.5%, 14.1%로 증가하면서 2002년 7.2% 성장한 후 가장 높은 6.1%의 성장률을 기록함.

〈표 8〉 실질 GDP와 수요 부문별 증가율¹⁾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CY2009			C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1 (3.2)	6 (0.2)	0.2	8.1 (2.1)	7.2 (1.4)	4.4 (0.7)	4.8 (0.5)	6.1
- 민간소비	0.8	5.6	0.2	6.3	3.7	3.3	3.2	4.1
- 설비투자	-7.0	13.3	-9.1	29.9	30.2	24.3	16.0	24.5
- 건설투자	4.4	5.0	4.4	2.3	-2.9	-2.3	-4.7	-2.3
- 재화수출 ³⁾	2.3	15.0	0.0	21.6	14.9	11.5	14.9	14.1
- 재화수입 ³⁾	-6.7	8.9	-7.9	21.8	22.1	16.1	14.6	17.2

주 :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 1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는 모두 2010년 4/4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만에 100을 상회하였고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플러스로 전환됨.

- 경기동행지수는 1월 말 135.1를 기록하면서 4/4분기 132.3에 비해 2.8p 상승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월 말대비 1.1p 상승한 100.9를 나타내면서 3개월 만에 100을 상회함.

- 1월 말 경기선행지수 또한 4/4분기에 비해 1.4p 상승한 130.2로 나타났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3개월 간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세로 전환됨.

■ 2011년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와 의복 등의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0.8% 증가함.

- 내구재 판매는 4/4분기 10.6% 증가하였으며, 1월에도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14.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의 준내구재 판매는 4/4분기 11.1% 성장한 후 1월에도 11.9%의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비내구재는 4/4분기 0.7% 감소한 후 1월 9.1%의 증가세로 전환됨.

〈표 9〉 소비 관련 지표의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월)대비, %)

구 분	CY2009			CY2010					C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p	연간 ^p	1월 ^p
소매판매	2.8	10.8	2.7	9.9	4.9	7.5	5.1	6.6	10.8
- 내구재	7.7	34.1	8.2	29.6	5.6	17.0	10.6	14.9	14.1
승용차	24.1	76.9	21.8	48.6	-2.1	12.0	0.1	11.1	7.7
- 준내구재	0.3	4.5	1.3	2.5	6.2	6.6	11.1	6.8	11.9
- 비내구재	1.8	4.0	1.2	3.2	3.3	3.0	-0.7	2.2	9.1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1월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제조용장비, 크레인 등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22.3% 증가함.

-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2010년 1/4~3/4분기 3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4/4분기와 1월은 각각 17.1%, 2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송장비는 1/4분기 1.2% 감소한데 이어 1월에도 1.3% 감소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3/4분기 0.2% 감소한 이후 4/4분기와 1월 각각 11.3%, 20.2%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은 기저효과로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은 반도체제조용장비, 차량용에어컨 등에서 증가함.

〈표 10〉 투자 관련 지표의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월)대비, %)

구 분	CY2009			CY2010					C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P	연간 ^P	1월 ^P
설비투자지수	-8.3	9.6	-9.4	30.0	29.5	29.3	13.5	25.1	22.3
- 기계류	-13.2	10.1	-12.6	32.5	37.1	37.4	17.1	30.5	28.0
- 운송장비	15.0	7.9	4.6	19.3	2.8	-0.1	-1.2	4.3	-1.3
- 기계수주	5.4	24.0	-10.3	10.3	24.7	-0.2	11.3	11.2	20.2
건설투자	4.4	5.0	4.4	2.3	-2.9	-2.3	-4.7	-2.3	
- 건설기성	-1.3	3.7	3.2	6.3	2.0	-0.4	3.3	2.7	-1.9
건축	-7.7	-0.4	-4.9	4.4	-1.9	-6.4	-1.4	-1.6	-4.0
토목	11.0	9.6	17.5	9.0	7.5	9.2	9.4	8.8	0.9
- 국내건설수주	8.1	14.2	5.0	-1.6	-6.7	-3.6	-40.2	-18.7	-33.9
건축	5.9	19.8	-14.2	8.3	55.3	-1.3	-46.4	-9.9	-46.8
토목	11.4	6.0	44.3	-12.4	-49.7	-7.0	-29.9	-29.5	-1.1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1월 건설기성은 건축이 감소하고 토목건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1.9% 감소하였으며,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발주 감소로 33.9% 감소함.

○ 건설기성 중 토목건설은 2010년 4/4분기까지 9.4%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1월에는 0.9%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주거용 건축공사 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해 온 건축은 1월에도 4.0% 감소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주택 및 사무실·점포 등의 발주가 감소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치산·치수, 도로·교량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3.9% 감소함.

- 2011년 1월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각각 36.9%, 46.3% 감소하였으며, 공종별로는 건축과 토목이 각각 46.8%, 1.1% 감소함.

〈대외거래〉

■ 2011년 1~2월(1.1~2.20) 수출은 30.5% 증가한 832억 달러, 수입은 24.5% 증가한 77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주력수출품목 중 석유제품(56.5%), 승용자동차(39.6%), 선박(68.9%), 기계류와 정밀기기(40.1%), 무선통신기기(21.4%), 반도체(16.3%) 등이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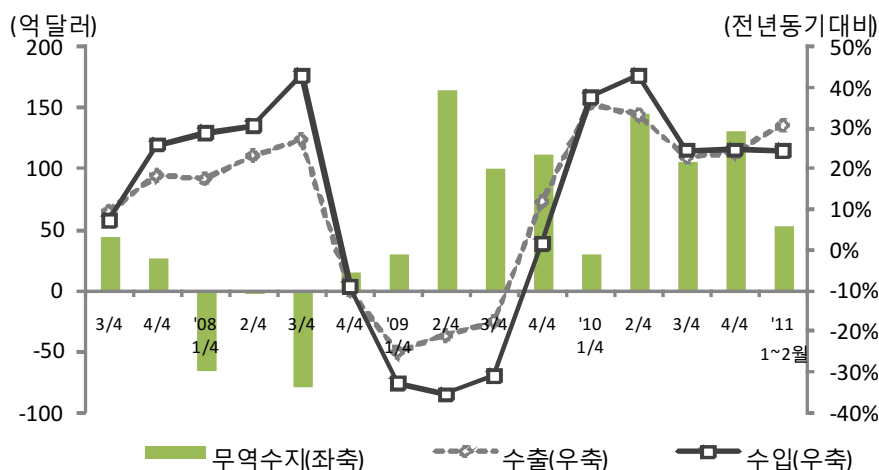
○ 수입은 원자재가 상승, 도입물량 확대 등으로 원유(32.4%)를 포함한 원자재(28.4%)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비재(29.1%) 또한 크게 증가한 반면 자본재는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증가율 둔화로 15.1% 증가에 그침.

■ 2011년 1~2월(1.1~2.20) 지역별 수출은 미국, 일본, 동남아, 중국, EU 등 주요국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중국, 중동, 동남아 등에서 크게 증가함.

○ 지역별 수출은 미국(23.1%), 일본(47.7%), 동남아(36.1%), 중국(17.9%), EU(46.6%), 중남미(35.3%) 등에서 증가함.

○ 지역별 수입은 중국(28.6%), 중동(29.2%), 동남아(26.3%)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미국(8.8%), 일본(14.6%), EU(18.7%) 등에서도 증가함.

〈그림 16〉 대외거래 지표 추이



자료 : 관세청(통관기준)

〈산업생산〉

■ 2011년 1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영상음향통신, 컴퓨터 등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13.7%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점에서 감소하였으나 운수, 도매·소매 등이 증가하면서 4.6% 증가함.

○ 2011년 1월 반도체 및 부품(24.4%), 기계장비(28.7%), 자동차(23.1%)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영상음향통신(-4.9%), 컴퓨터(-11.4%), 가죽 및 신발(-5.7%) 등은 감소함.

○ 2011년 1월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19.0%)가 큰 폭 감소하였으며, 숙박·음식점(-0.7%)도 감소를 나타낸 가운데, 운수(9.4%), 도매·소매(8.0%), 사업시설물·사업지원(8.0%) 등에서 증가함.

- 숙박·음식점은 숙박업에서 증가하였으나, 구제역, 한파 등의 영향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감소함.

〈표 11〉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월)대비, %)

구 분	CY2009			CY2010					1월p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광공업	4.9	16.8	-0.1	25.4	19.3	10.9	11.7	16.2	13.7
- 제조업	4.9	17.5	-0.2	26.6	20.2	11.2	11.9	16.7	14.1
- 자동차	16.3	15.7	-6.4	48.8	32.1	11.3	10.1	23.1	23.1
- ICT	14.5	48.4	9.3	45.9	26.7	19.1	15.2	25.2	17.3
서비스업	2.4	4.8	1.8	6.2	4.2	2.3	3.1	3.9	4.6
- 도매 및 소매업	0.3	5.4	-0.4	7.4	5.6	5.0	4.7	5.7	8.0
- 운수업	-4.8	1.4	-6.6	14.1	14.3	10.1	10.0	12.0	9.4
- 숙박 및 음식점업	-2.5	-0.2	-1.4	1.2	0.7	1.3	1.7	1.2	-0.7
- 부동산 및 임대업	6.7	21.3	5.3	11.5	-2.4	-15.9	-24.3	-8.6	-19.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물가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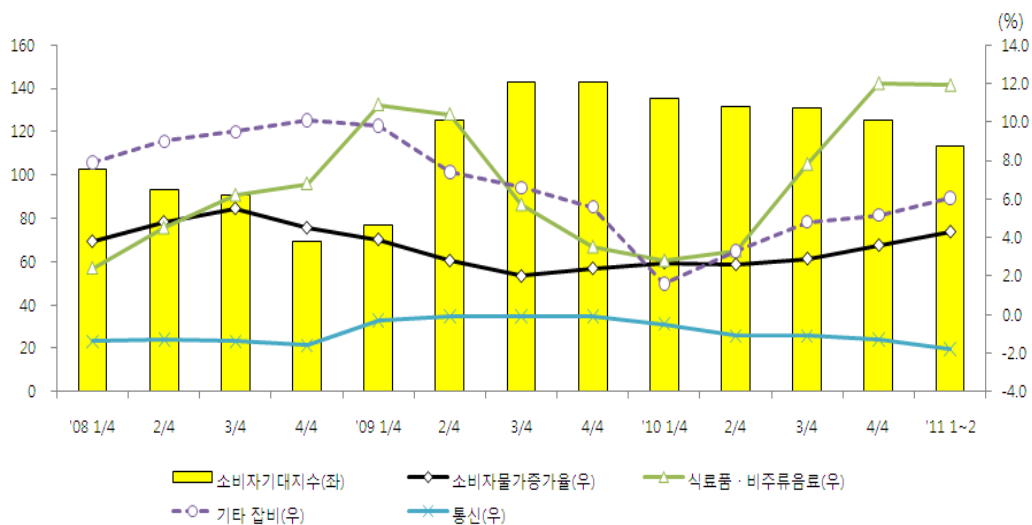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고용시장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개선 추세가 지속됨. 가계부문은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증가한 반면 가계흑자율은 감소함.

■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급상승이 이어지면서 2010년 4/4분기에 3.6%, 2011년 1~2월에 4.3%를 기록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냄.

○ 2010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채소·해조·과실 가격의 상승으로 12.0% 증가하고 기타 잡비(5.2%), 교통(3.4%), 의복 및 신발(1.2%), 주거 및 수도광열(2.5%) 등의 물가도 상승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함.

○ 2011년 1~2월 소비자물가는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한파로 인한 채소 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1.9%)가 급상승하고 교통(6.2%)과 기타 잡비(6.1%)도 상승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함.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소비자기대지수⁸⁾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나타나면서 전분기대비 하락세를 시현함.

○ 2010년 4/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경기회복 및 임금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 하락, 금리인상, 물가상승의 우려가 높아져 전분기대비 하락한 125.2를 나타냈으며, 2011년 1~2월에는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113.1을 기록함.

■ 취업자수는 제조업과 더불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고용이 개선되면서 증가했으며, 고용률과 실업률도 전년동기대비 개선 추세가 나타남.

○ 2010년 4/4분기 취업자수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면서 개선 추세를 지속했고,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58.9%를 나타냈으며, 실업률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3.3%를 기록함.

○ 2011년 1~2월 취업자수는 산업생산과 수출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1.4%, 2.1% 증가했으나 청년취업자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를 나타냈으며, 실업률은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3.8%, 4.5%를 기록함.

■ 산업별 취업자수는 농림어업 부문이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광공업 부문과 SOC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은 증가세가 나타남.

○ 2010년 4/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수는 경기회복 및 구제역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으며, 2011년 1~2월에도 각각 9.3%, 4.2% 줄어들어 감소세가 지속됨.

○ 2010년 4/4분기 광공업 부문 취업자수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9% 늘어났으며, 2011년 1~2월에도 각각 5.7%, 6.7% 증가를 나타냄.

○ 2010년 4/4분기 SOC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 취업자수는 도소매음식숙박 관련 취업자수가 1.3% 감소했으나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3.3%, 1.9%, 1.0% 늘어나면서 0.7% 증가함.

- 2011년 1~2월에는 건설업 부문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 취업자수 증가세는 확대됨.

8) 통계청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의 2008년 8월 소비자기대지수 91.2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향후경기전망 CSI의 8월치 77.0을 91.2가 되도록 환산한 후 2008년 9월부터는 향후경기전망 CSI를 소비자기대지수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분기별로 단순 평균함.

〈표 12〉 고용 관련 지표의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월)대비, %)

구 분	CY2009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총취업자	0.0	-0.3	0.6	1.8	1.6	1.5	1.4	1.4	2.1
- 청년취업자	-1.9	-3.1	-0.3	-1.4	-1.1	-1.5	-1.1	-1.8	-0.9
고용률	58.7	58.6	57.0	59.6	59.3	58.9	58.7	56.8	57.1
실업률	3.3	3.6	4.7	3.5	3.5	3.3	3.7	3.8	4.5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6.9	-2.2	-11.7	-4.6	-2.5	-2.2	-5.0	-9.3	-4.2
광공업	-1.2	-3.2	1.6	4.4	6.8	6.9	4.9	5.7	6.7
- 제조업	-1.2	-3.2	1.6	4.5	6.9	7.0	5.0	5.7	6.7
SOC 및 기타서비스업	0.9	0.5	1.3	1.9	0.9	0.7	1.2	1.2	1.4
- 건설업	-5.9	-5.0	-3.6	2.5	5.4	3.3	1.9	0.9	1.7
- 도소매음식숙박	-2.6	-2.4	-1.0	-1.3	-1.2	-1.3	-1.2	-1.8	-1.4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8	-0.9	4.1	2.4	2.3	1.9	2.6	1.2	1.8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4.6	4.6	3.2	3.9	0.9	1.0	2.2	3.4	3.3

주 :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 2010년 4/4분기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은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흑자액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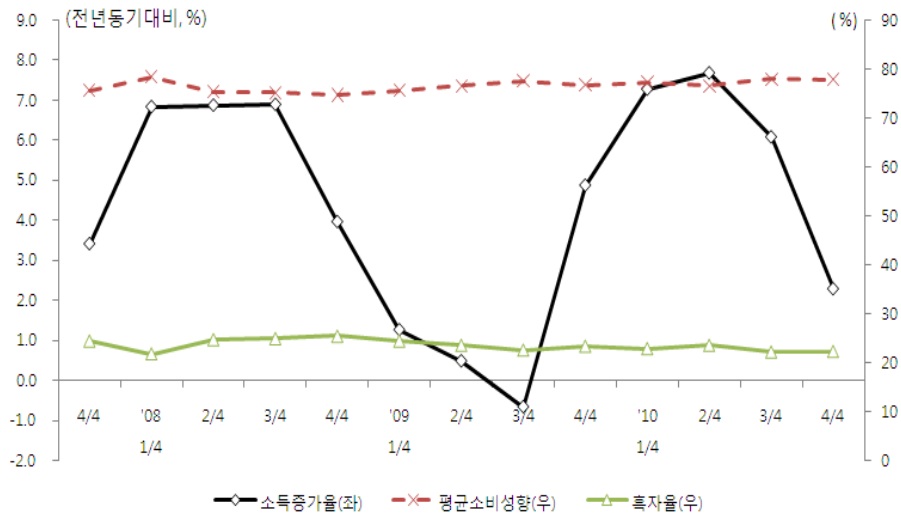
○ 2010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수출증가, 내수호조 등의 영향으로 362만 원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했으나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1.2% 감소함.

- 항목별로는 경상소득이 3.2% 증가한 반면 비경상소득이 17.2% 감소했으며, 경상소득 세부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2.7%, 사업소득이 2.5%, 이전소득이 8.3%, 재산소득이 34.6% 각각 증가함.

○ 2010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 230만 8천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고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도 1.3% 증가함.

- 세부항목별로는 의류·신발이 13.1%, 오락·문화가 15.6% 증가한 반면 교통은 7.7% 감소함.
- 2010년 4/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96만 6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했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의 경우는 65만 8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함.
- 평균소비성향이 77.8%로 전년동기대비 1.2%p 상승했으며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한 22.2%를 나타냄.

〈그림 18〉 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주: 흑자율=1-평균소비성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국고채(3년)금리와 회사채금리는 1/4분기 중 물가불안 심리 부각 및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대체로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며 CD(91일)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여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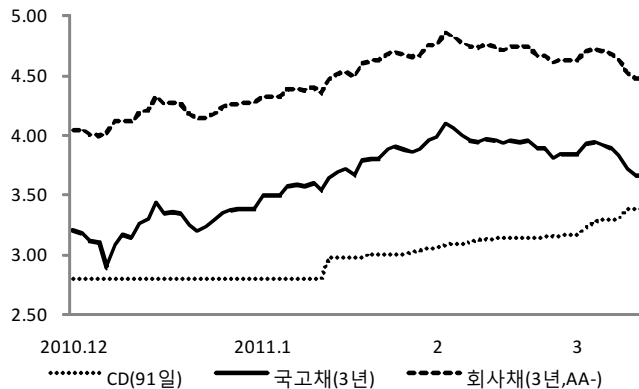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의 우려로 인해 1월과 3월에 걸쳐 각각 25bp 인상됨으로써 3월 현재 3%까지 상승함.
 - 3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가운데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된 것에 기인함.
 -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로지역 등의 기준금리 인상 조짐도 국내 기준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국고채(3년)금리는 중동사태로 인한 국내경기 악영향, 경기선행지수 회복세 등으로 등락이 있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소비자물가 불안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함.
 - 1월 중 국고채 금리는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4%대에 근접함.
 - 2월에는 중동정치 불안으로 유가급등이 국내외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부각되고 저축은행 사태가 맞물리면서 소폭 하락세를 시현함.
 - 3월 들어 국고채금리는 리비아사태 진정가능성 증대,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 전환 등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경기 악영향 우려가 희석되면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일본 지진 참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이 나타나면 하락세를 시현함.

■ 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는 국고채금리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 1/4분기 중 대체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예금증서(CD) 91일물은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급등하는 모습임.

- 우량 등급 회사채금리는 1월에는 물가불안 심리 부각 및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상승세가 강화되었으며 2월 이후에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부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확산되면서 상고하저의 형태를 보임.
-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91일물의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여 1월 중순 2.80%에서 3.30%로 0.50%p 급등하고 3월에도 3.30%에서 3.39%로 상승함.

〈그림 19〉 금리 추이



〈환율〉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무역흑자 지속의 영향으로 강세를 시현하였으나 일본대지진 이후 변동폭이 확대되었으며 엔/달러 환율은 단기적 강세를 시현함.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무역흑자 지속이라는 대내외 호재속에 강세를 시현하다가 국제유가 급등, 일본대지진 등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약세를 보임.

- 1~2월 원/달러 환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해결 조짐 및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위안화 절상 가속화, 연속 흑자 지속, 코스피 2,100선 돌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나 1,100원선 아래로 하락하지는 않음.
- 3월에는 북아프리카 정정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재악화, 일본 지진피해 확대를 우려하여 한때 1,130원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G7 정상회담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면서 1,124원대로 하락함.

■ 엔/달러 환율은 1/4분기 중 미국경기지표의 개선에 따른 달러강세와 위안화 절상에 따른 달러약세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혼조세를 보였으나 일본 대지진 이후 복구자본 수요가 증가하면서 초강세로 전환됨.

- 1~3월 초까지 엔/달러 환율은 미국 경기지표 발표와 중동지역 정정불안에 따른 달러 수요 급변화로 인해 엔/달러 환율은 혼조세를 시현해 왔으며 일본지진 이후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보험청구 기대로 강세가 나타남.

〈그림 20〉 환율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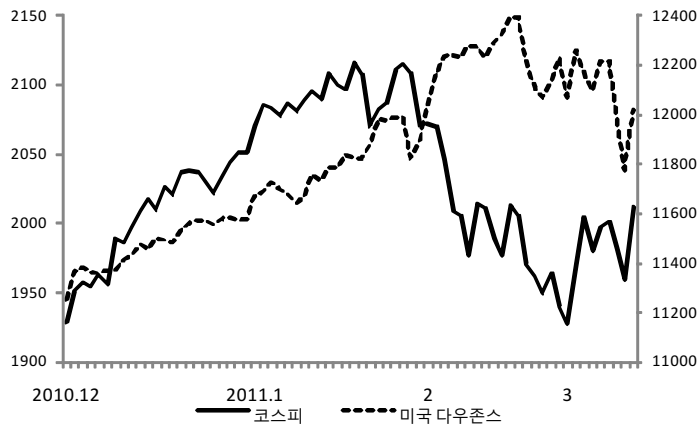


〈주가지수〉

국내증시는 대내외 호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시한 이후 북아프리카 지역 문제로 단기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일본지진이 발생하면서 변동폭이 커짐.

- 국내 주식시장은 1월 중 2010년 4/4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신흥국의 긴축정책 부각, 북아프리카 불안이 겹침에 따라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나 일본 대지진 이후 변동폭이 확대됨.
- 종합주가지수는 1월 초 2,100선을 돌파한 이후 인플레이션을 겨냥한 신흥국의 긴축정책 부각으로 글로벌증시 전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한편 신흥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일부 이탈이 이루어지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임.
- 2월 주식시장은 유럽주변부 국가(PIGS)들의 채무만기 도래, 북아프리카 문제로 인한 변동성 증가, 글로벌 투자자금의 재배치 등으로 인해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1,940선까지 하락하였으며 3월에는 경제지표보다는 북아프리카 불안 확산여부와 일본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점차 안정을 찾음.

〈그림 21〉 주가지수 추이



〈자금흐름〉

CY4/4분기 보험권의 순수신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며 은행권은 투자심리부진과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유입세가 증가하였고 투신사는 자금이 이탈되는 것으로 나타남.

■ CY4/4분기 보험권의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대비 손해보험의 순수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순수신 감소로 인해 전분기대비 감소세를 시현함.

- 생명보험의 순수신은 수신의 성장속도에 비해 보험금지급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고,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을 비롯한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이 모두 양호한 실적을 보이면서 수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증가함.

〈표 13〉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72,569	101,850	100,434	112,581	90,965	113,206	106,839	97,513
- 생 보	52,047	73,533	71,883	84,809	65,558	79,340	80,183	68,578
- 손 보	20,522	28,317	28,551	27,772	25,407	33,866	26,655	28,935
은 행	141,250	218,527	282,694	121,671	217,133	265,044	33,397	274,211
- 일 반	187,727	245,899	282,430	102,900	176,891	247,333	44,878	150,020
- 신 탁	-46,477	-27,372	264	18,771	40,242	17,711	-11,481	124,191
증 권	81,168	37,013	33,892	-44,842	45,027	15,820	-7,803	17,429
투 신	261,799	- 115,228	- 282,355	- 140,750	107,354	-83,616	-78,660	-111,569
중 금	34,826	-64,396	-76,105	-7,191	38,000	-22,687	-13,827	9,480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투신권을 제외한 은행권, 증권사, 종금사의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권의 순수신은 마이너스 실질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부진과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주식형펀드 환매 및 주택매수대기자금 등 대가성자금 유입세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특판예금 만기도래자금의 상당분도 은행권에 잔류함으로써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증권사의 순수신은 주식시장이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상승세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RP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크게 증가함.
- 투신사는 MMF를 중심으로 전 금융상품에서 자금 이탈세가 나타났는데, MMF에서는 법인의 결제·세수 요인과 은행권의 유동성비율관리와 맞물리면서 자금이탈 규모가 확대됨.
- 종금사의 순수신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예탁금에서는 약 1조 3,788억 원이 순유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어음과 어음매출 자금 순유입액이 이를 상쇄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함.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0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손해보험이 2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한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한 37조 9,739억 원을 시현함.

- FY2010 3/4분기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규모는 생명보험이 개인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이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5분기 연속 두 자리수 성장을 이어감.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 등 개인보험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4% 성장에 그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자동차 보험과 일반손해보험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1.8% 성장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4.2	-0.3	13.8	8.6	4.6	9.8	7.1	4.4
손해보험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1.7	14.9	21.1	19.4	16.9	20.8	16.5	21.8
합 계	275,206	284,484	343,721	304,481	1,207,891	313,231	314,552	379,739
	1.0	4.8	16.2	12.4	8.8	13.8	10.6	10.5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10 3/4분기 말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손해보험 자산이 4.8%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생명보험 자산 증가율이 2.8%로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3.2% 증가한 507조 원을 나타냄.

- FY2010 3/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운용자산의 안정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 감소로 전분기대비 3.2% 증가에 그침.
- 생명보험 부문의 총자산 규모는 운용자산 이익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특별계정자산이 감소하면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전분기대비 2.8% 증가함.
- 손해보험 부문의 총자산 규모는 일반계정자산이 국·공채 및 대출채권 확대에 따라 특별계정자산의 퇴직보험 관련 자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대비 4.8% 증가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 조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339	353	361	373	373	381	397	408
	3.2	4.1	2.5	3.1	13.5	2.5	4.1	2.8
손해보험	77	79	83	86	86	90	94	99
	3.5	3.7	4.4	3.8	16.4	4.8	4.7	4.8
합 계	415	432	444	459	459	471	491	507
	3.3	4.0	2.8	3.4	14.2	2.7	4.2	3.2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10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23조 3,41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보험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만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반면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생존보험 등 저축성 보험이 전반적인 고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8.4% 성장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기저효과로 인해 12.3% 성장에 그치면서 전체적으로 11.9% 감소함.

■ FY2010 3/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운용자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퇴직보험 자산을 중심으로 특별계정 자산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하는데 그침.

○ 일반계정 운용자산은 수입보험료와 자산이익의 양호한 증가로 3.2% 성장하였으나 특별계정자산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등으로 퇴직보험 자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1.5% 증가하는 데 그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176,324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4.2	-0.3	13.8	8.6	4.6	9.8	7.1	4.4
총 자 산	3,388,638	3,527,890	3,614,323	3,725,247	3,725,247	3,816,622	3,974,875	4,084,952
	3.2	4.1	2.5	3.1	13.5	2.5	4.1	2.8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은 성장률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0 3/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이 두 자리수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생존보험 또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8.4% 성장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도 수요확대에 대한 기저효과로 초회보험료가 2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1.0%의 성장률을 기록함.
- 생존보험은 전년동기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두 자리수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의 설립 등을 계기로 잠재수요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이 이루어지면서 8.6%의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냄.
 - FY2009 3/4분기 생존보험 초회보험료는 6회 경험생명표 적용 후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비한 대기수요 확대로 107.2% 증가한 바 있으며, 수입보험료는 16.2% 증가하였음.
 - 2010년 9월 최초의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인 IBK연금보험이 설립되었으며, 동사는 설립이후 단기간 내에 초회보험료 기준 생존보험 점유율 4.1%를 달성하는 등 연금보험시장 확대에 기여함.
- 생사혼합보험은 타 금융권 대비 상대적 고금리와 세제혜택 그리고 2003년 급증했던 신규계약 만기자금 재유입 등의 영향으로 28.8% 성장하면서 FY2009 2/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2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함.
- 변액보험은 추가상승 기간에도 해지 증가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수요가 크게 회복되면서 14.0% 성장함.
 - 변액연금의 경우 초회보험료와 수입보험료가 각각 28.9%, 17.8%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음.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수요 확대로 초회보험료가 235.5% 증가한데 힘입어 수입보험료가 9분기 만에 처음으로 11.3% 성장함.

■ FY2010 3/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급감, FY2009 3/4분기 300% 이상 급성장한 퇴직연금의 기저효과 등으로 11.9% 감소함.

-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는 39.9% 감소하였고 퇴직연금은 12.3% 증가에 그쳤으며, 일반단체보험 또한 6.8%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단체영업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34,389	37,016	40,807	40,908	153,119	40,313	41,775	44,312
	성장률	-0.2	4.8	16.2	14.1	8.8	17.2	12.9	8.6
	구성비	19.6	20.6	18.2	21.4	19.9	21.0	21.7	19.0
사망	보험료	71,889	72,647	72,632	72,330	289,498	71,767	71,868	71,895
	성장률	-3.9	-2.1	-0.7	-0.1	-1.7	-0.2	-1.1	-1.0
	구성비	41.0	40.5	32.5	37.8	37.6	37.3	37.4	30.8
생사 혼합	보험료	18,096	19,321	21,248	23,387	82,052	24,183	24,875	27,370
	성장률	18.5	22.6	33.9	20.1	23.6	33.6	28.7	28.8
	구성비	10.3	10.8	9.5	12.2	10.7	12.6	12.9	11.7
변액 보험	보험료	40,885	42,100	44,375	44,522	171,882	44,983	45,598	50,600
	성장률	-13.7	-8.4	5.1	10.4	-2.3	10.0	8.3	14.0
	구성비	23.3	23.5	19.8	23.3	22.3	23.4	23.7	21.7
개인 계	보험료	165,260	171,085	179,061	181,145	696,551	181,247	184,116	194,177
	성장률	-3.9	-0.1	7.6	7.8	2.8	9.7	7.6	8.4
	구성비	94.3	95.4	80.1	94.6	90.5	94.2	95.8	83.2
단체	보험료	9,908	8,287	44,544	10,277	73,017	11,156	8,033	39,241
	성장률	-9.5	-5.2	48.0	23.8	25.7	12.6	-3.1	-11.9
	구성비	5.7	4.6	19.9	5.4	9.5	5.8	4.2	16.8
합계	보험료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성장률	-4.2	-0.3	13.8	8.6	4.6	9.8	7.1	4.4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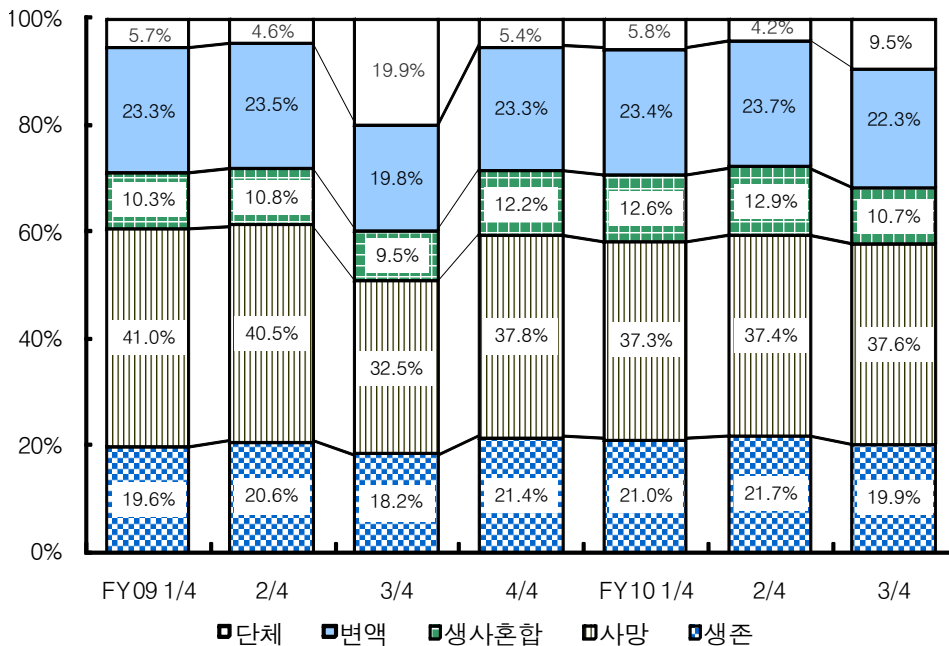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0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사망보험과 단체보험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의 비중은 모두 증가함.

○ 사망보험 비중은 마이너스 성장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7%p 감소한 30.8%로 나타났으며, 단체보험 비중 또한 기저효과로 인한 상대적인 저성장으로 3.1%p 감소한 16.8%를 기록함.

○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8%p, 1.9%p 증가한 19.0%와 21.7%로 나타났으며, 생사혼합보험 비중은 2.2%p 증가한 11.7%를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2%p 이상 비중이 확대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0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상위3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감소함.

-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확대 추이를 보였으며, 당 분기부터 연금보험전문 보험회사 1개사가 추가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3.9%p 상승한 27.3%로 높아짐.
- 상위3사의 점유율은 3/4분기에 수입보험료가 몰리는 단체보험의 상대적인 저성장과 사망보험의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3%p 축소된 54.1%로 나타났으며, 외국사의 점유율도 0.7%p 하락한 18.5%로 낮아짐.

■ FY2010 3/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3사의 점유율 하락과 국내 중소형사의 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0196 감소한 0.1253을 나타냄.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3개사	53.6	52.9	57.4	51.8	54.1(3.4)	52.3	51.7	54.1
국내중소형사	25.0	24.9	23.4	26.3	24.8(9.1)	26.4	26.6	27.3
외 국 사	21.4	22.2	19.2	21.9	21.1(2.7)	21.3	21.7	18.5
허핀달지수	0.1217	0.1200	0.1449	0.1172	0.1263	0.1186	0.1165	0.1253

주 :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0년 12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1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5) 괄호는 연간 수입보험료 성장률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0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누적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투자영업이익과 기타이익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2.9% 증가한 3조 544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보험영업수익이 일반계정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7.5% 증가하고 보험영업비용이 환급금비용 축소로 5.5%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65.5% 증가함.
-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수익이 파생상품 거래 및 평가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의 증가로 1.6% 증가하고 투자영업비용이 환율하락으로 인한 외환차손 감소 등으로 39.0%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5.2% 증가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1/4	2/4	3/4
총수익	보험영업	134,024	272,467	416,397	562,962	143,720	289,921	439,260
	투자영업	48,008	96,349	139,055	185,863	51,080	89,249	141,253
	영업외	8,353	16,410	24,289	33,471	12,470	21,301	30,270
	소 계	190,386	385,225	579,741	782,296	207,269	400,471	610,783
총비용	보험영업	116,177	235,500	359,751	484,636	111,152	222,725	345,533
	투자영업	14,511	26,329	34,920	48,228	9,784	9,781	21,283
	영업외	1,501	2,796	5,283	5,982	1,594	3,154	4,535
	소 계	132,188	264,624	399,954	538,846	122,531	235,660	371,351
수지차	보험영업	17,848	36,967	56,645	78,326	32,567	67,196	93,727
	투자영업	33,498	70,020	104,135	137,635	41,296	79,467	119,970
	영업외	6,852	13,614	19,006	27,489	10,876	18,147	25,735
	소 계	58,198	120,601	179,787	243,450	84,739	164,811	239,432
책임준비금전입		49,455	100,483	151,863	210,586	68,042	137,060	198,605
법인세		1,829	4,527	6,542	8,315	3,846	6,498	10,283
당기순이익		6,914	15,592	21,381	24,549	12,850	21,252	30,544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0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지급률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5%p 상승한 70.6%로 나타남.

○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과 생존지급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9.0%p, 28.2%p 상승한 61.2%, 77.6%로 나타남.

○ 사망보험 지급률은 1.7%p 증가에 그치며 51.1%로 나타났고, 생사혼합보험은 지난해 대규모 만기도래로 지급률이 급증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40.3%p 감소한 68.6%를 기록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0%p 감소한 14.2%로 나타났으며, 해지율 또한 0.8%p 감소한 8.2%를 시현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금 지급률	58.0	59.9	62.1	65.8	61.6	58.8	58.3	70.6
개 인 계	51.9	56.0	57.1	56.5	55.4	52.1	54.0	62.8
- 생 존	60.6	56.4	52.2	54.0	55.6	51.0	51.3	61.2
- 사 망	51.7	53.8	49.4	51.4	51.6	50.2	51.1	51.1
- 생사혼합	70.7	76.8	108.9	84.5	86.0	49.7	50.3	68.6
- 변 액	36.5	50.0	49.4	52.5	47.3	57.5	62.9	77.6
단 체	160.7	140.3	82.1	228.0	119.9	166.7	157.1	109.4
사 업 비 율	17.3	17.7	15.2	16.7	16.6	16.8	16.7	14.2
해 지 율	3.5	6.5	9.0	11.3	11.3	3.0	5.6	8.2

주 :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신계약률과 해지율은 누계지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10 3/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와 같은 5.6%로 나타났으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5.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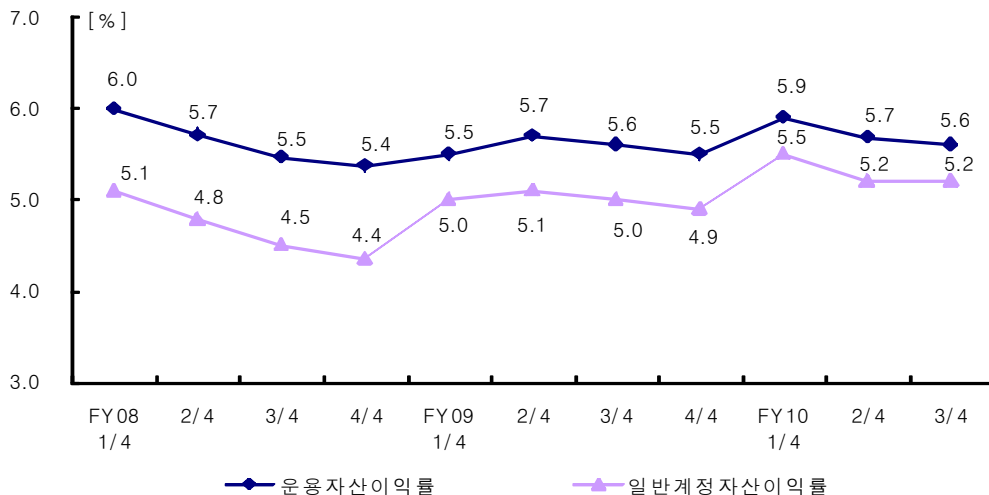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이익률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5.0%로 나타났으며,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이익률은 각각 소폭 상승한 4.9%, 5.3%로 나타난 반면 단기매매증권 이익률은 2.8%p 하락한 3.1%로 나타남.

○ 부동산 이익률은 1.4%p 하락한 3.1%로 나타났으며, 대출채권 이익률은 0.4%p 높아진 8.4%로 나타남.

■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투자비중은 유가증권 65.0%, 대출채권 20.1%, 부동산 3.7%, 현금과 예금 3.7%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에 비해 대출채권, 부동산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의 비중은 각각 0.2%p, 3.0%p 증가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이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이익)×(연기준 환산)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3/4		4/4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5	2.9	3.2	2.9	3.3	3.2	3.4	3.1	3.7	3.1
유 가 증 권	62.0	5.0	63.1	4.8	64.1	4.7	64.8	4.9	65.0	5.0
○ 단기매매증권	1.1	5.9	1.6	4.1	1.7	2.0	1.3	3.4	1.1	3.1
- 주 식	0.0	70.2	0.0	56.2	0.0	-15.4	0.0	4.6	0.0	8.5
- 채권 등	0.3	6.2	0.3	4.3	0.2	1.7	0.2	5.6	0.2	3.1
- 수익증권	0.8	4.4	1.4	3.4	1.5	2.1	1.1	3.0	0.9	3.0
○ 매도가능증권	47.3	4.7	47.8	4.6	48.4	4.6	49.3	4.8	49.2	4.9
- 주 식	5.0	0.9	4.9	1.7	4.6	0.8	4.6	1.9	5.4	1.5
- 채권 등	38.6	5.1	39.5	5.0	40.2	5.2	41.2	5.1	40.1	5.3
- 수익증권	3.8	4.7	3.5	4.1	3.5	2.6	3.5	4.4	3.7	4.7
○ 만기보유증권	12.7	5.2	12.8	5.3	13.1	5.5	13.3	5.3	13.7	5.3
- 채권 등	12.7	5.2	12.8	5.3	13.1	5.5	13.3	5.3	13.7	5.3
- 수익증권	0.0	-	0.0	-	0.0	0.0	0.0	0.0	0.0	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9	16.5	0.9	13.8	0.9	7.3	0.9	6.9	0.9	12.5
대 출 채 권	21.9	8.0	21.5	7.9	20.7	10.6	20.3	9.1	20.1	8.4
부 동 산	3.9	4.5	4.0	4.2	3.9	3.0	3.7	3.0	3.7	3.1
운 용 자 산 계	91.3	5.6	91.7	5.5	92.0	5.9	92.3	5.7	92.4	5.6
비 운 용 자 산	8.7	-0.6	8.3	-0.3	8.0	0.3	7.7	-0.3	7.6	0.2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률)	100.0 (80.8)	5.0	100.0 (80.6)	4.9	100.0 (80.7)	5.5	100.0 (80.4)	5.2	100.0 (80.7)	5.2
특 별 계 정 자 산	19.2	13.7	19.4	11.1	19.3	3.6	19.6	8.5	19.3	9.5
총 자 산	100.0	6.6	100.0	6.1	100.0	5.1	100.0	5.8	100.0	6.0
총 자 산 규 모	3,614,323		3,725,247		3,816,622		3,974,875		4,084,952	

주 :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0 3/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임직원의 비중만이 감소하고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모두 증가함.
- 임직원 비중은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0.7%p 감소한 26.2%로 나타남.
 - 이는 FY2009 3/4분기 퇴직연금 신규가입이 급증하면서 이례적으로 임직원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임.
 - 임직원 비중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방카슈랑스와 설계사의 비중이 각각 9.8%p, 9.6%p 높아진 37.6%, 29.1%로 나타남.
 - 설계사를 통한 초회보험료는 변액보험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방카슈랑스는 생존, 생사혼합보험 등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임 직 원	15.4	7.5	46.9	14.2	27.0	14.1	11.5	26.2
설 계 사	36.2	35.9	19.5	28.6	27.1	26.5	27.2	29.1
대 리 점	8.8	8.2	5.6	7.7	7.0	7.2	7.7	6.1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39.5	48.2	27.8	49.1	38.6	51.9	53.1	37.6
기 타	0.1	0.3	0.2	0.3	0.2	0.3	0.4	0.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973	17,200	40,990	25,688	96,851	24,407	25,053	44,342

주 :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0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전분기에 비해 설계사와 대리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임직원 수는 250명 증가한 26,481명으로 나타났는데, IBK연금보험 출범으로 증가한 임직원 수를 제외하더라도 159명이 늘어난 것임.
- 설계사수는 전분기에 비해 4,638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속설계사는 3,264명 감소하였고 교차설계사는 1,374명 감소함.
 - 집단별로 살펴보면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형사에서의 설계사 수 감소가 두드러짐.
- 대리점 수는 법인대리점이 10개 증가하였으나 개인대리점이 310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00개가 감소한 10,359개로 나타남.
 - 개인대리점 수는 대형사와 외국사에서 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형사에서는 오히려 234개 증가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7,421	27,131	26,541	26,693	26,566	26,230	26,481
설 계 사	168,874	165,852	164,175	162,687	159,512	153,778	149,140
- 전속	143,588	140,796	141,067	140,461	137,945	137,027	133,763
- 교차	25,286	25,056	23,108	22,226	21,567	16,751	15,377
대 리 점	13,588	13,739	13,387	13,244	11,679	10,659	10,359
- 개인	9,014	8,940	8,874	8,702	7,548	7,186	6,876
- 법인	4,574	4,799	4,513	4,542	4,131	3,473	3,483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10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성보험⁹⁾,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모든 종목에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한 14조 6,321억 원을 기록함.
 - 장기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퇴직연금인 제도적 요인 등에 기인한 수요증가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27.7% 급증한 9조 7,426억 원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와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의 강화 추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3조 2,103억 원을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의 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보증과 특종보험이 고성장을 회복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1조 6,792억 원을 시현함.
- FY2010 3/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 규모는 특별계정자산이 전분기대비 4.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자산이 전분기대비 5.3% 증가함에 따라 4.8% 증가한 98조 9,680억 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자산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용자산이 국·공채 및 특수채 확대로 매도가 능채권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의 증가세로 대출채권도 늘어나면서 증가한 반면, 특별계정자산은 퇴직보험 관련 자산이 줄어들면서 감소함.

9)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말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1.7	14.9	21.1	19.4	16.9	20.8	16.5	21.8
- 장기성	58,034	62,410	76,291	70,894	267,629	75,524	76,673	97,426
	18.3	23.9	33.5	28.3	26.4	30.1	22.9	27.7
- 자동차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29,307	30,581	32,103
	-0.6	1.4	3.3	6.4	2.6	7.6	8.3	12.7
- 일반손해	14,763	14,454	15,341	13,912	58,470	15,999	15,149	16,792
	12.6	8.7	5.9	8.1	8.7	8.4	4.8	9.5
총 자 산	766,082	794,726	829,558	861,222	861,222	902,218	944,143	989,680
	3.5	3.7	4.4	3.8	16.4	4.8	4.6	4.8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종목별 보험료 현황

1) 장기성보험(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 FY2010 3/4분기 장기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손해보험이 성장을 지속하고 퇴직연금이 계절적 수요, 제도적 요인 등으로 큰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27.7% 늘어난 9조 7,426억 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초회보험료 증가세 지속과 안정적 계속보험료 유입이 유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1.4% 증가한 7조 2,151억 원을 시현하여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회복세와 고령화 등에 기인한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가 더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29.6% 증가한 6,444억 원을 나타냄.
- 퇴직보험 원수보험료는 2010년 말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2.3% 감소한 3,940억 원을 시현해 큰 폭의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제도 종료에 따른 전환효과로 전년동기대비 194.9% 증가한 1조 4,890억 원의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이면서 장기성보험의 성장을 주도함.

〈표 12〉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장 기 손 해	보험료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66,651	69,459	72,151
	성장률	18.3	23.3	24.5	27.0	23.4	25.5	21.2	21.4
	구성비	91.5	91.8	77.9	89.1	87.1	90.7	90.6	74.1
개 인 연 금	보험료	3,654	4,048	4,971	5,169	17,841	5,527	5,818	6,444
	성장률	25.7	30.4	46.5	49.9	38.8	51.3	43.7	29.6
	구성비	6.3	6.5	6.5	7.3	6.7	7.5	7.6	6.6
퇴 직 보 험	보험료	758	521	6,828	573	8,680	960	273	3,940
	성장률	46.4	27.3	43.1	-48.4	27.5	26.7	-47.5	-42.3
	구성비	1.3	0.8	8.9	0.8	3.2	1.3	0.4	4.0
퇴 직 연 금	보험료	534	541	5,049	1,994	8,119	2,385	1,123	14,890
	성장률	-29.4	39.3	307.9	112.4	144.4	346.4	107.4	194.9
	구성비	0.9	0.9	6.6	2.8	3.0	3.2	1.5	15.3
합 계	보험료	58,034	62,410	76,291	70,894	267,629	75,524	76,673	97,426
	성장률	18.3	23.9	33.5	28.3	26.4	30.1	22.9	27.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장기성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임.
 2)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I의 자산연계형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실적〉

- FY2010 3/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종목별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상해·질병보험도 계속보험료로 인한 성장세가 유지됨.

- 저축성보험의 경우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인한 계속보험료의 증가세와 경기회복, 고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업계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에 따른 초회보험료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66.7% 성장함.

〈표 13〉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5,041	15,650	16,414	16,964	64,069	17,671	18,263	18,976
		성장률	32.8	31.2	30.1	25.1	28.9	17.5	16.7	15.6
	운전자	보험료	5,008	4,994	5,160	5,459	20,621	5,571	5,611	5,636
		성장률	-6.5	-5.4	-0.7	7.6	-1.4	11.2	12.4	9.2
	재 물	보험료	4,550	4,548	4,701	4,836	18,635	5,002	5,240	5,604
		성장률	0.4	0.4	3.6	6.9	2.9	9.9	15.2	19.2
	질 병	보험료	10,568	12,992	13,000	13,294	49,853	13,525	13,914	14,405
		성장률	40.7	62.2	48.4	35.9	47.7	28.0	7.1	10.8
	저축성	보험료	8,479	9,040	9,924	11,676	39,119	14,020	15,515	16,540
		성장률	16.2	20.7	34.7	56.1	32.0	65.3	71.6	66.7
	통합형	보험료	9,330	9,925	10,129	10,335	39,719	10,595	10,624	10,733
		성장률	5.6	8.1	10.4	12.1	9.1	13.6	7.0	6.0
	자산 연계형	보험료	111	151	117	594	973	267	292	196
		성장률	-	45.7	10.7	469.3	210.5	140.1	93.2	67.6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66,651	69,459	72,090
		성장률	18.3	23.3	24.5	27.0	23.4	25.5	21.2	21.3
	운전자	보험료	645	793	350	478	2,266	518	460	517
		성장률	42.8	61.1	-41.4	-42.1	-4.2	-19.7	-42.0	48.0
	재 물	보험료	121	119	210	200	650	127	108	103
		성장률	7.9	18.4	103.0	85.0	53.2	4.6	-8.6	-50.8
	질 병	보험료	172	130	200	190	692	223	259	302
		성장률	0.1	-4.2	34.2	15.0	11.2	29.6	98.6	51.6
	저축성	보험료	513	753	283	247	1,796	239	320	294
		성장률	131.3	130.9	-42.8	-65.7	1.9	-53.3	-57.5	3.6
	통합형	보험료	1,091	1,153	1,095	1,716	5,056	2,971	3,477	3,202
		성장률	69.7	77.9	137.2	163.4	110.3	172.3	201.5	192.4
	자산 연계형	보험료	181	322	110	137	750	104	106	97
		성장률	-31.5	48.4	-27.5	-37.3	-11.9	-42.4	-67.1	-11.9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	-	30	332	362	-7	-	-
		성장률	-	-	-	-	-	-	-	-
	운전자	보험료	2,724	3,270	2,278	3,300	11,572	4,176	4,730	4,516
		성장률	46.0	70.4	16.4	22.8	37.3	53.3	44.6	98.3
	재 물	보험료	14,396	14,857	16,065	16,487	61,803	17,153	17,804	18,458
		성장률	32.4	29.9	33.0	29.4	31.3	19.2	19.8	14.9
	질 병	보험료	4,887	4,875	4,949	5,259	19,971	5,444	5,503	5,533
		성장률	-6.8	-5.8	-2.8	5.9	-2.5	11.4	12.9	11.8
	저축성	보험료	4,378	4,418	4,502	4,646	17,943	4,779	4,981	5,302
		성장률	0.4	0.8	2.6	6.6	2.6	9.2	12.8	17.8
	통합형	보험료	10,055	12,239	12,716	13,047	48,057	13,286	13,594	14,111
		성장률	37.9	60.4	55.0	43.9	49.0	32.1	11.1	11.0
	자산 연계형	보험료	7,388	7,887	8,829	9,960	34,063	11,049	12,038	13,338
		성장률	11.0	15.3	27.8	45.9	25.1	49.6	52.6	51.1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9,149	9,603	10,019	10,198	38,969	10,491	10,518	10,636
		성장률	6.7	7.1	11.0	13.3	9.6	14.7	9.5	6.2
	운전자	보험료	-	-	87	262	348	274	292	195
		성장률	-	-	-	-	-	146.0	93.4	125.2
	재 물	보험료	50,364	54,028	57,167	59,858	221,416	62,475	64,729	67,574
		성장률	17.1	21.3	24.8	27.2	22.7	24.0	19.8	18.2

주 :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상해·질병·통합형보험은 해지율 안정화로 인한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유입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각각 15.6%, 10.8%, 6.0% 증가함.

■ FY2010 3/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비중이 큰 상해·질병보험과 재물보험의 초회보험료도 늘어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98.3% 증가한 4,516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선호도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2.4%의 지속적인 고성장세가 이어짐.
- 질병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했으나 기저효과에 불과하며, 상해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8.0% 증가하면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소폭의 회복세를 나타냄.
- 재물보험의 초회보험료는 화보법 개정 효과가 이어져 전년동기대비 51.6%의 급증세를 이어감.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 FY2010 3/4분기 누적 기준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시장 확대에 의한 보유계약액이 증가해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2.7%p 감소한 10.1%을 기록함.

- 재물보험의 해지율이 전년동기보다 1.2%p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장기보험의 해지율은 지속적인 안정화 기조를 나타냄.

〈표 14〉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 해	6.0	10.9	14.1	16.9	16.9	3.8	6.8	9.7
운전자	5.5	10.4	12.7	15.3	15.3	4.1	7.1	10.3
재 물	4.9	7.7	10.7	13.5	13.5	5.0	8.6	11.9
질 병	4.6	9.3	12.6	16.0	16.0	3.8	6.7	9.4
저축성	5.9	9.6	13.4	17.0	17.0	4.6	8.4	11.8
통합형	4.6	8.3	10.9	13.2	13.2	3.0	5.3	7.7
계	5.4	9.7	12.8	15.8	15.8	4.0	7.1	10.1

주 : 1) 해지율=(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자동차보험

■ FY2010 3/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과 담보 확대 추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3조 2,103억 원을 기록해 큰 폭의 성장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은 물량변수인 차량등록대수가 실물경기 회복과 신차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수입차와 대형차의 비중 증가로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의 확대 추세가 이어져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담보별로 보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8,798억 원을 나타냈으며, 종합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8.0% 증가한 2조 2,229억 원을 시현함.

○ 대인배상 I의 원수보험료는 비중이 큰 개인용 물건이 증가하고 전년동기간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9% 늘어나 증가세로 전환됨.

〈표 15〉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인 I		8,424	8,908	8,632	8,245	34,210	8,539	8,730	8,798
종합 보험	대인 II	3,053	3,117	3,151	3,093	12,414	3,197	3,263	3,266
	대물	6,996	7,339	7,328	7,455	29,118	7,751	8,102	8,801
	자차	6,530	6,651	7,088	7,245	27,514	7,493	8,095	8,735
	자손	961	960	998	999	3,919	1,038	1,065	1,137
	무보험	272	282	284	276	1,114	281	290	290
	소 계	17,812	18,350	18,849	19,067	74,079	19,760	20,814	22,229
외화표시		33	21	35	21	108	27	20	34
이륜자동차		145	140	121	112	518	158	147	138
기 타		827	830	846	808	3,310	822	869	904
합 계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29,307	30,581	32,103
		-0.6	1.4	3.3	6.4	2.6	7.6	8.3	12.7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의 고급화로 고액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2%, 28.3% 늘어나 전체 18.0% 증가함.

■ FY2010 3/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부분의 담보별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6.9%p 급증한 85.9%를 기록함.

- 대인배상 I의 손해율은 요율인하로 인한 경과보험료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용·업무용 차량의 발생손해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4%p 상승한 81.1%를 나타냄.

〈표 16〉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인 I		68.1	71.8	75.7	69.0	71.1	71.4	75.1	81.1
종합 보험	대인 II	69.0	62.1	68.7	68.0	66.9	70.5	74.1	74.5
	대물	76.9	78.5	86.7	83.2	81.3	83.1	87.2	93.7
	자차	72.6	79.1	81.8	92.3	81.6	78.3	92.1	90.4
	자손	66.0	64.9	74.1	78.4	70.9	74.8	75.4	82.3
	무보험	21.1	63.0	47.3	30.1	40.5	17.3	46.3	33.3
	소 계	72.5	75.0	80.5	83.0	77.8	77.8	85.7	88.0
외화표시		63.4	48.2	52.9	52.2	54.4	64.7	81.9	67.5
이륜자동차		93.9	94.2	85.7	68.6	85.5	97.3	72.3	98.0
기 타		66.0	76.0	79.4	81.1	75.7	67.1	86.0	82.9
합 계		71.0	74.1	79.0	78.6	75.7	75.7	82.5	85.9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합보험의 손해율은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율이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물배상의 손해율도 발생손해액 증가로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전체 전년동기대비 7.5%p 상승한 88.0%를 기록함.

3) 일반손해보험

■ FY2010 3/4분기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의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보증 및 특종보험이 성장세를 회복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1조 6,792억 원을 시현함.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4%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해상보험은 지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함.

○ 보증보험은 전반기 저조한 실적에서 벗어나 전년동기대비 10.0% 성장했으며, 특종보험도 기술보험을 제외한 전종목의 성장세로 전분기의 낮은 성장에서 벗어나 고성장세로 전환됨.

〈표 17〉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654	632	798	679	2,763	622	602	779
	성장률	-6.6	-0.1	0.7	-4.3	-2.5	-5.0	-4.7	-2.4
	구성비	4.4	4.4	5.2	4.9	4.7	3.9	4.0	4.6
해 상	보험료	2,215	2,009	1,858	1,967	8,049	2,084	1,970	1,939
	성장률	2.2	5.1	-27.5	5.5	-5.4	-5.9	-2.0	4.4
	구성비	15.0	13.9	12.1	14.1	13.8	13.0	13.0	11.5
보 증	보험료	3,165	2,890	3,106	3,126	12,287	3,194	2,978	3,417
	성장률	12.5	-1.3	10.1	5.4	6.6	0.9	3.1	10.0
	구성비	21.4	20.0	20.2	22.5	21.0	20.0	19.7	20.4
특 종	보험료	8,345	8,422	8,919	7,606	33,293	9,665	9,030	9,955
	성장률	15.8	12.5	16.3	12.6	14.3	15.8	7.2	11.6
	구성비	56.5	58.3	58.1	54.7	56.9	60.4	59.6	59.3
해 외 원보험	보험료	383	500	661	534	2,078	433	568	702
	성장률	71.1	46.6	3.8	-7.9	16.7	13.1	13.6	6.2
	구성비	2.6	3.5	4.3	3.8	3.6	2.7	3.7	4.2
합 계	보험료	14,763	14,454	15,341	13,912	58,470	15,999	15,149	16,792
	성장률	12.6	8.7	5.9	8.1	8.7	8.4	4.8	9.5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0 3/4분기 화재보험은 감소세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일반물건과 공장물건의 감소세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한 779억 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함.
 - 화재보험은 주택물건이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했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물건과 공장물건이 물건이탈의 영향으로 각각 2.0%, 4.2% 감소하면서 전체 2.4% 감소를 나타냄.
- FY2010 3/4분기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선박보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적하보험의 기저효과로 인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1,939억 원을 나타냄.
 - 적하보험은 세계적인 경기회복 추세와 전년동기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13.6% 성장한 반면 선박보험은 18.6% 하락함.
 - 해양종합, 해양책임, 항공보험은 수요감소 및 환율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5%, 67.9%, 4.8% 감소한 반면 우주보험은 무궁화 6호 위성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함.
- FY2010 3/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한 3,417억 원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세를 벗어났으며, 이는 전년동기 고성장을 나타낸 것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보증보험은 신용보증이 통신 관련 부문의 큰 성장을 기록하고 이행보증도 리스크 관리 강화 정책으로 인해 침체된 수요가 점차 회복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냄.
- FY2010 3/4분기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술보험이 기저효과로 감소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상해, 책임보험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한 9,955억 원을 나타내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회복함.
 - 종합보험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성 물건이 전년동기대비 13.7% 성장하고 가계성 물건도 13.2% 성장하면서 전체 13.7% 성장한 3,038억 원의 원수보험료를 시현함.
 - 상해보험은 기업의 복리후생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서 단체상해가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했으며 일반상해보험도 22.8%의 고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17.4% 증가한 3,439억 원을 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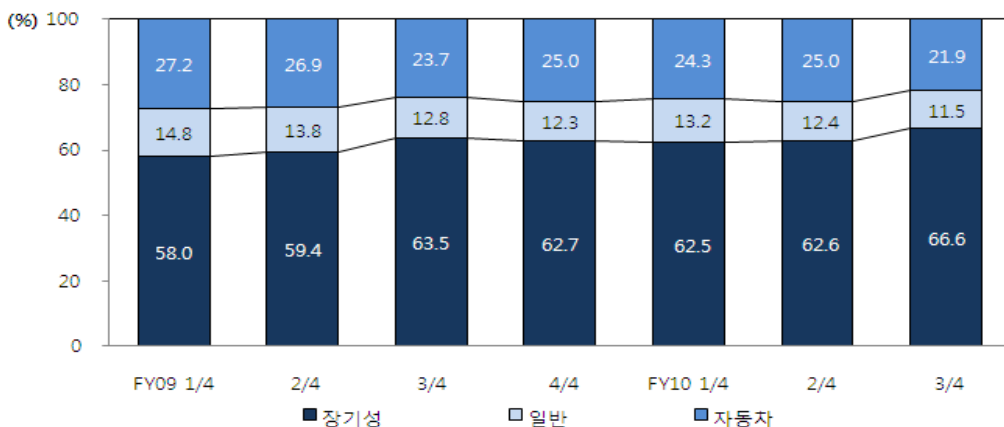
- 책임보험은 배상책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이 각각 10.5%, 6.7% 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1,317억 원을 나타냄.
- 기술보험은 조립보험이 전년동기대비 21.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건설투자 부진,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보험이 26.3%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2.3% 감소한 994억 원에 그침.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0 3/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종목별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한 장기성보험의 비중이 확대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감소함.

- 장기성보험 비중은 퇴직연금의 호조세와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1%p, 전분기대비 4.0%p 늘어난 66.6%의 점유율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경우 12.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장기성보험의 고성장으로 인해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21.9%의 구성비를 나타냄.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도 보증 및 특종보험의 호조세로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장기성보험 및 자동차보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비중이 전분기대비 0.9%p 하락한 11.5%에 머무름.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0 3/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퇴직연금의 확대로 인한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국내 기타사, 전업사, 외국사 및 온라인사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의 호조세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5%p 증가한 70.8%를 나타냈으나 기타 국내사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0.9%p 감소한 24.3%를 나타냄.
- 외국사와 전업사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0.3%p 줄어든 2.6%, 2.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온라인사의 경우도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한 2.6%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FY2010 3/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상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006p 증가한 0.1500을 나타냄.

〈표 18〉 손해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4사	68.1	68.5	69.3	69.0	68.8(16.7)	69.1	69.3	70.8
국내 기타사	25.4	25.4	25.2	25.0	25.2(20.5)	25.2	25.1	24.3
전업사	3.2	2.8	2.6	2.8	2.8(6.6)	2.7	2.4	2.3
외국사	3.3	3.4	2.9	3.2	3.2(4.4)	3.0	3.2	2.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3.3	3.4	3.0	3.3	3.2(7.2)	3.0	3.2	2.6
허핀달지수	0.1402	0.1409	0.1440	0.1437	0.1436	0.1459	0.1462	0.1500

주 :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 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4) ()는 연간 원수보험료 성장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지상황

〈총수익 · 총비용〉

■ FY2010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한 1조 5,420억 원을 기록함.

- 장기보험과 퇴직연금의 매출 호조와 자동차보험의 성장 확대로 보험영업수익이 전년 동기대비 17.0% 증가했으나 보험영업비용도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함에 따라 보험영업수지는 7,71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수익이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하고 투자영업비용이 이자비용 및 외화환산손실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16.2% 감소하여 2조 7,968억 원의 흑자를 나타냄.

〈표 19〉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1/4	2/4	3/4
총수익	보험영업	95,170	195,656	299,884	408,165	111,904	229,228	351,007
	투자영업	11,829	22,448	32,202	42,559	11,239	22,450	35,059
	기 타	2,339	4,671	17,296	21,181	4,901	7,784	21,579
	소 계	109,338	222,776	349,382	471,905	128,044	259,462	407,645
총비용	보험영업	96,455	199,392	305,177	417,530	109,492	231,280	358,717
	투자영업	3,043	6,093	8,457	11,146	2,247	4,260	7,092
	기 타	2,806	5,357	18,420	22,515	4,719	7,084	21,189
	소 계	102,304	210,842	332,055	451,192	116,458	242,625	386,997
수지차	보험영업	-1,284	-3,736	-5,293	-9,365	2,412	-2,052	-7,710
	투자영업	8,786	16,355	23,745	31,413	8,992	18,189	27,968
	기 타	-467	-686	-1,124	-1,335	182	700	389
	소 계	7,035	11,934	17,327	20,713	11,586	16,837	20,647
법 인 세		1,645	2,877	4,294	5,299	2,717	4,032	5,228
당기순이익		5,390	9,056	13,033	15,414	8,870	12,805	15,420

주 :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누적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0 3/4분기 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전년 동기대비 3.5%p 상승한 80.2%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매출 확대에 의한 경과보험료 증가와 발생손해액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한 81.6%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차량운행 및 사고 증가로 발생손해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6.9%p 증가한 85.9%를 기록하면서 악화됨.

■ FY2010 3/4분기 사업비율은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8%p 낮아진 21.7%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저축성보험 중심의 고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순사업비와 보유보험료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17.4%를 기록함.

〈표 20〉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78.9	78.5	80.1	81.5	79.8	81.3	81.3	81.6
	자동차보험	71.0	74.1	79.0	78.6	75.7	75.7	82.5	85.9
	화재보험	32.4	37.1	54.3	39.9	32.0	21.2	50.1	-7.2
	해상보험	82.4	89.0	85.4	81.9	77.4	36.1	55.2	143.6
	보증보험	66.1	47.9	31.5	88.0	58.0	-98.2	70.9	27.8
	특종보험	61.4	67.2	63.0	57.4	62.4	52.8	66.4	62.2
	해외원보험	39.2	29.0	29.0	35.2	32.7	42.6	36.1	43.8
	해외수재보험	57.9	60.0	60.2	59.3	59.3	71.8	51.1	82.3
전 체		74.2	74.9	76.7	78.2	76.0	72.8	79.3	80.2
사업비율		24.8	25.2	22.5	22.8	23.8	21.9	22.3	21.7
합산비율		98.9	100.1	99.1	100.9	99.8	94.6	101.6	101.9

주 : 1)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순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성장세 확대로 보유보험료의 증가율이 순사업비의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5%p 감소한 30.2%를 시현함.

■ FY2010 3/4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상승함에 따라 101.9%로 높게 나타남.

- 합산비율은 사업비율이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8%p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3.5%p 높아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8%p 상승함.

라. 자산운용

■ FY2010 3/4분기 일반계정 자산에서 각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증권 53.0%, 대출채권 18.5%, 부동산 6.2%, 현금과예금 5.1%의 순으로 나타남¹⁰⁾.

- 유가증권의 구성비는 매도가능증권 44.6%, 만기보유증권 4.0%, 단기매매증권 3.0%, 투자주식 1.3%로 나타남.

10)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이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만을 포함시켰고 비운용자산 비중은 논의에서 제외함.

〈표 21〉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 원)

구 분	FY2009				FY2010					
	3/4		4/4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5.5	1.4	5.1	1.6	5.3	5.0	5.4	3.4	5.1	3.4
유 가 증 권	52.1	5.7	52.9	5.6	53.3	5.4	53.8	5.4	53.0	5.7
○ 단기매매증권	2.3	7.9	3.0	6.5	3.1	2.9	4.6	5.0	3.0	5.5
- 주 식	0.2	54.2	0.2	38.5	0.3	2.0	0.3	10.0	0.2	14.2
- 채 권 등	0.3	9.3	0.4	7.0	0.4	7.7	0.6	9.9	0.4	4.5
- 수익증권	1.8	5.1	2.4	4.9	2.4	2.1	3.6	3.7	2.4	4.7
○ 매도가능증권	44.5	5.6	44.6	5.4	44.8	5.4	44.0	5.5	44.6	5.7
- 주 식	4.9	11.0	4.9	9.7	4.3	6.5	4.3	6.6	4.9	7.5
- 채 권 등	28.8	5.5	28.5	5.6	29.0	5.2	28.3	5.4	28.5	5.5
- 수익증권	10.9	3.2	11.2	3.1	11.5	5.5	11.4	5.2	11.2	5.7
○ 만기보유증권	3.9	5.1	4.0	6.1	4.2	5.7	4.0	5.5	4.0	6.2
- 채 권 등	3.7	5.3	3.8	6.4	3.9	5.6	3.7	5.7	3.8	6.3
- 수익증권	0.2	1.6	0.2	2.6	0.3	7.3	0.3	2.5	0.2	4.8
○ 투자주식	1.4	7.5	1.3	5.5	1.3	7.1	1.3	6.0	1.3	4.1
대 출 채 권	18.6	6.3	18.5	6.4	18.0	6.2	18.0	6.1	18.5	6.1
부 동 산	6.3	0.8	6.2	0.9	6.0	1.3	5.9	1.1	6.2	0.9
운 용 자 산 계	82.6	5.1	82.7	5.1	82.6	5.2	83.1	5.1	82.7	5.3
비 운 용 자 산	17.4	0.0	17.3	0.0	17.4	0.0	16.9	0.2	17.3	0.1
일반계정 자산계	100.0	4.2	100.0	4.2	100.0	4.3	100.0	4.2	100.0	4.3
일 반 계 정 자 산	96.4	4.2	96.2	4.2	96.3	4.3	96.4	4.2	96.2	4.3
특 별 계 정 자 산	3.6	-	3.8	-	3.7	-	3.6	-	3.8	-
총 자 산	100.0	4.0	100.0	4.0	100.0	4.1	100.0	4.1	100.0	4.2
총 자 산 규 모	829,558		861,222		902,218		944,186		860,784	

주 : 1)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 환산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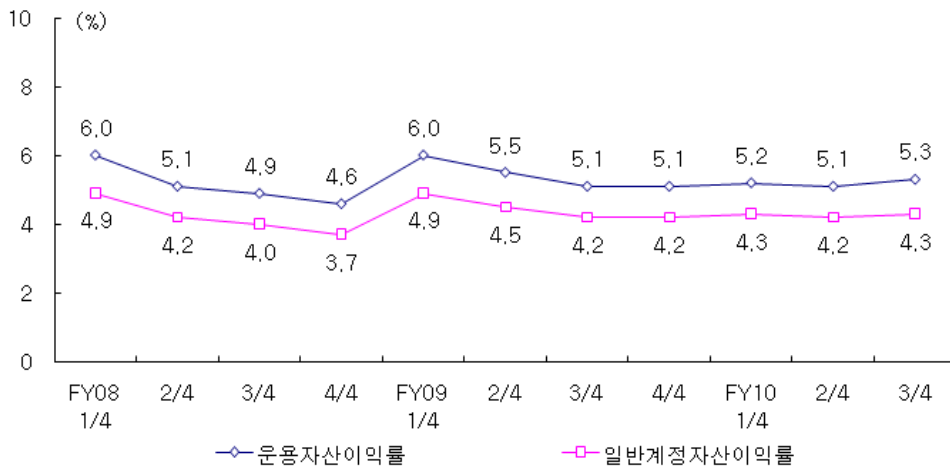
■ FY2010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투자이익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금과예금 이익률이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5.3%를 나타냄.

○ 단기매매증권의 투자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2.4%p 감소한 5.5%를 나타낸 반면 만기보유증권의 투자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1%p 증가한 6.2%를 기록했으며, 현금과예금의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2.0%p 증가한 3.4%를 나타냄.

■ FY2010 3/4분기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을 포괄한 일반계정자산의 투자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한 4.3%로 나타남.

○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하면서 일반계정자산 투자이익률도 증가함.

〈그림 4〉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0 3/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임직원과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증가한 반면 대리점과 설계사 채널 비중은 감소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9%p 증가한 20.9%를 기록한 반면, 대리점과 설계사 채널 비중은 임직원 채널 비중 확대의 영향으로 각각 0.6%p, 2.4%p 감소한 42.4%, 29.4%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저축형보험과 개인연금이 일시납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한 6.2%를 나타냄.

〈표 22〉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임직원	15,043	12,057	21,568	16,057	64,725	16,892	15,250	30,526
	15.0	11.5	18.0	14.2	14.8	14.0	12.5	20.9
설계사	32,752	36,416	37,202	39,523	145,894	40,166	41,265	43,085
	32.7	34.6	31.0	35.0	33.3	33.2	33.7	29.4
대 리 점	45,403	49,505	53,814	48,862	197,584	54,290	55,964	62,068
	45.4	47.1	44.8	43.2	45.1	44.9	45.7	42.4
중개사	829	909	978	656	3,372	905	971	1,402
	0.8	0.9	0.8	0.6	0.8	0.7	0.8	1.0
방카슈랑스	5,721	5,997	5,974	7,280	24,971	8,404	8,754	9,040
	5.7	5.7	5.0	6.4	5.7	7.0	7.2	6.2
공동인수	290	228	580	680	1,777	172	200	200
	0.3	0.2	0.5	0.6	0.4	0.1	0.2	0.1
전 체	100,038	105,111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0 3/4분기 말 손해보험의 모집조직은 임직원 수가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설계사 및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는 등기임원의 수가 소폭 감소한 반면 비등기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194명 증가한 2만 9,400명으로 집계됨.

○ 설계사 수는 전속 및 교차설계사 수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1,218명 감소한 16만 1,767명을 기록함.

- 전속설계사 수가 상위 4사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감소했고, 교차설계사의 수는 경기 회복에 따른 타직종 이직 및 독립법인대리점(GA) 이동에 기인하여 감소함.

○ 대리점 수는 독립법인대리점(GA)의 활성화 및 대리점 대형화 추세로 법인대리점 수는 증가하고 개인대리점 수는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416개 줄어든 4만 2,927개로 나타남.

〈표 23〉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1/4	2/4	3/4
임직원	28,271	28,317	28,563	28,796	28,917	29,206	29,400
설계사	161,615	164,383	167,539	164,203	162,693	162,985	161,767
- 전속	87,963	84,487	86,856	83,020	83,562	83,765	83,597
- 교차	73,652	79,896	80,683	81,183	79,131	79,220	78,170
대리점	46,607	46,238	46,070	45,049	44,139	43,343	42,927
- 개인	35,513	34,674	34,359	32,976	32,270	31,650	31,003
- 법인	11,094	11,564	11,711	12,073	11,869	11,693	11,924

주 :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 미국 동향¹⁾

가. 생명보험

■ 2010년 4/4분기(10~12월)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²⁾는 정기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의 두자리수 성장으로 2% 증가함.

○ 연납화 보험료의 2010년 누적 성장률은 4%로 나타났으나 보험료 수준은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의 영향으로 2003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들어 계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생명보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정기보험은 4/4분기에도 16% 감소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회복세를 보였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연납화 보험료도 큰 폭(25%)으로 감소함.

- 정기보험의 연납화 보험료는 전체 보험사 중 25%(상위 20개사 중 4개사)만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보험사에서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험료 인상과 소극적 마케팅에 기인한 것임.

○ 금융위기 이후 미국 생명보험 연납화 보험료 감소의 주요 요인은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부진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정기보험의 부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미국 손해보험 동향은 통계자료가 미발표 중이므로 다음 호에 게재함.

2)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일시납보험료×10%+정기납보험료

○ 유니버설보험은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중 60% (상위 20개사 중 15개사)에서 보험료가 증가하였음.

- 적립부분이 소진되더라도 위험보장이 지속되는 long-term secondary guarantees 특약이 부가되지 않은 상품의 성장률이 27%로 높게 나타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성장률 추이

(단위 : %, 백만 달러)

구 분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유니버설	-3	-20	41	17	11	8	13	10	42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36	-49	9	10	2	-6	-25	-7	8
정기	1	-1	26	-4	-11	-16	-16	-12	22
종신	12	4	24	15	23	6	14	15	28
계	-5	-16	100	10	7	0	2	4	100
연납화 보험료	2,662	9,240		2,216	2,408	2,306	2,704	9,541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LIMRA(2011.3),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표 2〉 미국 신규 보험계약건수 증가율 추이

(단위 : %, 천 건)

구 분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15	5	15	21	22	23	20	21	16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42	-48	2	-15	-7	-14	-14	-13	1
정기	-1	-3	46	-5	-11	-16	-16	-12	39
종신	6	0	37	1	8	-7	6	2	44
계	3	-2	100	0	1	-7	-2	-2	100
전체 건수	1,572	6,247		1,565	1,553	1,454	1,535	6,107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LIMRA(2011.3),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연납화 보험료의 종목별 연간 누적 비중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니버설 보험의 비중이 42%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신보험 28%, 정기보험 22%, 변액유니버설보험 8% 순으로 나타남.

- 유니버설보험 비중은 1990년대 20%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40%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종신보험 비중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50% 수준에 달하였으나 최근 30% 내외로 하락함.
- 정기보험 비중은 1990년대 10%대 수준에서 2000년대 20%대 중반으로 높아졌으며, 변액유니버설보험 비중은 1999년 31%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2010년에는 8%로 하락함.

〈표 3〉 미국 생명보험 상품별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1979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2010
종신보험	84	55	53	48	29	24	27	28
정기보험	16	12	13	14	21	23	27	22
유니버설	0	30	27	22	19	37	39	42
변액유니버설	0	3	7	16	31	16	7	8

자료 : LIMRA(2011.3),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0년 4/4분기 미국 개인연금에 대한 신규보험료는 전분기대비 3.7% 증가한 561억 달러로 나타났으나, 연간 기준으로 보면 전년대비 7.8% 감소하면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4/4분기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하면서 2008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9.8% 성장함.
- 4/4분기 정액연금은 0.5%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성장 흐름을 벗어났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2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 10억 달러, %)

구 분		CY2009			C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변액연금	보험료	31.9	33	128	32.4	35.5	34.9	38.5	140.5
	성장률	-15.6	-2.4	-17.9	4.5	10.6	9.4	16.7	9.8
	비 중	57.5	61.0	53.6	63.0	62.3	62.2	68.6	63.8
정액연금	보험료	23.6	21.1	110.6	19.0	21.5	21.2	21.2	80.8
	성장률	-16.3	-39.4	0.5	-48.2	-26.4	-10.2	0.5	-26.9
	비 중	42.5	39.0	46.4	37.0	37.7	37.8	37.8	36.7
합 계	보험료	55.5	54.1	238.6	51.4	57.0	56.1	56.1	220.1
	성장률	-15.9	-21.1	-10.3	-24.1	-7.0	1.1	3.7	-7.8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LIMRA(2011, 3), *U.S. Individual Annuities*

■ 개인연금 판매 현황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전속설계사와 독립중개인이 각각 2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립설계사가 18%,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 등이 각각 14%, 14%, 7%로 나타남.

○ 변액연금에서는 독립중개인의 비중이 2005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중(30.1%)을 차지하였으며, 정액연금에서는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가장 높게(45.3%) 나타남.

〈표 5〉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

구 분	CY2009		CY2010			
	3/4	4/4	1/4	2/4	3/4	4/4
은행	19	19	15	16	15	14
전속설계사	20	21	20	21	21	21
직접판매	8	8	9	8	7	7
독립중개인	19	19	20	21	20	21
독립설계사	17	17	19	18	20	18
증권중개인	13	13	12	12	13	14
기 타	4	4	4	4	4	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LIMRA(2011, 3),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0년 4/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변경권이 있는 Guaranteed Renewable³⁾의 성장이 둔화되고 Non-cancellable⁴⁾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2.1% 감소함.

○ Guaranteed Renewable은 지난 두 분기 연속 두 자리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4/4분기에는 3.3% 성장에 그쳤으며, Non-cancellable은 5.3% 감소함에 따라 신규보험료 감소 추세를 지속함.

○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Guaranteed Renewable은 6.2% 성장한 반면 비중이 높은 Non-cancellable 부문에서 7.0%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8% 감소함.

〈표 6〉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 건, 천 달러, %)

구 분			CY2009			C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계 약 건 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57,920	80,328	315,627	105,731	74,268	83,742	80,365	344,106
		성장률	-25.0	0.6	-5.9	0.6	2.7	44.6	0.0	9.0
		구성비	58.5	66.7	67.6	77.5	69.2	69.0	67.3	71.0
	Non-cancellable	건 수	41,160	40,073	150,980	30,775	33,110	37,552	39,043	140,480
		성장률	-10.6	-6.5	-13.3	-8.0	-8.8	-8.8	-2.6	-7.0
		구성비	41.5	33.3	32.4	22.5	30.8	31.0	32.7	29.0
	전 체	건 수	99,080	120,401	466,607	136,506	107,378	121,294	119,408	484,586
		성장률	-19.6	-1.9	-8.4	-1.4	-1.1	22.4	-0.8	3.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45,356	49,365	198,768	60,396	48,896	50,856	50,985	211,133
		성장률	-8.4	-5.7	-5.9	-1.3	14.1	12.1	3.3	6.2
		구성비	36.1	38.0	39.7	49.2	42.2	40.4	40.1	42.9
	Non-cancellable	보험료	80,199	80,584	301,867	62,468	66,959	74,967	76,277	280,671
		성장률	-6.0	-6.6	-9.7	-7.2	-9.2	-6.5	-5.3	-7.0
		구성비	63.9	62.0	60.3	50.8	57.8	59.6	59.9	57.1
	전 체	보험료	125,555	129,949	500,635	122,864	115,855	125,824	127,261	491,804
		성장률	-6.9	-6.2	-8.2	-4.4	-0.6	0.2	-2.1	-1.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LIMRA(2011, 3),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3) Guaranteed Renewable :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4) Non-cancellable :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일본 동향)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0 3/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개인연금보험과 단체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개인보험의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는 모습을 시현함.

〈표 1〉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 억 엔, 전년동기대비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개 인 성	개 인	금 액	162,902	161,293	629,077	156,984	169,250	172,207
		성장률	11.9	19.4	11.0	8.4	5.7	5.7
		구성비	87.3	84.6	84.8	84.8	87.4	90.1
	- 사 망	금 액	131,594	129,484	504,301	126,766	137,729	141,569
		성장률	8.3	15.6	7.5	10.3	7.3	7.6
		구성비	70.5	67.9	68.0	68.5	71.1	74.1
	- 생사혼합	금 액	29,924	30,545	119,634	28,920	30,278	29,191
		성장률	32.1	42.6	31.0	1.0	-0.8	-2.5
		구성비	16.0	16.0	16.1	15.6	15.6	15.3
	- 생 존	금 액	1,384	1,264	5,142	1,298	1,243	1,447
		성장률	-5.3	-28.1	-15.3	3.9	-0.1	4.6
		구성비	0.7	0.7	0.7	0.7	0.6	0.8
	개인연금	금 액	19,642	21,916	83,265	17,627	19,708	16,135
		성장률	31.6	29.7	12.3	-13.3	-7.8	-17.9
		구성비	10.5	11.5	11.2	9.5	10.2	8.4
단체보험		금 액	3,964	7,322	29,269	10,422	4,689	2,807
		성장률	-50.0	-28.3	-34.5	18.9	-49.1	-29.2
		구성비	2.1	3.8	3.9	5.6	2.4	1.5
합 계		금 액	186,549	190,578	741,757	185,072	193,667	191,174
		성장률	10.7	17.4	8.2	6.4	1.6	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1)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 개인보험은 생사혼합보험이 전년동기대비 2.5% 하락하였으나 74%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망보험이 7.6% 증가함으로써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함.
 - 사망보험은 정기보험, 변액보험(종신형, 정기형), 이율변동형적립종신보험 모두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나 종신보험과 정기부종신보험²⁾이 전분기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
 - 생사혼합보험은 양로보험, 정기부양로보험, 변액보험(기간확정형) 등 대부분의 종목이 부진을 보임에 따라 신규계약이 2.5% 감소함.
- 개인연금보험은 정액·변액연금보험 모두 수익률 저조로 보험회사와 은행의 판매가 부진해짐에 따라 감소폭이 확대됨.
- 단체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단체정기보험, 단체신용보험 등 모든 종목이 내수경기 부진 장기화에 영향을 받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임.

〈자산 현황〉

- FY2010 3/4분기 말 총자산 규모는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기타 자산들도 전분기에 비해 가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음에 따라 2/4분기와 비슷한 318조 엔을 기록함.
 - 운용자산 규모는 유가증권 가치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출금과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전분기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유가증권은 국채 및 지방채 매입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유지됨으로써 전분기와 다른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 국채 및 지방채의 가치가 전분기대비 각각 0.3%, 0.9% 증가하는 가운데 주식가치는 2.9% 증가하였으나 유가증권 전체 규모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임.
 - 대출금의 규모는 일반대출금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0.8%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2) 정기부종신보험(定期附終身保險)은 피보험자의 일생동안 보장이 계속되는 종신보험에 정기보험을 일정기간(20년 또는 60세 등) 추가해 그 기간 내의 사망보장을 강화한 혼합형 보험으로 유족보장을 주목적으로 함.

〈표 2〉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 엔, 전기대비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38,597	-18.7	49,951	29.4	33,073	-33.8	42,241	27.7	28,765	-31.9
단기자금	25,211	-1.1	21,393	-15.1	20,428	-4.5	21,264	4.1	22,249	4.6
매입금전채권	31,726	-1.0	31,970	0.8	32,972	3.1	32,778	-0.6	32,146	-1.9
금전신탁	24,131	-11.2	22,051	-8.6	22,462	1.9	20,428	-9.1	20,478	0.2
유가증권	2,406,334	0.9	2,441,501	1.5	2,423,965	-0.7	2,465,755	1.7	2,469,106	0.1
- 국 채	1,250,472	1.0	1,279,888	2.4	1,290,118	0.8	1,311,052	1.6	1,315,255	0.3
- 지방채	106,731	3.4	109,679	2.8	111,249	1.4	114,033	2.5	115,055	0.9
- 사 채	271,512	-0.8	264,538	-2.6	265,474	0.4	265,240	-0.1	261,014	-1.6
- 주 식	180,283	-2.3	186,618	3.5	170,497	-8.6	163,027	-4.4	167,731	2.9
- 외화증권	431,720	1.9	429,571	-0.5	425,960	-0.8	447,978	5.2	444,877	-0.7
대출금	486,072	-1.2	468,953	-3.5	462,290	-1.4	452,978	-2.0	449,448	-0.8
부동산	66,510	-1.3	67,205	1.0	66,301	-1.3	68,500	3.3	68,192	-0.4
운용자산	3,085,527	0.0	3,113,410	0.9	3,071,987	-1.3	3,115,005	1.4	3,107,627	-0.2
총자산	3,155,902	0.0	3,183,802	0.9	3,150,994	-1.0	3,184,275	1.1	3,183,287	0.0

-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0 2/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화재·상해보험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7% 하락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시현함.

〈표 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 억 엔,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3,895	2,540	13,982	3,316	3,163	3,441
	성장률	4.1	-3.4	-0.3	-2.4	-3.9	-11.7
	구성비	19.7	17.9	18.0	16.2	16.6	17.9
해 상	보험료	448	484	1,858	514	483	473
	성장률	-19.4	5.8	-19.0	7.1	8.1	5.7
	구성비	2.3	2.6	2.4	2.5	2.5	2.5
운 송	보험료	156	150	626	166	144	151
	성장률	-10.5	-6.4	-9.5	-2.6	-3.3	-3.3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8,615	8,434	34,135	8,805	8,376	8,643
	성장률	-0.8	-0.1	-1.0	0.4	0.8	0.3
	구성비	43.6	44.5	43.9	43.1	44.0	44.9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006	1,974	8,058	2,164	2,189	1,897
	성장률	3.7	4.4	-7.2	2.7	1.8	-5.5
	구성비	10.1	10.4	10.4	10.6	10.5	9.9
상 해	보험료	2,577	2,349	10,256	2,943	2,686	2,482
	성장률	-1.2	1.6	-7.6	7.7	3.4	-3.7
	구성비	13.0	12.4	13.2	14.4	14.1	12.9
특 종	보험료	2,075	2,156	8,922	2,529	2,189	2,145
	성장률	4.7	4.8	4.5	0.7	0.4	3.4
	구성비	10.5	11.4	11.5	12.4	11.5	11.2
합 계	보험료	19,771	18,943	77,837	20,437	19,048	19,232
	성장률	0.5	0.6	-2.5	1.3	0.5	-2.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의 1/2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아 각각 둔화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해상보험은 수출입 증가에 따른 적하보험의 호조세로 5.7% 증가한 반면 화재보험은 지진을 포함한 모든 종목이 부진하였으며 운송보험은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함.
- 특종보험은 동산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개호비용보험의 견조한 성장과 배상책임보험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함으로써 성장세가 가속되는 모습임.

〈지급보험금 현황〉

- FY2010 3/4분기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자동차보험금의 증가세 둔화, 화재·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됨.
- 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7% 증가한데 그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며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도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음.
- 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모든 종목에서 하락세를 시현하였고 해상보험은 적하보험의 대폭 감소로 인해 하락세가 확대됨.
- 특종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종합동산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주요 종목인 배상책임보험과 비용·이익보험이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함.

〈자산 현황〉

- FY2010 3/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1.5% 감소한 29조 6천억 엔으로 현금·예금, 단기자금, 매입금전신탁 등 단기자금 보유가치가 하락한데 기인함.
- 유가증권은 국채와 지방채의 보유가치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 4.9%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소폭 상승으로 주식가치가 5.3%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함.
- 반면 대출금은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하였고 현금·예금, 단기자금은 각각 12.6%, 38.2% 감소함.

〈표 4〉 일본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 억 엔,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금	1,073	988	3,746	915	771	830
	증가율	-0.4	-7.6	-5.9	11.2	-10.6	-22.6
	구성비	9.7	8.9	8.6	8.6	7.3	7.6
해 상	보험금	332	258	1,112	274	260	215
	증가율	6.2	-20.4	-2.9	12.6	-6.8	-35.1
	구성비	3.0	2.3	2.6	2.6	2.5	2.0
운 송	보험금	62	64	254	63	66	79
	증가율	-16.8	-5.8	-12.7	-2.1	3.3	27.5
	구성비	0.6	0.6	0.6	0.6	0.6	0.7
자동차	보험금	5,614	5,688	21,761	5,372	5,494	5,712
	증가율	0.7	3.1	0.9	3.4	4.4	1.7
	구성비	50.7	51.1	50.0	50.7	52.2	52.2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금	1,955	2,062	7,955	1,971	1,974	1,955
	증가율	-2.5	2.6	-1.5	-0.2	0.6	0.0
	구성비	17.7	18.5	18.3	18.6	18.8	17.9
상 해	보험금	902	884	3,508	869	886	903
	증가율	-0.6	6.4	2.3	0.9	3.0	0.0
	구성비	8.2	7.9	8.1	8.2	8.4	8.3
특 종	보험금	1,126	1,182	5,199	1,126	1,076	1,244
	증가율	-6.2	-29.6	-2.0	-14.7	-31.5	10.5
	구성비	10.2	10.6	11.9	10.6	10.2	11.4
합 계	보험금	11,064	11,126	49,536	10,590	10,527	10,938
	증가율	-0.8	-3.2	-0.6	1.0	-3.1	-1.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금, 신종보험을 각각 지급보험금,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표 5〉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 엔, %)

구 분		FY2009				FY2010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7,324	-11.7	9,335	27.5	7,563	-19.0	9,007	19.1	7,871	-12.6
단 기 자 금		3,632	-5.6	3,343	-7.9	3,677	10.0	4,040	9.9	2,498	-38.2
매입금전채권		12,133	32.4	12,952	6.8	14,511	12.0	11,362	21.7	9,511	-16.3
금 전 신 탁		1,137	2.4	1,130	-0.6	1,085	-4.1	1,093	0.8	1,184	8.3
유가증권	국 채	48,392	-1.9	49,560	2.4	50,150	1.2	51,191	2.1	52,017	1.6
	지 방 채	6,286	-0.1	6,104	-2.9	5,740	-6.0	5,350	-6.8	5,613	4.9
	회 사 채	38,660	-1.1	38,093	-1.5	37,242	-2.2	35,875	-3.7	34,241	-4.6
	주 식	71,539	0.9	74,527	4.2	63,857	-14.3	63,302	-0.9	66,666	5.3
	외화증권	50,795	1.3	49,639	-2.3	48,508	-2.3	47,919	-1.2	47,788	-0.3
	기타증권	4,516	0.1	4,398	-2.6	4,141	-5.8	4,047	-2.3	3,486	-13.9
	소 계	220,188	0.0	222,321	1.0	209,637	-5.7	207,683	-0.9	209,810	1.0
대 출 금		24,481	-0.9	23,738	-3.0	23,452	-1.2	23,098	-1.5	22,547	-2.4
부 동 산		11,042	-1.5	10,984	-0.5	10,965	-0.2	10,877	-0.8	10,788	-0.8
운 용 자 산		283,246	0.7	286,090	1.0	272,720	-4.7	270,310	-0.9	266,718	-1.3
총 자 산		311,713	0.7	314,956	1.0	303,928	-3.5	301,028	-1.0	296,503	-1.5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기타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 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험과 단체정보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정보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정보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 중국 동향)

가. 주요 경영지표

〈수입보험료 현황〉

■ 2010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 성장세를 지속하며 전년동기대비 25.3% 증가한 3,204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10년 기준으로도 30.4% 증가한 1조 4,528억 위안을 나타내면서 고성장함.

-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내수경기 호조, 수출입 물량 증가, 건설경기 활성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급증세를 이어감.
- 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비중이 큰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이 전년동기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각 18.5%, 11.4% 성장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8.2% 증가함.

〈표 1〉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료	642	2,876	995	1,023	937	941	3,896
	성장률	29.3	23.1	38.4	29.0	29.8	46.6	35.5
인보험	보험료	1,915	8,261	3,547	2,434	2,389	2,263	10,632
	성장률	42.1	10.9	38.7	27.0	27.6	18.2	28.7
- 생명보험	보험료	1,734	7,457	3,292	2,179	2,154	2,054	9,680
	성장률	44.2	12.0	39.5	28.1	29.5	18.5	29.8
- 건강보험	보험료	136	574	185	180	161	152	677
	성장률	32.2	-2.0	31.5	16.6	12.7	11.4	18.0
- 상해보험	보험료	45	230	70	75	73	56	275
	성장률	4.8	13.0	20.0	23.7	10.9	26.7	19.7
합 계	보험료	2,557	11,137	4,541	3,457	3,326	3,204	14,528
	성장률	38.6	13.8	38.6	27.6	28.2	25.3	30.4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 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지급보험금 현황〉

■ 2010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지급보험금 규모는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한 938억 위안은 기록했으며, 2010년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3,200억 위안을 나타냄.

○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차량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증가로 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21.1% 급증한 556억 위안을 나타냄.

○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하고 건강 및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도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8.0% 증가한 382억 위안을 나타냄.

- 2010년 기준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올해 초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의 감소세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한 1,444억 위안을 기록함.

〈표 2〉 중국 보험산업 지급보험금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금	459	1,576	364	395	441	556	1,756
	증가율	5.1	11.1	3.5	8.9	9.6	21.1	11.4
인보험	보험금	324	1,550	368	346	348	382	1,444
	증가율	5.5	-0.2	-22.0	-18.0	4.9	18.0	-6.8
- 생명보험	보험금	253	1,269	290	269	263	287	1,109
	증가율	5.5	-3.5	-28.1	-24.1	2.0	13.3	-12.6
- 건강보험	보험금	55	217	62	60	66	76	264
	증가율	9.2	23.8	13.8	16.8	17.1	38.6	21.7
- 상해보험	보험금	16	64	17	16	19	20	71
	증가율	-4.9	2.2	11.7	5.5	8.0	21.5	11.7
합 계	보험금	783	3,125	732	741	789	938	3,200
	증가율	5.3	5.2	-11.1	-5.6	7.5	19.8	2.4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요 경영실적〉

- 2010년 4/4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총수입보험료와 사업비 규모는 각각 3,204억 위안, 493억 위안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25.3%, 27.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매분기 보험산업의 고성장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계약이 증가하면서 사업비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함.
- 2010년 4/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큰 폭의 시장 성장으로 보험료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투자여건의 개선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분기대비 5.2% 증가한 5조 482억 위안을 시현함.
 - 투자금 규모는 유동성 증대로 인한 투자여건 개선으로 채권, 주식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했으며 대기자금 성격의 은행 예치금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함.

〈표 3〉 중국 보험산업 주요 경영실적 현황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입보험료	보험료	2,557	11,137	4,541	3,457	3,326	3,204	14,528
	증가율	38.6	13.8	38.6	27.6	28.2	25.3	30.4
사업비	금 액	386	1,234	320	357	369	493	1,538
	증가율	18.0	14.3	22.1	27.0	20.9	27.7	24.7
예치금	금 액	10,520	10,520	11,595	12,700	13,070	13,910	13,910
	증가율	4.6	30.1	10.2	9.5	2.9	6.4	32.2
투자금	금 액	26,897	26,897	27,943	28,954	31,253	32,137	32,137
	증가율	11.0	19.7	3.9	3.6	7.9	2.8	19.5
총자산	금 액	40,635	40,635	42,929	45,235	47,995	50,482	50,482
	증가율	7.3	21.6	5.6	5.4	6.1	5.2	24.2

주 : 1) 총수입보험료 및 사업비는 실적치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은 누적치임.

2) 총수입보험료, 사업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지역별 및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지역별 시장점유율〉

- 2010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지역별 시장점유율은 광둥성이 8.5%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강소성 7.5%, 북경시 7.3%의 순으로 나타남.
 - 광둥성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한 271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강소성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6.1% 성장한 242억 위안을 나타냄.
 - 대도시인 북경시와 상해시도 전년동기대비 24.7%, 24.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각각 7.3%, 6.4%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표 4> 중국 지역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북 경	186	7.8	698	6.5	284	6.2	227	6.6	223	6.7	232	7.3	966	6.7
천 진	36	1.4	151	1.3	63	1.4	51	1.5	49	1.5	50	1.6	214	1.5
하 북	129	5.5	601	5.7	231	5.1	191	5.5	165	5.0	159	5.0	746	5.1
요 녕	79	3.4	345	3.1	135	3.0	114	3.3	106	3.2	98	3.1	454	3.1
대 련	29	1.2	116	1.0	44	1.0	35	1.0	35	1.1	37	1.1	151	1.0
상 해	165	6.6	665	6.2	272	6.0	205	5.9	202	6.1	205	6.4	884	6.1
강 소	192	7.1	908	8.2	414	9.1	249	7.2	258	7.8	242	7.5	1,163	8.0
절 강	121	3.8	538	4.1	229	5.0	160	4.6	150	4.5	152	4.7	690	4.8
영 파	26	0.7	107	0.7	41	0.9	34	1.0	34	1.0	35	1.1	144	1.0
북 건	55	2.1	272	2.4	109	2.4	83	2.4	78	2.4	76	2.4	346	2.4
하 문	13	0.4	58	0.5	23	0.5	19	0.5	19	0.6	17	0.5	78	0.5
산 동	154	6.1	678	6.1	245	5.4	221	6.4	208	6.3	202	6.3	876	6.0
청 도	28	1.0	115	1.0	43	0.9	39	1.1	37	1.1	36	1.1	154	1.1
광 동	222	8.5	960	8.7	391	8.6	282	8.2	288	8.7	271	8.5	1,232	8.5
심 천	70	2.4	272	2.1	93	2.1	89	2.6	86	2.6	94	2.9	361	2.5
해 남	8	0.3	33	0.3	13	0.3	13	0.4	11	0.3	11	0.3	48	0.3
산 서	60	2.4	289	2.7	114	2.5	88	2.5	87	2.6	76	2.4	365	2.5
길 림	38	1.7	185	1.7	68	1.5	65	1.9	55	1.7	50	1.6	239	1.6
흑룡강	53	2.3	278	2.7	92	2.0	88	2.5	91	2.7	72	2.3	343	2.4
안 휘	79	3.1	357	3.3	168	3.7	92	2.6	93	2.8	85	2.7	438	3.0
강 서	39	1.6	187	1.7	91	2.0	58	1.7	54	1.6	50	1.6	253	1.7
하 남	137	6.1	565	5.7	258	5.7	187	5.4	173	5.2	175	5.5	793	5.5
호 북	86	3.8	372	3.7	167	3.7	114	3.3	110	3.3	110	3.4	500	3.4
호 남	76	3.2	348	3.3	136	3.0	105	3.0	103	3.1	94	2.9	439	3.0
중 경	53	2.2	245	2.4	111	2.4	75	2.2	73	2.2	62	1.9	321	2.2
사 천	144	5.4	579	5.2	260	5.7	176	5.1	166	5.0	163	5.1	766	5.3
귀 주	22	0.8	95	0.7	36	0.8	32	0.9	29	0.9	25	0.8	123	0.8
운 남	39	1.2	180	1.4	67	1.5	59	1.7	58	1.7	51	1.6	236	1.6
티 벳	1	0.0	4	0.0	1	0.0	1	0.0	1	0.0	1	0.0	5	0.0
섬 서	62	2.6	260	2.4	97	2.1	80	2.3	77	2.3	80	2.5	334	2.3
감 숙	26	1.1	114	1.1	45	1.0	37	1.1	31	0.9	33	1.0	146	1.0
청 해	4	0.1	18	0.1	7	0.1	7	0.2	6	0.2	6	0.2	26	0.2
영 하	9	0.3	39	0.3	15	0.3	13	0.4	12	0.4	12	0.4	53	0.4
신 강	34	1.4	157	1.3	57	1.3	54	1.6	40	1.2	40	1.2	191	1.3
내몽고	35	1.3	171	1.3	56	1.2	58	1.7	57	1.7	44	1.4	216	1.5
광 서	31	1.1	149	1.2	58	1.3	46	1.3	45	1.4	42	1.3	191	1.3
그룹본사	17	0.0	25	0.0	7	0.1	10	0.3	13	0.4	13	0.4	43	0.3
합 계	2,557	100.0	11,137	100.0	4,541	100.0	3,457	100.0	3,326	100.0	3,204	100.0	14,528	100.0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그룹본사는 특정 지역에 귀속되지 않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0년 4/4분기 인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사의 비중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 및 외자계의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집중도는 점차 완화 추세를 보임.

○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위 5개사 가운데 평안생명과 중국인민보험공사가 업계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으나 나머지 3개사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4.7%p 하락한 69.5%를 나타냄.

- 3/4분기까지 업계 6위를 기록했던 중국인민보험공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58.1%의 고성장에 힘입어 8.1%를 기록하면서 전체 5위로 상승함.

○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1%p 증가한 23.6%를 기록했으며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한 6.9%를 나타냄.

- 3/4분기까지 업계 5위를 기록했던 타이캉생명은 성장률 감소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함에 따라 중소형사로 분류됨.

■ 2010년 4/4분기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개사 비중이 확대된 반면 중소형사 및 외자계회사들의 비중은 축소되면서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시장집중도가 더욱 강화됨.

○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은 제1의 손해보험회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이 49.8%의 고성장을 나타내고 비중이 큰 평안재산보험과 타이핑양재산보험도 70%를 넘는 고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5%p 증가한 67.0%를 나타냄.

○ 중소형사와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뚜렷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대형사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5.4%p, 0.1%p 감소한 31.9%, 1.1%를 나타냄.

〈표 5〉 중국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4.2	77.2	75.6	73.5	71.7	69.5	72.8
		중소형사	19.5	17.6	19.5	21.0	22.6	23.6	21.6
		소 계	93.7	94.8	95.1	94.6	94.3	93.1	94.4
	외자계		6.3	5.2	4.9	5.4	5.7	6.9	5.6
손해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1.5	64.2	67.6	65.0	66.2	67.0	66.4
		중소형사	37.3	34.7	31.4	33.9	32.7	31.9	32.5
		소 계	98.8	98.9	99.0	99.0	98.9	98.9	98.9
	외자계		1.2	1.1	1.0	1.0	1.1	1.1	1.1

주 :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생명, 평안생명, 신화생명, 타이핑양생명, 타이강생명 등임.

3) 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는 중국인민재산, 평안재산, 타이핑양재산 등임.

4)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5)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6)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 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지역별 시장점유율 분석은 전국수입보험료현황표(全國各地區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를 활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로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유럽 동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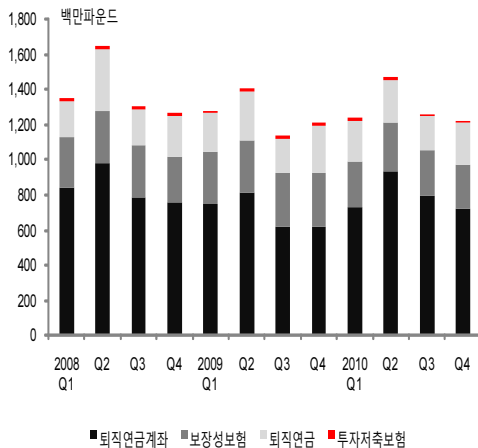
가. 영국의 생명보험시장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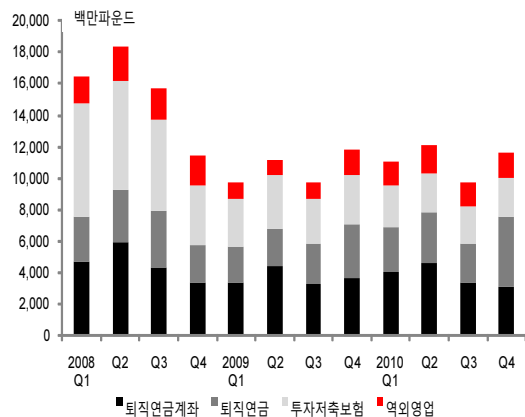
■ 2010년 4/4분기 중 신규보험료는 분할납 신규보험료의 증가세 정체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하락세로 인해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계좌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퇴직연금이 하락세로 반전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2억 3천만 파운드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로 반전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5% 하락한 116억 9천만 파운드에 그침.

〈그림 1〉 생명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



〈그림 2〉 생명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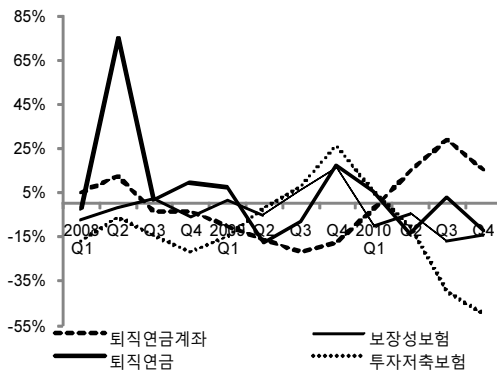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2) 유럽 보험시장 동향은 영국과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 2010년 연간 신규보험료는 분할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가 모두 상승하여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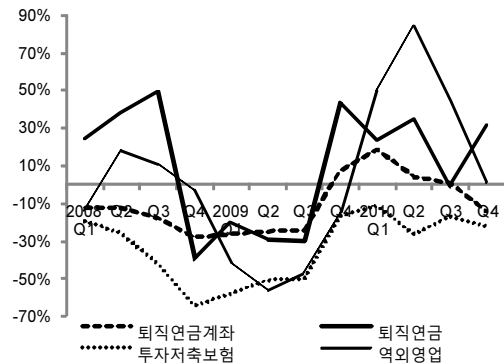
-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계좌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3.3% 증가한 52억 3천만 파운드를 기록하였으나 2000-2010년 평균 분할납 신규보험료 수준(55억 파운드)에는 미달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하락세가 둔화되거나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447억 2천만 파운드를 기록하였으나 2000-2010년 평균 분할납 신규보험료 수준(570억 파운드)에는 미달함.

〈그림 3〉 분할납 신규보험료 성장률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그림 4〉 일시납 신규보험료 성장률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투자·저축보험의 4/4분기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어린이신탁의 하락이 커지면서 전년동기 대비 50.2% 감소하였으며 전체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하락함.

- 어린이신탁의 4/4분기 분할납 신규보험료가 71% 대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직접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투자·저축보험의 2011년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어린이신탁 등이 급감하면서 전년대비 25.4% 하락함.

- 투자·저축보험의 일시납 신규보험료 역시 대다수 상품의 판매 저조로 전년동기대비 22.3% 하락함으로써 하락세가 가속화되었으며 비중도 20.8%로 축소됨.
 - 투자·저축보험의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은 4/4분기 중 전속대리점의 판매 저조로 32% 하락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소득을 인출할 수 있는 투자자산(distribution bonds)과 확정형채권(guaranteed bonds)도 각각 48%, 69% 하락함.
 - 2010년 일시납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는 money market bonds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감소세로 인해 전년대비 1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4/4분기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의 증가세 지속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증가세를 시현함.
 - 단체개인연금계좌와 개인퇴직계좌는 독립재정자문가를 통한 판매가 크게 증대되어 각각 전년동기대비 29.8%, 39.8% 성장함에 따라 분할납 신규보험료 증가를 견인함.
 -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신규보험료의 호조세에 힘입어 비중이 58.1%로 크게 높아짐.
 - 2010년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단체개인연금계좌와 개인퇴직계좌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13.1% 증가함으로써 2000~2010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4/4분기 퇴직연금계좌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경기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14.9% 하락하였으며 비중도 감소함.
 - 개인연금계좌, 단체개인연금계좌, 개별개인연금계좌(self-invested personal pension)는 전속대리점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2.3%, 1.8%, 18.5% 하락함으로써 퇴직연금계좌의 비중도 26.6%로 낮아짐.
 - 2010년 퇴직연금계좌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단체개인연금계좌가 3/4분기까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으나 4/4분기 들어 단체개인연금계좌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임.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4/4분기 퇴직연금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DC형 퇴직연금의 급락으로 인해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비중도 감소함.

- 4/4분기 퇴직연금 분할납 신규보험료 중 DB형 퇴직연금은 45.2% 급등하였으나 비중이 더 큰 DC형 퇴직연금이 39.3%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7% 하락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3%로 감소함.
- 2010년 퇴직연금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DB, DC형 퇴직연금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6.0% 하락함.

■ 4/4분기 퇴직연금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신탁투자퇴직연금(TIPs : Trustee Investment Plans), Bulk Buyouts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비중도 증가세를 보임.

- DB, DC형 퇴직연금은 각각 58.0% 67.8% 하락하였으나 신탁투자퇴직연금과 Bulk Buyouts³⁾이 각각 38.5%, 107% 증가함에 따라 4/4분기 퇴직연금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1.2% 증가하였고 비중도 38.2%로 급등함.
- 2010년 퇴직연금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금융시장의 안정에 힘입은 신탁투자퇴직연금과 Bulk Buyouts의 호조, DB형 퇴직연금의 상반기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22.8% 성장함으로써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상회하는 모습임.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4/4분기 보장성보험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3/4분기에 이어서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비중도 20.9%로 축소되는 모습임.

- 4/4분기 중 개인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과 신용보증보험이 각각 10.7%, 76.5% 하락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13.9% 하락하였고 단체보

3) DB형 퇴직연금의 관리 책임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금 구입

장성 보험은 단체소득보장 보험(group income protection)과 단체생명보험(group life)의 부진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6.3% 하락함.

- 2010년 보장성보험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종신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대비 11.6% 하락하였고 비중도 20.2%로 축소됨.

〈역외영업의 신규보험료〉

■ 4/4분기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종목간의 성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이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4/4분기 중 personal bonds-pooled는 9.1% 증가한 반면 투자채권(investment bonds)과 개인채권이 각각 59.8%, 25.0% 하락함으로써 전체 신규보험료 성장세는 전년동기대비 0.8%에 그침.
- 2010년 보장성보험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personal bonds-pooled의 대폭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8.4%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투자채권, 개인채권 등은 하락함으로써 비중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1〉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20	77	18	17	13	10	57
	성장률	25.8	2.7	5.1	-10.6	-39.9	-50.2	-25.4
	구성비	1.6	1.5	1.4	1.1	1.0	0.8	1.1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621	2,808	729	936	795	717	3,176
	성장률	-18.0	-16.5	-3.0	14.4	28.7	15.4	13.1
	구성비	50.9	55.4	58.3	63.1	62.7	58.1	60.7
퇴직연금	보험료	273	964	230	246	192	238	906
	성장률	17.3	-2.5	5.5	-14.0	2.7	-12.7	-6.0
	구성비	22.3	19.0	18.4	16.6	15.2	19.3	17.3
역외영업	보험료	6	21	8	9	9	11	37
	성장률	-0.9	8.5	70.1	73.1	76.2	74.6	73.7
	구성비	0.5	0.4	0.6	0.6	0.7	0.9	0.7
보장성보험	보험료	302	1,196	265	275	259	258	1,057
	성장률	15.8	4.2	-10.2	-4.8	-16.6	-14.3	-11.6
	구성비	24.7	23.6	21.2	18.5	20.4	20.9	20.2
합계	보험료	1,222	5,066	1,249	1,483	1,268	1,234	5,234
	성장률	-4.0	-9.4	-2.8	4.6	11.1	1.0	3.3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시납 신규보험료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3,130	12,445	2,692	2,489	2,398	2,433	10,012
	성장률	-17.0	-47.6	-11.2	-26.9	-16.7	-22.3	-19.5
	구성비	26.4	29.2	24.2	20.5	24.5	20.8	22.4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3,654	14,840	4,064	4,603	3,374	3,109	15,150
	성장률	7.2	-19.3	18.4	4.2	1.1	-14.9	2.1
	구성비	30.8	34.8	36.6	38.0	34.4	26.6	33.9
퇴직연금	보험료	3,409	10,529	2,798	3,209	2,453	4,471	12,931
	성장률	43.7	-13.0	23.6	34.9	-1.0	31.2	22.8
	구성비	28.7	24.7	25.2	26.5	25.0	38.2	28.9
역외영업	보험료	1,610	4,627	1,503	1,758	1,520	1,622	6,404
	성장률	-15.1	-40.5	49.6	84.0	43.9	0.8	38.4
	구성비	13.6	10.8	13.5	14.5	15.5	13.9	14.3
보장성보험	보험료	66	237	62	54	56	54	225
	성장률	-68.8	-76.7	22.1	-17.4	1.4	-18.8	-5.0
	구성비	0.6	0.6	0.6	0.4	0.6	0.5	0.5
합계	보험료	11,869	42,678	11,120	12,113	9,801	11,689	44,722
	성장률	1.8	-32.3	13.6	8.0	0.0	-1.5	4.8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판매채널별 신규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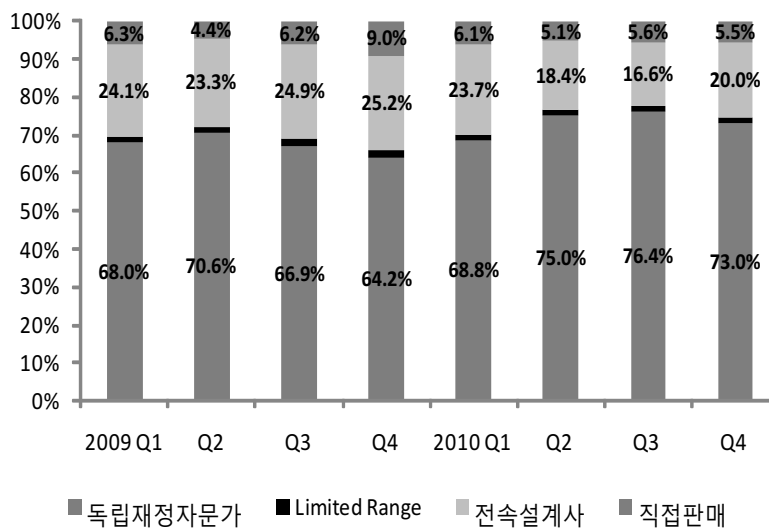
■ 4/4분기 중 판매채널별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독립재정자문가⁴⁾의 비중이 다소 축소되었으며 전속설계사의 비중은 소폭 확대됨.

○ 4/4분기 중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의 판매 감소로 인해 전분기대비 3.4%p 감소한 73.0%를 차지하였으며 전속설계사의 비중은 퇴직연금계좌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3.4%p 증가한 20.0%를 차지함.

○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독립재정자문가의 비중이 전종목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5.8%p 높아진 73.4%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전속설계사와 직접판매는 전년대비 각각 4.7%p, 0.8%p 축소되어 19.6%와 5.6%로 낮아짐.

〈그림 5〉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⁵⁾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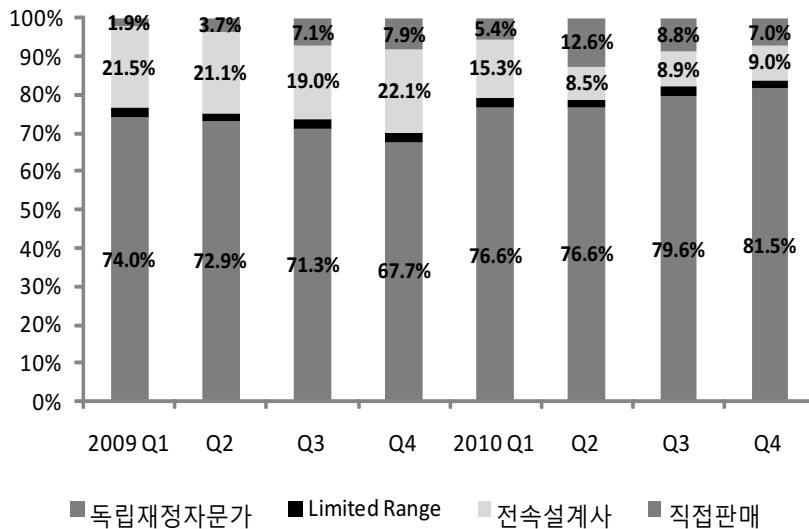
4)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IFA)

5) Limited Range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만 하도록 규정됨.

■ 4/4분기 중 판매채널별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독립재정자문가의 비중 확대가 지속된 반면 직접판매는 축소세를 유지함.

- 4/4분기 중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의 판매 급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9%p 증가한 81.5%를 차지하였으며 직접판매의 판매 비중은 모든 종목에서 판매가 감소함으로써 전분기 대비 1.8%p 감소한 7.0%를 차지함.
-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독립재정자문가와 직접판매의 비중이 높아져 각각 78.5%, 8.5%를 차지한 반면, 전속설계사는 1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나. 이탈리아

〈생명보험〉

■ 2010년 4/4분기 이탈리아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는 일시납 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4.8% 줄어든 144억 유로를 나타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한 694억 유로를 기록함.

○ 2010년 4/4분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시납 보험료는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25.3% 감소한 136억 유로를 기록함.

○ 연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한 1억 9,900만 유로를 나타낸 반면 분할납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0.8% 감소한 6억 1,700만 유로를 시현함.

〈표 2〉 이탈리아 생명보험 신규 보험료

(단위 : 백만 유로, %)

구 분		CY2009			C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납 (Annu)	보험료	124	178	651	166	172	140	199	677
	성장률	-3.3	-3.3	2.5	0.6	-6.5	12.9	11.8	4.0
	구성비	0.8	0.9	1.0	0.8	0.9	1.1	1.4	1.0
일시납 (Unici)	보험료	14,564	18,196	60,522	20,972	19,195	12,428	13,585	66,180
	성장률	97.4	106.9	57.9	73.6	22.4	-14.7	-25.3	9.3
	구성비	96.7	95.0	95.5	95.1	96.0	95.9	94.3	95.3
분할납 (RSP)	보험료	369	779	2,192	917	629	398	617	2,561
	성장률	-4.0	-8.5	-17.9	74.3	21.4	7.9	-20.8	16.8
	구성비	2.5	4.1	3.5	4.2	3.1	3.1	4.3	3.7
전 체	보험료	15,057	19,154	63,365	22,056	19,996	12,966	14,401	69,418
	성장률	90.8	94.8	52.2	72.7	22.0	-13.9	-24.8	9.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보험료는 생명보험(개인)의 신규 실적이며, 연납(Annu; Annual premiums), 일시납(Unici: Single premiums), 분할납(Ricorrenti; Recurrent single premiums)으로 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10년 4/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 보험료는 비중이 큰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과 전통형 및 투자형 상품(Ramo III)이 기저효과로 감소한 반면 카피탈리자시용(Ramo V)은 증가함.

〈표 3〉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 보험료

(단위 : 백만 유로, %)

구 분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 I)	보험료	15,038	51,028	15,838	13,533	9,672	10,416	49,460	
	성장률	108.4	163.7	57.9	-1.6	-20.8	-30.7	-3.1	
	구성비	78.5	80.5	71.8	70.1	70.8	72.3	71.2	
전통형 및 투자형 (Ramo III)	보험료	3,345	9,950	5,170	5,112	3,367	3,168	16,817	
	성장률	134.9	-52.8	146.3	143.2	40.0	-5.3	69.0	
	구성비	17.5	15.7	14.8	26.5	24.6	22.0	24.2	
- 전통형	보험료	2,273	5,901	3,255	3,715	2,408	2,685	12,062	
	성장률	190.8	-46.0	145.1	211.9	117.1	18.1	104.4	
	구성비	11.9	9.3	14.8	19.3	17.6	18.6	17.4	
- 보장성	보험료	40	104	29	22	68	112	231	
	성장률	423.3	-26.8	107.1	-19.1	197.5	178.8	121.9	
	구성비	0.2	0.2	0.1	0.1	0.5	0.8	0.3	
- 보 증	보험료	120	300	145	129	190	91	555	
	성장률	280.4	-61.5	590.5	58.9	143.7	-24.0	85.0	
	구성비	0.6	0.5	0.7	0.7	1.4	0.6	0.8	
- 변 액	보험료	912	3,638	1,740	1,247	701	280	3,968	
	성장률	41.3	-60.6	137.1	55.8	-41.2	-69.3	9.1	
	구성비	4.8	5.7	7.9	6.5	5.1	1.9	5.7	
기타 (Ramo IV)	보험료	0.4	1.2	0.2	0.2	0	1	2	
	성장률	3.4	-40.0	0.0	-21.0	-16.6	107.3	26.4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카피탈리자- 시용 (Ramo V)	보험료	752	2,344	1,032	639	612	795	3,079	
	성장률	98.5	106.3	63.0	21.3	41.8	5.8	31.4	
	구성비	3.9	3.7	4.7	3.3	4.5	5.5	4.4	
기타 (Ramo VI)	보험료	18.2	38.0	16	11	13	21	62	
	성장률	4.7	-34.6	185.7	101.8	55.0	16.7	62.8	
	구성비	0.1	0.1	0.1	0.1	0.1	0.1	0.1	
합 계	보험료	19,154	63,365	22,056	19,296	13,665	14,402	69,418	
	성장률	110.3	52.2	72.7	17.8	-9.2	-24.8	9.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이탈리아 생명보험은 크게 Ramo I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 III-펀드,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 Ramo V-카피탈리자시용(순수투자형 상품), Ramo VI&VI-기타로 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0.7%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며 104억 유로를 시현했으며, 전통형 및 투자형(Ramo III)도 전년동기대비 5.3%의 감소한 32억 유로를 기록함.

○ 카피탈리자시용(Ramo V)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5.8% 성장한 8억 유로를 시현함.

■ 2011년 1월 생명보험의 누적 신계약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10.6% 감소한 약 26만 건으로 나타남.

〈표 4〉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누적 신계약 건수 증감률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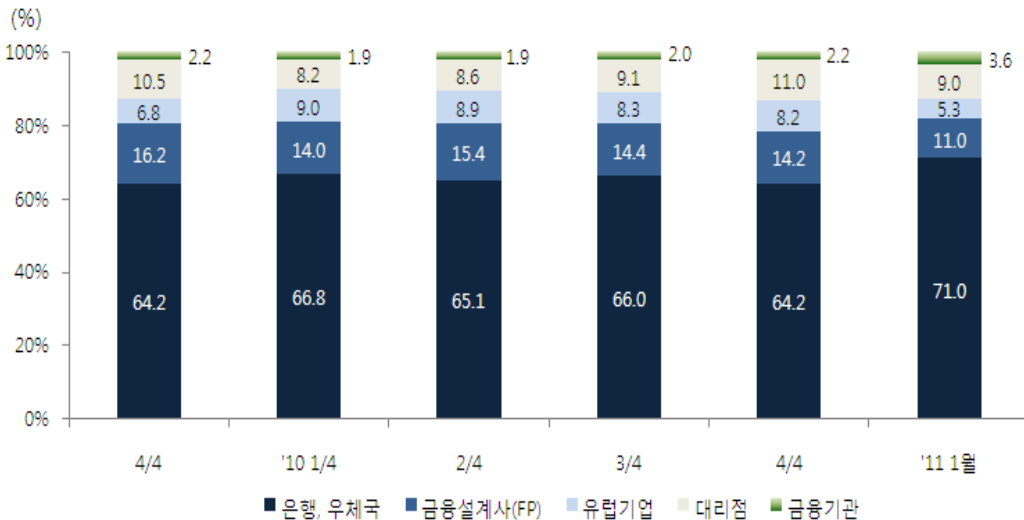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1월		2011년 1월		증감률
	계약 건수	비 중	계약 건수	비 중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	211,714	72.7	228,506	87.7	7.9
전통형 및 투자형(Ramo III)	73,764	25.3	25,425	9.8	-65.5
- 전통형	15,687	5.4	22,644	8.7	44.3
- 보장성	237	0.1	2,577	1.0	987.3
- 보 증	4,855	1.7	204	0.1	-95.8
- 변 액	52,985	18.2	0	0.0	-100.0
기타(Ramo IV)	37	0.0	175	0.1	373.0
카피탈리자시용(Ramo V)	4,178	1.4	4,165	1.6	-0.3
기타(Ramo VI)	1,591	0.5	2,235	0.9	40.5
합 계	291,284	100.0	260,506	100.0	-10.6
- 연금(개인)	17,117	5.9	21,731	8.3	27.0
- 순수보장성	40,210	13.8	42,364	16.3	5.4
- 기 타	233,956	80.3	196,410	75.4	-16.0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누적 신계약 건수 증가율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이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형 및 투자형(Ramo III)이 전년동기대비 65.5% 감소하면서 낮아짐.

- 2010년 4/4분기 생명보험 누적 신규 보험료 기준 판매채널 비중은 은행 및 우체국이 64.2%, 금융설계사(FP)는 14.2%, 대리점이 11.0%, 그리고 유럽기업이 8.2%를 차지함.
 - 은행 및 우체국 비중이 전분기대비 1.8%p 감소한 반면 대리점 비중은 전분기대비 1.9%p 증가함.
 - 2011년 1월에는 은행 및 우체국이 71.0%, 금융설계사가 11.0%, 대리점이 9.0%, 그리고 유럽기업이 5.3%의 비중을 각각 나타냄.

〈그림 7〉 이탈리아 생명보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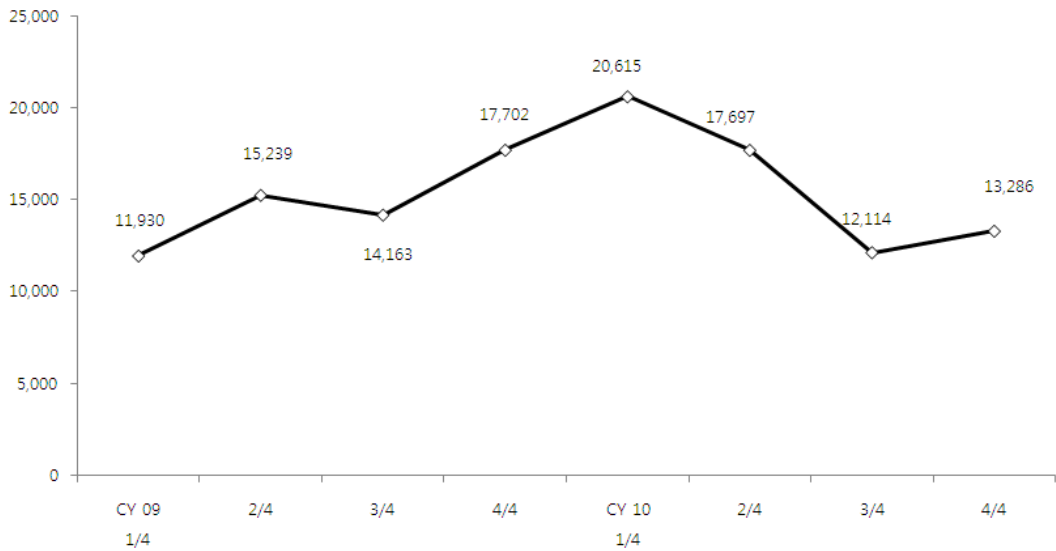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10년 4/4분기 회사그룹별 실적은 전분기의 저조한 실적에서 벗어나면서 국내사와 외국사 모두 회복세로 전환됨.
 - 전년동기의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국내사와 외국사 모두 전년동기대비 24.9%, 23.1% 감소했으나 전분기의 저조한 실적과 비교해 볼 때 회복세를 보임.

〈그림 8〉 이탈리아 국내사 분기별 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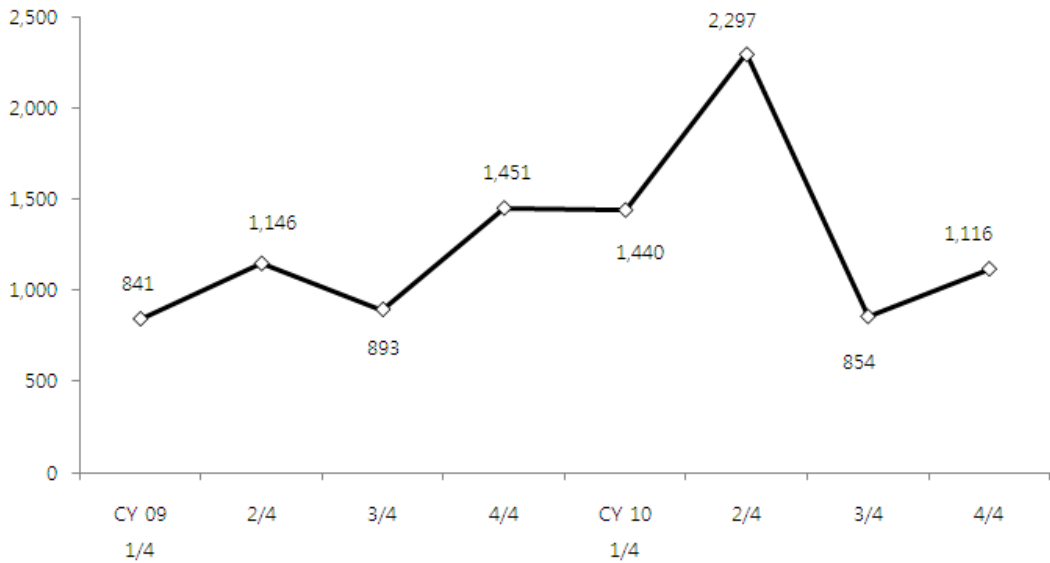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그림 9〉 이탈리아 외국사 분기별 보험료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www.abi.org.uk)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의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이탈리아의 보험산업은 이탈리아보험협회(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www.ania.it)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계약 통계(Statistica mensile sulla 'nuova produzione' dei rami vita)를 바탕으로 기술함.
 - 상품구분은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 Assicurazioni sulla durata della vita umana), 펀드 및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Ramo III; Assicurazioni connesse a fondi, indicizzatori o altri valori di riferimento), 기타(Ramo IV&Ramo VI; Assicurazioni complementari), 카필탈리자시용(Ramo V; Capitalizzazione) 등으로 함.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3호 (1. 3)	금감원,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개 · 금감원은 금융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법규 제·개정 및 제도 변경, 규제개혁 등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금융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소개함.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감원, 12/28)
제113호 (1. 3)	금융위,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발표 · 금융위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는 자동차 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 보험요율 체계와 대물차량보험금 합리화, 대인의료비 절감, 교통사고 줄이기, 보험사고 근절 및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됨.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금융위, 12/29)
제114호 (1. 10)	한은,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 · 한은은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올해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한은, 1/6)
제114호 (1. 10)	금감원, 소액보장성보험 무리한 압류 금지 ·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적극적 채권회수를 위한 보험계약의 강제해지가 저소득층 보험계약자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채무연체자 보험계약해지 관련 개선방안, 금감원, 1/6)
제115호 (1. 17)	한은, 물가상승 우려 기준금리 인상 · 한은은 새해에도 물가상승의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함. (통화정책방향, 한은, 1/13)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5호 (1. 17)	시민단체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해결 주장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됨. (시민단체 건보 하나로 병원비 해결하자, 경향신문, 1/11)
제116호 (1. 24)	인플레이션 우려,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 ·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 (연일 인플레이션 경고 목소리, 연합뉴스, 1/20)
제116호 (1. 24)	은행을 통한 생명보험 신규 가입 급증 · 23개 생명보험회사의 신규 보험 가입액 중 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 비중이 최근 급격히 높아져 지난해는 70%를 기록함. (신규보험 70% 은행서 팔린다, 연합뉴스, 1/20)
제117호 (1. 31)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재정통계 개편안과 국가부채 재계산 · 2011년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정부결산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어 재정통계 기준도 발생주의 기준으로 정비하고, 최신 국제 통계기준의 적용을 통해 국가 재정통계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국가채무와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재정통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기재부, 1/26)
제117호 (1. 31)	공정한 보험시장 조성을 위한 2011년 보험감독 방향 · 금감원은 지난 1월 25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공정한 보험시장 조성을 목표로 ‘2011년 보험감독 방향’을 제시함. (2011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감원, 1/25)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8호 (2, 14)	공동계정을 통한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방안 · 한나라당은 부실 저축은행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 설치방안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검토하기로 결정함. (부실저축은행 공동계정 조건부 검토, 연합뉴스, 2/9)
제118호 (2, 14)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가능성 · 새해 들어 공공요금 인상 기조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의료수가가 1.6% 인상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됨. (오는 4월 실손의료보험 의료수가 인상 반영, 보험일보, 2/8)
제119호 (2, 21)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감독당국의 대응 · 금융위는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2월 17일 임시회의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함.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금감원, 2/17)
제119호 (2, 21)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과 보장성 확대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와 관련한 논쟁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문제의 제기는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국민건강보험 재정 급속 악화, 연합뉴스, 2/16)
제120호 (2, 28)	저축은행 부실 사태 추이 및 향후 전망 · 금융위는 새해 들어 8개의 부실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대규모 인출사태에 대한 우려는 추가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는 단언으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업계 15%가 영업정지, 연합뉴스, 2/23)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20호 (2. 28)	가계부채 문제와 금리인상 ·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국내 가계부채 800조 육박, 한국경제, 2/23)
제121호 (3. 7)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가불안과 대응방안 · 국내 소비자물가가 1월 전년동기대비 4.1% 상승한 데 이어 2월에도 4.5% 상승하면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2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재부, 3/2)
제121호 (3. 7)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 및 현황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에 도입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5년 만에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함. (퇴직연금 적립금 5년만에 5조 원 돌파, 연합뉴스, 3/3)
제122호 (3. 14)	기준금리 인상과 영향 · 한은은 3월 10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2.75%에서 3.0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대의 기준금리를 기록함.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3/10)
제122호 (3. 14)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 금융지주회사 · 농협에서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 가능성이 높아짐. (농협법 보험·카드 지각변동 예고, 연합뉴스, 3/6)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23호 (3. 21)	일본 대지진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일본 대지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주시하면서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본 대지진 산업계 업종별 영향은, 연합뉴스, 3/14)
제123호 (3. 21)	일본 대지진과 국내 보험산업 ·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최대 3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일본 지진 국내보험사 영향 제한적, 보험뉴스, 3/15)
제124호 (3. 28)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정부는 주택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 금감원, 3/22)
제124호 (3. 28)	퇴직연금시장 감독방안 · 금감원은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공백,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의 사전 방지를 위해 향후 퇴직연금 감독방향을 제시함. (퇴직연금시장 분석 및 전망, 금감원, 3/23)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3호 (1. 3)	2011년 미국 경제전망, 낙관론 확산 · 최근 각종 경제지표의 호전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011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며, 경제학자들과 금융기관들이 차례로 경제전망 수치를 상향 조정함. (New York Times, 12/23)
제114호 (1. 10)	미국, 대기업 중심 설비투자 확대 움직임 ·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가용현금 규모가 증가하고 2011년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대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함. (Wall Street Journal, 1/3)
제115호 (1. 17)	미국, 대기업 중심 설비투자 확대 움직임 · 지난 11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법안인 건강보험개혁법의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건강보험개혁법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됨. (USA Today, 1/8)
제116호 (1. 24)	2011년 미국 생명보험, 정체 전망 · 미국의 2011년 생명보험은 개인연금에 다소 성장하겠으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이 정체를 보임에 따라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Insurance News Net, 1/19)
제117호 (1. 31)	경제지표 회복세와 이에 대한 평가 · 경기선행지수,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실물경제지표와 주가지수 등 금융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기업의 신규채용 및 은행대출이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됨. (New York Times, 1/25)
제118호 (2. 14)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유보와 시사점 · 미 재무부는 반기 리포트를 통해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위안화의 실질 환율이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함. (Washington Post 등, 2/5)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9호 (2, 21)	국제조율 불구, 신흥국 핫머니 유입 차단조치 증가 · 환율과 무역정책 등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해 신흥국들의 외국 자본유입 차단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LA Times 등, 2/16)
제120호 (2, 28)	미 의회 정책기구,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압박 요구 · 미 의회 정책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의회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의 환율, 무역 및 산업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함. (LA Times 등, 2/18)
제121호 (3, 7)	미 연준, 2011년 성장률 하향 조정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월 의사록에 따르면, 미 연준은 2011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하고 실업률도 201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AP 등, 3/1)
제122호 (3, 14)	미 예보(FDIC) 의장, 연방정부 부채위기 가능성 지적 ·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은 미 연방정부 부채가 지난 7년간 두 배나 증가하는 등 연방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또 다른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 (Washington Post 등, 3/4)
제123호 (3, 21)	오바마 행정부, 감세 연장안 합의 ·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소득세 감세 연장안에 합의했으며, 이번 안이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부정적인 의회를 자극하지 않고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Chicago Tribune 등, 3/15)
제124호 (3, 28)	일본 지진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 리비아, 사우디, 바레인 등 중동국가의 정치불안이 계속되고, 유럽 은행들의 대규모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진과 원전사고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함. (New York Times 등, 3/22)

■ 유럽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3호 (1. 3)	독일, 은행권 대마불사 최소화 추진 독일의 연방금융시장안정기구(FMSA: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 Authority)는 신규 은행법 제정으로 인해 향후 금융위기 재발 시 은행의 대마불사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힘. (Bloomberg, 12/29)
제114호 (1. 10)	중국, 스페인 국채 매입·경제협력 약속 스페인의 국채차환 성공 여부가 유럽 금융시장의 정상화의 변수로 대두된 가운데 중국은 스페인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과 국채 매입 의사를 밝힘. (Financial Times 등, 1/5)
제115호 (1. 17)	포르투갈, 국채발행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려 상존 포르투갈은 1월12일 국채발행·매각에 성공함으로써 구제금융 신청 상황은 모면했으나 6% 후반의 고금리는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탱가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구제금융에 의존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됨. (Financial Times 등, 1/12)
제116호 (1. 24)	구제금융기금을 둘러싼 불협화음 독일 등 북부 유럽 국가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EU 및 주변부국가들은 즉각적인 대응 요구함에 따라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화 공조체계에 불협화음이 발생함. (Financial Times 등, 1/19)
제117호 (1. 31)	유로공동채권 발행 성공이 주는 의미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유로공동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유럽안정기금(EFSF)은 1월 24일 아일랜드 구제기금 자금마련을 위한 50억 유로 규모의 첫 번째 채권발행에 성공하고 AAA 신용등급을 유지함으로써 시장의 확고한 신뢰를 시현함. (Financial Times 등, 1/19)
제118호 (2. 14)	물가 급등으로 인한 금리인상 가능성 최근 국제유가, 식료품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수준이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게 되자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두됨. (Bloomberg 등, 2/9)

■ 유럽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9호 (2, 21)	유럽의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버블 · 유럽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의 버블이 붕괴됨으로써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졌으며 이러한 주택시장의 붕괴는 향후 유럽 국가 대부분의 경기회복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 전망이 제기됨. (Financial Times 등, 2/14)
제120호 (2, 28)	보험회사의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주택임대시장 활용 · 적자재정 증가, 물가상승, 초저금리, 북아프리카 정치 불안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자금은 금·미국채 등으로부터 이탈하여 유통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 주는 주택임대시장이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는 모습임. (Financial Times 등, 2/23)
제121호 (3, 7)	성별 차등 보험료산정 금지의 영향 ·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3월1일 성별을 차등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온 관습은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Wall Street Journal 등 3/2)
제122호 (3, 14)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II 실시와 평가 · EU는 주변부 국가의 재정적자로 서유럽권 은행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하기로 함. (Financial Times 등, 3/8)
제123호 (3, 21)	원전 건설 및 보유를 둘러싼 공방 · 일본의 지진과 원전 방사선 물질 누출은 경제적으로는 산업생산의 부분적인 차질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원전 건설이 최고의 쟁점 사안으로 거론되는 모습임. (Wall Street Journal, 3/16)
제124호 (3, 28)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 OECD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하면 1년차 물가상승은 0.2%p, 2년차에는 0.1%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의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국제유가 상승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Wall Street Journal, 3/18)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3호 (1, 3)	다이어치생명, 사상 최대규모 해외기업 인수 · 최근 일본 2위 생명보험회사인 다이어치생명은 호주의 중견 보험회사 '타워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을 내년까지 지분매입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요미우리, 12/29)
제114호 (1, 10)	경제 3단체장, '올해 일본경제 전악후강 될 것' ·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3단체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일본경제가 상반기 부진에서 탈피해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로이터, 1/6)
제115호 (1, 17)	보험업계, 중국 등 신흥보험시장 진출 본격화 · 최근 손해보험재팬이 업계 최초로 현지은행과 제휴해 중국 방카슈랑스 시장에 진출한 바 있으며, 메이지야스다생명과 도쿄해상홀딩스도 인도, 인도네시아, 동유럽 주요국에 지점 및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주요 회사들의 신흥 보험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음. (요미우리신문 등, 1/10)
제116호 (1, 24)	일본은행, 경제성장을 3% 상향조정 전망 · 일본은행은 대외불안 요인이었던 엔화강세 및 유럽발 재정위기의 진정, 주요 수출품목인 IT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3% 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됨. (로이터 등, 1/19)
제117호 (1, 31)	일본정부의 신년 주요 경제정책 · 최근 새로 부임한 요사노 가오루 재무상은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안정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디플레이션 종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함. (로이터 등, 1/26)
제118호 (2, 14)	자녀 보육수당 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인상 논의 · 일본 재무상은 민주당 정부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자녀 보육수당 재원을 소비세 인상으로 마련할 방침을 밝혔으나 야당과 언론은 소비세 인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 (산케이신문, 2/8)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9호 (2, 21)	일본 지난해 국내총생산 세계3위로 전락 · 일본의 2010년 국내총생산이 중국에 추월당하여 42년만에 세계 3위로 전락하자 일본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순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산케이신문, 2/14)
제120호 (2, 28)	국가신용평가 하락과 무역적자 전환으로 사면초가 직면 ·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정부 정책 실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재 3번째인 Aa2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시사통신, 2/22 등)
제121호 (3, 7)	후생연금기금 적립부족으로 70만 명 연금감액 · 일본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후생연금기금제도가 금융위기 이후 운용수의 악화로 51개 연기금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약 3,700억엔의 적립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추가부담, 연기금 해산, 가입자 연금 감액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 (아사히, 2/28)
제122호 (3, 14)	저성장 전망속에 체감경기 개선세 부진 · S&P는 2011년 일본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하고 금융위기 직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최근의 경기체감지수는 여전히 50이하의 불황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케이신문, 3/8)
제123호 (3, 21)	일본 대지진·방사선누출로 경제침체 장기화 전망 ·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과 원전 폭발사고 등으로 지진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 4분기부터 침체 현상을 보였던 일본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요미우리신문 등, 3/16)
제124호 (3, 28)	금융시장 안정화와 피해복구를 위한 대안 마련 · 일본은 피해복구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책정하는 한편 대지진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총 100조엔의 긴급자금을 투입하였고, 피해복구 재원조달을 위해 10조엔 규모의 부흥국채를 발행하기로 함. (요미우리신문 등, 3/23)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3호 (1, 3)	인민은행, 2011년 통화정책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물가압력과 자산거품 요인인 인플레이션 억제를 2011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발표함. (중국인민은행 등, 12/28)
제114호 (1, 10)	인민은행, 올해 중국경제 9.5% 성장 전망 ·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산하 국제금융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11년도 중국 거시경제 형세 분석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GDP)이 전년대비 9.5%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중국인민은행 등, 1/4)
제115호 (1, 17)	2010년 중국 외환보유액 및 대출규모 사상 최대 기록 ·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국정부의 외환보유액 및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규모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인민은행 등, 1/12)
제116호 (1, 24)	2010년 중국보험산업, 내실 있는 고성장 시현 · 최근 개최된 전국 보험감독관리 업무회의에 따르면, 2010년 중국보험산업은 생·손보 모두 호조세를 나타내며 전년대비 30%를 웃도는 고성장을 시현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1/17)
제117호 (1, 31)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 올해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국적인 이상기온, 풍부한 유동성, 임금 및 상품 가격 상승, 명절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상해증권보 등, 1/26)
제118호 (2, 14)	기준금리 추가인상 결정 배경 및 시사점 · 중국인민은행은 통화긴축을 위해 작년 10월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춘절연휴 마지막날에 25bp 추가 인상함. (상해증권보 등, 2/9)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19호 (2, 21)	중국의 무역흑자 감소와 소비자물가 상승 ·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6월 2.9%였던 소비자물가가 11월에는 5.1%로 크게 상승했으며 12월에 4.6%로 상승세가 주춤하다 올 1월 다시 4.9%로 상승했다고 발표함. (Wall Street Journal, 2/15)
제120호 (2, 28)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출구전략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월 24일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상한다고 발표함. (Wall Street Journal, 2/22)
제121호 (3, 7)	중국의 부동산 과열 대응방안 및 효과 · 중국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2월 21일 베이징과 상하이로 비롯한 14개 도시에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중국경제망, 3/2)
제122호 (3, 14)	내수확대 중심의 경제성장 계획 · 중국은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으며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는 민생개선 추진 및 불균형 해소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함. (Wall Street Journal, 3/6)
제123호 (3, 21)	일본 대지진과 중국 경제 및 무역 ·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이 중국 경제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상해증권보, 3/15)
제124호 (3, 28)	인플레이션 억제와 지급준비율 인상 · 중국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화 긴축 정책의 유지를 결정했으며, 향후 통화 긴축 정책의 지속 여부 및 위안화 절상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Wall Street Journal, 3/22)

VI.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4.3	-2.2	1.0	6.0	8.1	7.2	4.4	4.6
경상수지		4,543	11,557	8,613	8,077	263	8,858	9,931	9,161
수 출		73,335	87,038	95,485	102,332	101,355	117,585	118,257	127,090
수 입		70,516	73,485	84,571	91,753	96,569	105,345	105,715	114,754
실업률		3.64	3.89	4.30	4.34	4.14	3.50	3.50	3.30
금리	국고채(3년)	3.64	3.89	4.30	4.34	4.14	3.74	3.70	3.30
	회사채(3년)	6.85	5.35	5.59	5.46	5.25	4.61	4.63	4.16
소비자물가지수		111.6	112.7	113.3	113.5	114.6	115.6	116.6	117.6
환율	원/달러	1,377.1	1,284.7	1,188.7	1,167.6	1,130.8	1,210.3	1,142.0	1,138.9
	원/엔화	1,414.8	1,336.3	1,318.8	1,262.8	1,217.7	1,364.6	1,363.3	1,397.1
KOSPI		1,206.3	1,390.1	1,673.1	1,682.8	1,692.9	1,698.3	1,872.8	2,051.0
외환보유고		206,340	231,735	254,247	269,995	272,331	274,218	289,775	291,570

주 : 1)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 억 원)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72,569	101,850	100,434	112,581	90,965	113,206	106,839	97,513
- 생 보	52,047	73,533	71,883	84,809	65,558	79,340	80,183	68,578
- 손 보	20,522	28,317	28,551	27,772	25,407	33,866	26,655	28,935
은 행	141,250	218,527	282,694	121,671	217,133	265,044	33,397	274,211
- 일 반	187,727	245,899	282,430	102,900	176,891	247,333	44,878	150,020
- 신 탁	-46,477	-27,372	264	18,771	40,242	17,711	-11,481	124,191
증 권	81,168	37,013	33,892	-44,842	45,027	15,820	-7,803	17,429
투 신	261,799	-115,228	-282,355	-140,750	107,354	-83,616	-78,660	-111,569
총 금	34,826	-64,396	-76,105	-7,191	38,000	-22,687	-13,827	9,480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34,389	37,016	40,807	40,908	153,119	40,313	41,775	44,312
	성장률	-0.2	4.8	16.2	14.1	8.8	17.2	12.9	8.6
	구성비	19.6	20.6	18.2	21.4	19.9	21.0	21.7	19.0
사망	보험료	71,889	72,647	72,632	72,330	289,498	71,767	71,868	71,895
	성장률	-3.9	-2.1	-0.7	-0.1	-1.7	-0.2	-1.1	-1.0
	구성비	41.0	40.5	32.5	37.8	37.6	37.3	37.4	30.8
생사 혼합	보험료	18,096	19,321	21,248	23,387	82,052	24,183	24,875	27,370
	성장률	18.5	22.6	33.9	20.1	23.6	33.6	28.7	28.8
	구성비	10.3	10.8	9.5	12.2	10.7	12.6	12.9	11.7
변액 보험	보험료	40,885	42,100	44,375	44,522	171,882	44,983	45,598	50,600
	성장률	-13.7	-8.4	5.1	10.4	-2.3	10.0	8.3	14.0
	구성비	23.3	23.5	19.8	23.3	22.3	23.4	23.7	21.7
개인계	보험료	165,260	171,085	179,061	181,145	696,551	181,247	184,116	194,177
	성장률	-3.9	-0.1	7.6	7.8	2.8	9.7	7.6	8.4
	구성비	94.3	95.4	80.1	94.6	90.5	94.2	95.8	83.2
단체	보험료	9,908	8,287	44,544	10,277	73,017	11,156	8,033	39,241
	성장률	-9.5	-5.2	48.0	23.8	25.7	12.6	-3.1	-11.9
	구성비	5.7	4.6	19.9	5.4	9.5	5.8	4.2	16.8
합계	보험료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192,149	233,418
	성장률	-4.2	-0.3	13.8	8.6	4.6	9.8	7.1	4.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20,832	20,875	21,283	22,101	85,090	20,570	21,441	27,107
	증가율	-8.8	-33.2	-43.3	-21.8	-29.0	-1.3	2.7	27.4
	지급률	60.6	56.4	52.2	54.0	55.6	51.0	51.3	61.2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37,161	39,103	35,853	37,182	149,298	36,009	36,698	36,739
	증가율	18.5	10.7	-8.1	-10.0	1.6	-3.1	-6.1	2.5
	지급률	51.7	53.8	49.4	51.4	51.6	50.2	51.1	51.1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12,802	14,843	23,144	19,768	70,557	12,028	12,509	18,789
	증가율	-31.7	-18.6	19.9	28.8	-1.5	-6.0	-15.7	-18.8
	지급률	70.7	76.8	108.9	84.5	86.0	49.7	50.3	68.6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14,922	21,046	21,928	23,385	81,281	25,859	28,701	39,263
	증가율	0.3	51.2	30.8	66.6	36.4	73.3	36.4	79.1
	지급률	36.5	50.0	49.4	52.5	47.3	57.5	62.9	77.6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85,717	95,867	102,208	102,435	386,227	94,466	99,349	121,899
	증가율	-2.4	-2.9	-9.2	3.5	-3.0	10.2	3.6	19.3
	지급률	51.9	56.0	57.1	56.5	55.4	52.1	54.0	62.8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5,917	11,625	36,589	23,430	87,562	18,597	12,617	42,941
	증가율	-0.3	-20.2	70.3	-7.5	13.2	16.8	8.5	17.4
	지급률	160.7	140.3	82.1	228.0	119.9	166.7	157.1	109.4
전체	지급보험금	101,634	107,492	138,797	125,865	473,789	113,063	111,966	164,841
	증가율	-2.1	-5.1	3.5	1.3	-0.3	11.2	4.2	18.8
	지급률	58.0	59.9	62.1	65.8	61.6	58.8	58.3	70.6

주 :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보험	사업비	6,878	7,674	8,288	7,620	30,460	7,837	7,797	8,336
	증가율	-18.4	-18.3	-4.9	25.8	-6.6	13.9	1.6	0.6
	사업비율	20.0	20.7	20.3	18.6	19.9	19.4	18.7	18.8
사망보험	사업비	17,664	18,311	19,533	18,283	73,791	18,672	18,329	18,185
	증가율	-3.9	-0.7	9.9	11.6	3.9	5.7	0.1	-6.9
	사업비율	24.6	25.2	26.9	25.3	25.5	26.0	25.5	25.3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4,874	4,869	5,237	5,025	20,005	4,779	5,089	5,745
	증가율	-34.6	-34.1	-18.0	6.5	-22.9	-1.9	4.5	9.7
	사업비율	26.9	25.2	24.6	21.5	24.4	19.8	20.5	21.0
개인보험계	사업비	29,417	30,853	33,058	30,929	124,256	31,288	31,215	32,265
	증가율	-14.2	-12.4	0.6	13.9	-4.1	6.4	1.2	-2.4
	사업비율	17.8	18.0	18.5	17.1	17.8	17.3	17.0	16.6
단체보험계	사업비	874	862	1,008	985	3,729	1,097	955	953
	증가율	2.2	-9.9	9.0	25.9	6.0	25.5	10.8	-5.5
	사업비율	8.8	10.4	2.3	9.6	5.1	9.8	11.9	2.4
전체	사업비	30,290	31,715	34,066	31,914	127,985	32,385	32,170	33,218
	증가율	-13.8	-12.4	0.8	14.2	-3.8	6.9	1.4	-2.5
	사업비율	17.3	17.7	15.2	16.7	16.6	16.8	16.7	14.2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사업비/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654	632	798	679	2,763	622	602	779
	성장률	-6.6	-0.1	0.7	4.3	-2.5	-5.0	-4.7	-2.4
	구성비	0.7	0.6	0.7	0.6	0.6	0.5	0.5	0.5
해 상	보험료	2,215	2,009	1,858	1,967	8,049	2,084	1,970	1,939
	성장률	2.2	5.1	-27.5	5.5	-5.4	-5.9	-2.0	4.4
	구성비	2.2	1.9	1.5	1.7	1.8	1.7	1.6	1.3
자동차	보험료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29,307	30,581	32,103
	성장률	-0.6	1.4	3.3	6.4	2.6	7.6	8.3	12.7
	구성비	27.2	26.9	23.7	25.0	25.6	24.3	25.0	21.9
보 증	보험료	3,165	2,890	3,106	3,126	12,287	3,194	2,978	3,417
	성장률	12.5	-1.3	10.1	5.4	6.6	0.9	3.1	10.0
	구성비	3.2	2.7	2.6	2.8	2.8	2.6	2.4	2.3
특 종	보험료	8,345	8,422	8,919	7,606	33,293	9,665	9,030	9,955
	성장률	15.8	12.5	16.3	12.6	14.3	15.8	7.2	11.6
	구성비	8.3	8.0	7.4	6.7	7.6	8.0	7.4	6.8
해 외 원보험	보험료	383	500	661	534	2,078	433	568	702
	성장률	71.1	46.6	3.8	-7.9	16.7	13.1	13.6	6.2
	구성비	0.4	0.5	0.6	0.5	0.5	0.4	0.5	0.5
장 기 손 해	보험료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66,651	69,459	72,151
	성장률	18.3	23.3	24.5	27.0	23.4	25.5	21.2	21.4
	구성비	53.1	54.5	49.5	55.9	53.2	55.2	56.7	49.3
개 인 연 금	보험료	3,654	4,048	4,971	5,169	17,841	5,527	5,818	6,444
	성장률	25.7	30.4	46.5	49.9	38.8	51.3	43.7	29.6
	구성비	3.7	3.9	4.1	4.6	4.1	4.6	4.8	4.4
퇴 직 보 험	보험료	758	521	6,828	573	8,680	960	273	3,940
	성장률	46.4	27.3	43.1	-48.4	27.5	26.7	-47.5	-42.3
	구성비	0.8	0.5	5.7	0.5	2.0	0.8	0.2	2.7
퇴 직 연 금	보험료	534	541	5,049	1,994	8,119	2,385	1,123	14,890
	성장률	-29.4	39.3	307.9	112.4	144.4	346.4	107.4	194.9
	구성비	0.5	0.5	4.2	1.8	1.9	2.0	0.9	10.2
계	보험료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22,403	146,321
	성장률	11.7	14.9	21.1	19.4	16.9	20.8	16.5	21.8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9			FY2010		
		2/4	3/4	4/4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37.1	54.3	39.9	21.2	50.1	-7.2
	사업비율	16.6	43.5	36.3	60.0	51.3	49.6
	합산비율	83.8	97.7	76.3	81.2	101.4	42.4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89.0	85.4	81.9	36.1	55.2	143.6
	사업비율	26.3	44.2	36.2	28.7	31.5	37.1
	합산비율	115.4	129.6	118.1	64.8	101.4	180.7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7.9	31.5	88.0	-98.2	70.9	27.8
	사업비율	23.7	21.6	15.5	17.7	20.8	20.7
	합산비율	71.6	53.0	103.4	-80.6	91.8	48.5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7.2	63.0	57.4	52.8	66.4	62.2
	사업비율	18.6	24.4	32.6	24.9	23.1	21.9
	합산비율	85.8	87.4	90.0	77.8	89.5	84.1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29.0	29.0	35.2	42.6	36.1	43.8
	사업비율	56.5	60.0	77.3	59.3	56.9	60.7
	합산비율	85.5	89.0	112.6	102.0	93.0	104.5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60.0	60.2	59.3	71.8	51.1	82.3
	사업비율	27.5	30.1	26.8	25.2	26.5	25.1
	합산비율	87.5	90.3	86.1	97.0	77.6	107.5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4.1	79.0	78.6	75.7	82.5	85.9
	사업비율	29.9	31.7	31.7	30.3	31.1	30.2
	합산비율	104.0	110.7	110.3	106.0	113.6	116.1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78.5	80.1	81.5	81.3	81.3	81.6
	사업비율	22.9	17.0	17.5	17.6	17.8	17.4
	합산비율	101.5	97.1	99.0	99.0	99.2	99.0
전 체	경과손해율	74.9	76.7	78.2	72.8	79.3	80.2
	사업비율	25.2	22.5	22.8	21.9	22.3	21.7
	합산비율	100.1	99.1	100.9	94.6	101.6	101.9

주 :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헌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1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4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4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장동식, 최영목, 김소연,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조사보고서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류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CEO Report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 계간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1년 봄호 (통권 57호)

발행일 2011년 4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